

碩士學位論文

제주도 와산리 멩감제 연구



濟州大學校 大學院

韓國學協同課程

尹 順 姬

2009年 12月

제주도 와산리 멩감제 연구

指導教授 許 南 春

尹 順 姬

이 論文을 文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0 年 2月

윤순희의 文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①

委 員 _____ ①

委 員 _____ ①

濟州大學校 大學院

2010 年 2月

**The Study of 'Meng-Gam-Je' at
Wa-San-Ri of Jeju**

Sun-Hee Yoon

(Supervised by professor Nam-Chun Heo)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for the of Master of Korean Studies

2010. 2.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Department of Interdisciplinary Postgraduate Program in
Koreanology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목 차>

Abstract	iv
I. 서론	1
1. 연구목적	1
2. 선행연구 검토	3
3. 연구대상 및 방법	5
II. 와산리 개관	7
1. 역사와 현황	7
2. 생업활동	9
3. 신앙	13
1) 공동체신앙	14
2) 개인신앙	16
III. 멩감제와 멩감본풀이	19
1. 와산리 멩감제 사례	19
1) 멩감제 준비	19
2) 멩감제 제차 및 의미	21
3) 드르멩감과 문전철같이 의례 비교	27
2. 멩감본풀이 분석	41
1) 멩감본풀이 성격	42
2) 관련 의례 비교	44
3) 멩감본풀이 의미	47

IV. 멩감제 전승과 변화 양상	50
1. 멩감제 조사 사례 정리	50
1) 기존 조사	50
2) 와산리	55
2. 와산리 멩감제 전승과 변화 양상	58
1) 전승 상황	59
2) 변화 양상	72
V. 멩감제 전승 요인과 의의	78
1. 멩감제 전승 요인	78
1) 신앙 전통	78
2) 생업과 경제력	83
2. 멩감제 의의	84
1) 신년제의 기능	85
2) 가족공동체 통합 증대	87
VI. 결론	89
참고문헌	91

<사진차례>

<사진 1> 드르멩감 초감제 장면	23
<사진 2> 문전철같이 초감제 장면	31
<사진 3> 칠성 지드림	35
<사진 4> 멩감제 음복	86
<사진 5> 각산받음 장면	88

<표 차례>

<표 1> 와산리 연령별 인구	8
<표 2> 와산리 농경지 이용 현황 비교	11
<표 3> 1990년대 와산리 농산물 생산 현황	12
<표 4> 2008년도 와산리의 주요 작물 재배 현황	12
<표 5> 와산리 원주민 가구의 종교현황	13
<표 6> 와산리 주민들의 개인신앙 양상	17
<표 7> 드르멩감과 문전철갈이 구성 요소 비교	38
<표 8> 와산리 멩감제의 양상	55
<표 9> 멩감제를 하고 있는 가구 현황	61
<표 10> 멩감제를 조상 때부터 하지 않는 가구의 현황	65
<표 11> 멩감제 중단 가구	68
<표 12> 멩감제 중단 이유	69
<표 13> 조상신본풀이 구연 현황	79

<그림 차례>

<그림 1> 문전철갈이 상차림	30
<그림 2> 4·3 전후 마을구성과 주요 성씨 분포도	59
<그림 3> 멩감제를 하고 있는 8가구	60
<그림 4> 멩감제를 하지 않는 23가구	60

Abstract

The Study of '*Meng-Gam-Je*' at Wa-San-Ri of Jeju

In Jeju's home, they are doing shamanism which are about praying for wealth in living and the security and peace in the family. *Meng-Gam-Je* is one of them. With the changes of the times, the situation of *Meng-Gam-Je*'s tradition is getting stagnant, however, a part of Jeju's families are still doing the *Meng-Gam-Je*. This study shows the aspects and changes in *Meng-Gam-Je* which is transmitting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in farming village called Wa-San-Ri. Also it interprets the meaning of *Meng-Gam-Je*.

It is hard to tell when *Meng-Gam-Je* started at Wa-San-Ri but it has come down by the house traditional religion. *Simbang*, who are *Mudang* and priest, supervise not only *Meng-Gam-Je* but also the village's *Dang-Good*. They have strong ties to the villagers for a long time. Nowadays *Meng-Gam-Je* is showing the changes in the aspect of tradition. First, the place where the ceremony takes was switched from the ground to an orchard's storehouse. Then it changed into the inside of a house. Second, a part of traditional food, which is hard to make, for offering disappears and substituted to a new thing. Third, the changes in the participant at *Meng-Gam-Je*. However, the essential divinity, the process of the ceremony, and a mythological story, which are the basis of the ceremony, maintains the traditional form.

'Dru-meng-gam' and 'mun-jun-chul-gal-e' are the two kinds of the ceremonies and are performing one after another in *Meng-Gam-Je* at Wa-San-Ri. Two ceremonies are divided clearly by the God, a place, an offering, and the process so it is presumed that they were existed

independently before. Yet, it is added up together and it is recognized as *Meng-Gam-Je* by putting together the two ceremonies which are *Simbang* and the people who trust it.

'Dru-meng-gam' is doing the ceremony for the abundance in farming and stock raising to the *Meng-Gam* God, the God of agriculture, and the God of orchard. 'Mun-jun-chul-gal-e' is doing ceremony to the house Gods and the ancestor Gods (which are not blood related but prayed as a God in the base of shamanism.) People pray for the protection during whole year, keeping the prayers away from the misfortune, and the families' health.

This study views *Meng-Gam-Je* by participant observation and analyzed the meaning of the myths which are called in the ceremony's essential components, the religious service and the ceremony. Especially, *Meng-Gam* God's character could not clearly defined in the research in Jeju's belief in shamanism so we tried to examine by the relationship between myth (*Meng-gam-bon-pul-e*) and the ceremony. As a result, there is a possibility that *Meng-gam* God could be the hunting God, who formed in the time of hunting and pasturage from antiquity. Now, it was put in order that it is recognized as a guardian of occupation at present.

In addition, we researched about *Mudang(Simbang)* who controls the '*Meng-Gam-Je*' and the believer by interviews about the understanding of the ceremony, the process of the tradition, and analysis of the meaning of the ceremony. As a result, we were able to clarify that an occupation (farming and stockbreeding) and home belief in traditional shamanism are the important variable to continue *Meng-Gam-Je*. In other words, *Meng-Gam-Je* is handed down actively in the families that are having the occupation as agriculture and a stockbreeding and the families' financial power is above the middle class. Also the families worship their ancestor. The believers understand *Meng-Gam* God as a the mighty one who will bring abundance of the occupation. Through the *Meng-Gam-Je*, they also

believes that it guarantees the abundance of the farming for one year and it's possible to accomplish the safety and peace of the family. Moreover, they think it as the rite of passage that must be performed when the New Year begins.

The significance of the transmission in '*Meng-Gam-Je*' is that maintaining the traditional belief and the family communal culture. Modern times of Jeju's rural society is influenced by the modernization and its communal is breaking down rapidly. It comes out as the traditional belief also declines and vanishes. On the other hands, there is the phenomenon that the families' traditional is kept and continued in individual family rather than absorbing in the outside's change flow like '*Meng-Gam-Je*'. Holding on the religious tradition from ancestors means that *Meng-Gam-Je* does the function of the complement on the other Confucianism's way of ceremony.

The existing research about Jeju's belief in shamanism studies at various sides, but there aren't a lot of achievements which made the individual ceremony such as *Meng-Gam-Je*. *Meng-Gam-Je* is related to the religious belief in God of a mountain which was developed by hunting and stock farming. Because Jeju is an island, it can be seen as the belief in the mountainous areas rather than the coastal area. At the same time, it shows the presence of the individual family's ceremony of shamanism. In this study, the phenomenon of *Meng-Gam-Je*'s ceremony and transmission was focused and studied. Jeju's mountainous area's religious tradition, the relevance of the belief in the village's community, the relation between the myth and the ceremony, and especially worship of ancestor in shamanism should be studied from now on.

key words : Jeju, Wa-San-Ri, Shamanism, *Meng-gam-je*, *Meng-gam-bon-pul-e*, The New Year religious service, The occupation belief, Home belief, House God (or the ancestor Gods), The belief of the God of mountain.

I. 서 론

1. 연구 목적

멩감제는 제주도의 민가에서 행해지고 있는 신년의례들 가운데 하나이다. 제주도에서 신년에 가정의 무사안녕과 생업의 풍요를 기원하는 세시 풍속 의례는 ‘문전제’, ‘철갈이’, ‘멩감코사’, ‘요왕제’ 등이 있다.¹⁾ ‘문전제’와 ‘철갈이’를 ‘문전철갈이’라고도 하는데, 제주도의 민간에서 보편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의례이다. ‘멩감코사’는 문전제와 비슷하나 농경신인 세경이나 수렵신인 산신을 청하여 비는 의례가 주된 것이며, 가정의 제액초복을 비는 ‘문전제’와는 차이가 있다. 또한 제주도내에서도 ‘철갈이’는 하지만 ‘멩감코사’를 하지 않거나, ‘멩감코사’를 하고 ‘철갈이’는 하지 않는 등 마을이 처한 사회경제적 환경과 전통에 따라 가정에서 전승되는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²⁾

제주도의 마을은 해발 고도에 따라 어촌, 중산간촌, 산촌으로 구분한다.³⁾ 각각 생산 기반이 다르며 생활양식도 다르게 나타난다. 해안 마을은 어업과 해녀들의 물질, 농사가 주요 생산기반이지만 중산간 마을과 산간 마을은 축산, 농업이 주요 생산기반이다. 신년이 되면 생업을 수호하는 신에게 풍요를 기원하고, 집 안에 존재하는 신들에게 가정의 제액초복을 기원하는 의례를 한다. 이때 생업의 풍요를 기원하는 의례 중 하나로 멩감제를 하고 있다.⁴⁾

1) 이들 제의에 대하여 현용준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문전제’는 가택의 신인 문신(門神)을 주 대상으로 가내 안전을 비는 제(祭)로서 ‘조왕’, ‘칠성’ 등 집안의 여러 신들에게도 비는 제의이며, ‘철갈이’는 ‘밭칠성’인 부(富)의 사신(蛇神)을 모시는 집에서 행하는데, 문전제처럼 문신, 조왕 등 다른 신들에게도 의례를 행하며, <멩감코스>는 문전제와 비슷하나 농업과 수렵의 풍요를 비는 점에 중점이 있다. 요왕제는 어부나 해녀의 가정에서 새해의 생업의 무사·번창을 비는 것이 가장 많다.

현용준, 『제주도 무속연구』, 집문당, 1986, 233쪽~234쪽.

2) 1967년도에 제주도의 용담마을과 북촌마을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 용담마을에서는 멩감제를 하고 있는 반면에 철갈이는 하지 않고 있으며, 북촌마을에서는 반대로 철갈이를 하고 있는 반면에 멩감제는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용준, 『제주도 무속과 그 주변』, 집문당, 2001, 274쪽.

3) 특정한 기준을 정하여 엄격하게 구분하지는 않으나, 중산간촌은 해발 100미터 이상, 산간마을은 해발 300미터 이상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4) 멩감신은 생업의 양상에 따라 어업은 요왕멩감, 농업은 제석멩감, 수렵은 산신멩감이라 불렀다. 현용준·김영돈, 『구비문학대계 9-1(제주도 북제주군)』,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290쪽.

이 글은 제주도의 일부 지역, 그 중에서도 와산리에서 행해지고 있는 멩감제를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다. 와산리는 제주도의 북동부 지역에 위치한 중산간마을로서 무속신앙 전통이 강하게 유지되고 있는 곳이다. 중산간마을로서 해안가 마을과는 생산양식과 생활양식이 확연하게 구분되며, 또한 와산리는 인근에 있는 마을과도 다른 무속신앙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 무속신앙은 공동체 신앙과 개인 신앙으로 나뉠 수 있는데 두 가지 신앙 모두 독특하다. 공동체 신앙인 마을 당굿으로 볼 적에 제주도의 마을들이 보편적으로 본향당을 중심으로 무속신앙을 유지하고 있다면, 와산리는 본향당보다는 일뤼당 계열인 불도당 신앙이 더 강한 편이다. 본향당이 폐당된 이후부터 해마다 불도당 의례를 하면서 본향당신을 청하고 있고, 신앙민들은 불도당을 본향당으로 여기고 있다. 또한 개인 신앙으로 살펴본다면 마을에서 오래 전부터 살아온 원주민들은 멩감제를 당연히 치러야 하는 의례로서 생각하고 있다. 아울러 멩감제를 지속하는 가정들은 특정 심방과 단골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들은 제주도의 민간신앙 및 무속신앙을 연구할 수 있는 다양한 현상들이라 하겠으며, 특히 중산간지역 신앙을 연구할 수 있는 적절한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와산리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 글의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멩감제가 전근대 사회부터 전승되어 현대에도 지속되고 있는 이유를 밝히고자 한다. 농경사회에서는 무속에 근거를 둔 다양한 의례와 세시풍속, 가정신앙, 마을신앙 등이 있었다. 이러한 신앙은 현대에 들어와서 점차 사라지고 있는 추세이다.⁵⁾ 하지만 여전히 다양한 무속신앙이 존재하고 있으며, 멩감제도 그 하나의 유형으로 존재하고 있다. 실제로 멩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에 대한 참여 관찰과 심방 및 전승 가구에 대한 면접을 통하여 지속되고 있는 이유를 밝히고자 한다.

둘째, 멩감제 의례에 대하여 제차 분석을 시도하고 그 의미를 확인하고자 한다. 제주도 무속에 대한 연구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과제들이 남아있다. 제주도 무속신앙을 입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당굿, 큰굿, 가정신앙과 조상굿, 생업활동과 긴밀한 관련이 있는 무속신앙에 대한 면밀한

5) 그 원인으로는 1960년대와 1970년대 정부의 미신타파 정책, 현대종교의 영향, 근대화 교육의 영향 등을 들 수 있다.

조사가 요구된다.⁶⁾ 멩감제는 생업과 관련이 있는 의례이며, 또한 조상신 신앙과도 관련이 있다. 큰굿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으며, 제주도의 굿과 무속신앙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연구대상이지만 현재까지 조사와 연구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멩감제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시도하여 그 의미를 규명하고자 한다.

셋째, 멩감제에서 불리우는 멩감본풀이에 대한 재검토를 통하여 본풀이와 의례의 상관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멩감제에서는 심방이 멩감본풀이(사만이본풀이)를 읊는다. 본풀이는 의례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소이며, 해당 신에 대한 이야기이다. 멩감본풀이는 멩감제와 직접적인 관련을 갖는 본풀이지만 의례와의 관련 속에서 직접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글에서는 실제 무속의례에서 쓰이고 있는 멩감본풀이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고자 본풀이에 대한 해석 및 의례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넷째, 와산리에서 현재 멩감제가 전승되고 있는 요인을 신앙민 조사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또한 멩감제가 갖고 있는 의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멩감제라는 무속신앙을 전승하고 있는 이유를 종교적인 이유와 사회경제적인 이유로 구분하여 입체적으로 살펴보고, 멩감제가 갖고 있는 다양한 기능들 - 신년제의 성격, 가정공동체 통합 등 - 을 통하여 그 의의를 밝히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검토

현재까지 멩감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한 조사 결과물은 없다. 제주대학교 국문학과와 국어교육학과에서 마을조사를 하면서 마을 신앙으로 멩감제가 행해지고 있는 것을 기록한 내용들은 있으나, 이는 제주도내 마을에 대한 민속학적으로 현황 조사를 하면서 멩감제가 존재하고 있는 현상을 간략하게 기술하고 있을 뿐이다.⁷⁾ 이들 조사 자료를 보면 제주도내 많은 마을에서 멩감제가 보편적으로 행해

6) 허남춘, 「제주문화 연구의 성과와 과제」, 『탐라문화』 31호, 탐라문화연구소, 2007, 360쪽.

7) 제주대학교 국문학과와 『국문학보』와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백록어문학회에서 발간한 『백록어문』에 부분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지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 국한된 사례가 아님을 알 수 있다.

현용준은 멩감제를 체계적으로 『구비문학대계 9-1(제주도 북제주군)』에 소개하였다. 제주시 용담동에서 행해졌던 멩감제를 녹음하고 그 내용을 전사하여 기록을 남긴 것이다. 멩감제의 의례 순서와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하였는데, 현재의 와산리에서 행해지고 있는 멩감제와는 제차와 내용에서 차이를 보인다. ‘멩감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제차를 보면 ‘문전철갈이’와 유사하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현재의 멩감제와 비교 분석하는데 유용하며, 이 글에서도 현용준의 조사 자료를 비교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문무병은 제주도의 세시풍속을 종합 정리하면서 멩감제에 대하여 “집안에서 ‘산신멩감(山神命監)’을 조상으로 모시는 경우, 산에 가서 정결한 곳에서 심방을 데리고 고사를 지내는데 이를 <산신고사> 또는 <산신멩감>이라 한다. 원래 ‘멩감코스(命監告祀)’는 집안에 농사가 잘 되게 해 달라고 비는 고사”라고 정리하고 있다.⁸⁾ 제주도의 세시풍속을 종합하면서 멩감제에 대하여 요약하고 있는데, 의례의 형식과 내용만 기술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고 있다.

멩감본풀이(사만이본풀이)에 대해서는 최원오(1997), 현승환(2000), 권태효(2004), 현용준(2005) 등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들은 본풀이의 주요 화소인 ‘백년해골 승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최원오는 이에 대하여 조상승배사상이 반영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⁹⁾ 현승환은 백년해골은 수렵신의 표현이며 사만이본풀이는 수렵문화를 배경으로 형성되었다고 하였다.¹⁰⁾ 권태효는 사만이본풀이가 당신본풀이의 영향을 받았으며, 본풀이의 전반부 내용에서 일반신본풀이보다 당신본풀이와 조상신본풀이의 성격이 강하다고 정리하고 있다.¹¹⁾ 한편 현용준은 백

8) 문무병, 「제주도의 세시풍속의 특징」, 『제주도 세시풍속』, 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178쪽.

“<문전철갈이>나 <칠성제> 그리고 <산신멩감(山神命監)>은 집안에서 따로 지내는 것이 아니라 같은 날을 받아 한꺼번에 한다. 집안에 문전·칠성·산신을 다 위하는 경우는, 먼저 날을 받아 심방을 데리고 산에 가서 정결한 곳을 택하여 <산신코스>를 하고 와서, <문전코스>, <조왕코스>를 하고, 안칠성과 밭칠성을 위한 <칠성코스>를 한 뒤, 칠성놀을 거두어 기와 두껍을 열고 그 속에 새해의 햇곡식으로 갈아 넣은 다음, 기와를 덮고 주쟁이를 다시 씌워 놓는다. 묵은해의 곡식을 새해의 햇곡식으로 바꾸어 넣는 것이다. 이를 ‘철갈이’라 한다. 이러한 고사는 집안에서 모시는 부신(富神)들을 위한 신년과세제(新年過歲祭)로 <문전철갈이>라 한다. 특히 <멩감코스>는 3년에 한 번씩 하는데, 요즈음은 하는 집이 드물다. 오히려 절에 가서 산신불공(山神佛供), 요왕불공(龍王佛供), 칠성불공(七星佛供) 등을 드리는 집안이 점차 많아 가는 추세이다.”

9) 최원오, 「차사본풀이 유형 무가의 구조와 의미」, 『한국민속학』29호, 한국민속학회, 1997, 223~246쪽.

10) 현승환, 「사만이본풀이 연구」, 『백록어문』16집, 백록어문학회, 2000, 175쪽~179쪽.

11) 권태효, 「제주도 <멩감본풀이>의 형성에 미친 당신본풀이의 영향과 의미」, 『한국 구전신화의 세계』지식산업사, 2005.

년해골의 숭배 계기는 수렵이며, 수렵시대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¹²⁾ 멧감본풀이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본풀이 자체의 내용에 초점을 두고 특성과 문화적인 함의, 본풀이 형성 배경을 통한 특성에 관심을 두고 있는 반면, 멧감제라는 의례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에 대해서는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즉, 현장론적인 시각에서 실제 멧감제가 진행되고 있는 현장에서 본풀이가 어떤 기능을 하고 있으며, 본풀이가 의례와 어떠한 연관이 있는가를 분석해내는 데까지는 진척되지 못한 상태이다.

3. 연구 대상 및 방법

이 글의 연구 대상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와산리에서 행해지고 있는 멧감제의 실제 사례이며, 또 하나는 와산리의 멧감제 전승 상황이다. 와산리의 멧감제는 생업이 잘 되기를 기원하는 의례와 가정의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의례로 구성되어 있다. 즉, 생업의례와 가정의례가 합쳐져 있으며, 멧감제를 치르고 있는 주민들도 구분하지 않고 두 가지를 합쳐서 멧감제라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심방들도 두 가지 의례를 구분하지 않고 한 가지 의례로 생각하고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와산리에서 현재 행해지고 있으며 주민들과 심방이 생각하고 있는 멧감제를 연구 대상으로 한다.

와산리에서의 멧감제 전승 상황에 대하여는 현재 와산리에서 멧감제를 지속하고 있는 가구와 중단한 가구를 대상으로 그 양상과 원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의례의 지속과 중단은 종교심리학적, 사회심리학적인 요인과 배경이 있으며, 그에 따라 의례 자체의 변화, 신앙민들의 생각의 변화가 뒤따르고 있다. 한 마을 내에서 전통적으로 수행해 온 의례의 전승과 변화, 중단 양상이 이 글의 또 다른 연구 대상이다.

연구방법으로는 관찰 및 면접 방법을 사용하였다. 2008년도 2월에 와산리에서 행해졌던 멧감제를 관찰하고 녹취하였으며, 신앙민과 심방에 대하여 면접 조사를

12) 현용준, 『제주 신화의 수수께끼』, 집문당, 2005, 92쪽~100쪽.

실시하였다. 멍감제에 대한 관찰은 사전에 심방 및 본주의 허락을 받고 의례의 전 과정에 참여하여 의례를 진행하는 심방의 목소리를 직접 녹음하였으며, 또한 동영상 촬영을 하였다.¹³⁾ 녹음한 내용은 전사하였으며, 제차 분석은 기존의 자료를 참고하고 심방과의 직접적인 면담을 통하여 정리하였다. 또한 멍감제를 의뢰했던 본주에 대하여 면접을 실시하여 멍감제를 하고 있는 이유와 역사적 배경, 의미 등에 대하여 조사하였다.¹⁴⁾

2009년 8월부터 10월까지 와산리에 거주하는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하였다. 면접은 사전에 설문지를 이용하여 몇몇 가구를 대상으로 선행조사(PILOT TEST)를 시행하였으며, 이후 설문지를 보완하여 모든 가구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였다. 전수 조사를 통하여 멍감제를 지속하는 가구와 멍감제를 하지 않는 가구를 구분하였으며, 멍감제를 지속하는 가구에 대하여는 신앙을 지속하는 이유, 변화하는 양상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질문하였다. 또한 와산리 출신이지만 현재 제주시 인화동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멍감제를 하고 있는 가구에 대하여도 별도의 조사를 실시하였다.

와산리에서 멍감제를 주관하는 있는 심방은 모두 4명인데, 이들에 대한 면접 조사도 별도로 실시하였다. 심방에 대한 면접에서는 와산리에서의 멍감제 역사와 존재 양상, 멍감제 제차에 대한 해석, 단골과의 관계, 본풀이에 대한 해석 등을 조사하였다.

13) 영상촬영은 강정식·강소전·한진오가 하였다. 멍감제 전사는 강소전의 녹화자료를 근거하였으며 송정희의 도움을 받았다.

14) 본주는 의례를 의뢰한 자를 말한다. 1인 일수도 있고 가정의 구성원 일수도 있다. 이 글에서는 가장남편에 한하여 본주라 호칭하고 아내일 경우 본주의 아내, 장남일 경우 본주의 장남으로 서술하겠다.

II. 와산리 개관

1. 역사와 현황

와산리는 조천읍 소재지인 조천리에서 8km 떨어져 있고 선흥과 대흥의 중간 지점에 위치한다. 조천읍에서 교래리 다음으로 가장 높은 지대인 해발 200m~300m 고지에 위치하고 있다. 와산리는 '눈미'라는 아름다운 지명을 간직하고 있다. 이는 '누운 오름'이라는 뜻으로 와산리에 있는 당오름의 형상에서 유래한다. 당오름은 오름에 신당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지만, 오름의 형상이 누워있는 모습이어서 그대로 마을이름이 와산(臥山)이 되었다.

와산리 설촌 시기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현재 와산리에 정착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요 성씨의 정착년도와 인근 마을인 선흥과 대흥의 설촌 시기와 연관지어 추정해 보면 약 400여 년 전으로 생각할 수 있다. 선흥은 알선흥과 웃선흥이 나뉘는데 알선흥이 700년 경 설촌되고 웃선흥은 400년의 설촌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와산은 웃선흥과 냇가를 경계로 지경을 가까이 하고 있다. 이곳에는 4·3 당시 '웃가름'이라는 와산리 자연마을이 있었다. 마을의 주요 성씨는 한씨, 양씨, 고씨이며, 이들 선조들의 와산리 정착 시기 역시 350여 년 전이다. 또한 마을 내에 속칭 금산이란 곳에 고분이 있는데 묘비문으로 보아 마을 설촌을 370년 전으로 추정되고 있다.¹⁵⁾ 이러한 자료들을 근거로 와산리는 약 400여 년 전에 설촌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와산리는 4·3이 일어나기 전에는 본가름, 서동네, 종남동, 제비보리, 웃동네의 자연 마을로 140여 호의 가구가 있었다. 이중에 본가름과 서동네를 제외한 나머지 자연 마을들은 4·3 이후 복구되지 않았다. 종남동은 본동에서 남쪽으로 1.5km 떨어진 당오름 정상 뒤편에 자리 잡고 있다. 4·3 당시 12 가구 60명 내외의 주민들이 살고 있었으며, 아래 동네인 제비보리와 함께 한씨의 집성촌이며, 조씨, 양

15) 김민규, 『조천읍지』, 도서출판 제주문화, 1991, 283쪽.

씨, 김씨가 모여 살았었다. 제비보리는 당오름과 본가름의 중간에 위치하였다. 선
 흥2리 지경에서 이주해 온 한씨의 집성촌으로 8가구의 주민들이 살고 있었다. 웃
 동네는 선인군도의 남쪽에 위치하였으며, 김씨·이씨·조씨 등 20가구가 살고 있
 었다.¹⁶⁾ 4·3으로 인해 이들 자연마을은 복구가 되지 않아 잃어버린 마을이 되고
 말았다. 4·3 당시에 이루어진 군인토벌대의 방화로 마을 주민들이 함덕, 조천 등
 등지의 해변 마을로 소개되었으며, 일부 주민들은 '왕모루곶', '동산전', '새미오름'
 등지에 피신했다가 토벌대에 발각되어 총살되었다. 4·3의 와중에 살아남은 사람
 들은 1949년 대흘국민학교에 성을 쌓아 대흘, 와흘, 교래리민과 함께 임시 합숙
 소에서 집단생활을 하다가 1952년 와산 본동에 돌아와 마을을 재건하였다.¹⁷⁾

현재 와산리는 예전 본가름과 서동네의 자연마을 중심으로 인가가 밀집해 있
 으며 1·2·3반으로 구성되었다. 현재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주요 성씨는 한씨,
 양씨·고씨·채씨 순서로 구성된다. 전체 154 가구 중에서 농가는 79가구이며,
 비농가는 75가구이다. 이 중에서 와산리에 실제 거주하면서 리사무소에 등록되어
 있는 가구는 79가구이다. 농가 79가구 중에서 와산리 출신의 가구는 31가구에 불
 과하다. 외지에서 전입된 가구는 48가구로 와산에 거주한 기간이 1년에서 30년
 정도로 다양하다. 현재 인구는 남자 178명, 여자 158명, 총 336명이다. 1991년도
 의 남자 186명, 여자 199명, 총 385명인 것과 비교하면 와산리에도 농촌 인구 감
 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¹⁸⁾ 연령별 인구는 15세 이상 60세 이
 하의 인구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인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표 1> 와산리 연령별 인구(와산리사무소 제공) (단위: 명)

구분	남자	여자	합계
0세~14세	21	13	34
15세~64세	139	124	263
65세 이상	18	21	39
합 계	178	158	336

16) 와산리에서 선흥2리로 가는 도로 명칭

17) 제주도/제주 4·3연구소, 『제주4·3유적』, 도서출판 각, 2003, 397쪽.

18) 김민규, 앞의 책, 44쪽.

2. 생업활동

와산리는 조선시대에 국마장으로서 말을 키우던 2소장이 있던 곳이다. 이곳에서 마을 주민들도 함께 말을 방목하면서 키웠다. 국마장은 1897년 공마제도가 폐지되면서 사라졌지만 마을 주민들은 2소장 안에서 생계를 위하여 말과 소를 방목하여 키워왔다. 일제 강점기인 1934년에 제주도내에서의 축산물을 수탈하기 위하여 중산간 지역의 마을을 대상으로 공동목장을 강제로 만들게 된다. 와산리에도 1934년에 ‘조천2공동목장’이 만들어졌으며 일제의 수탈정책의 영향을 받았다.¹⁹⁾ 하지만 해방 이후 다른 마을에는 공동목장이 남아 있어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와산리에서는 개인 소유로 분할되어 공동목장이 없어지게 된다.

와산리의 주요 생업 활동은 축산과 농업이다. 와산리에는 말과 소를 방목하여 키우기에 적합한 자연초지가 넓게 분포하고 있다. 주민들은 주로 당오름과 피꼬리오름을 비롯하여 목초지에 방목을 하였다. 봄철에 파종하기 전에 당오름에 소와 말을 올려서 방목을 하기 시작하여 여름농사가 끝날 때까지 방목하였다.²⁰⁾ 1970년대까지는 소는 10~20필 단위로 둔(屯)을 만들어 낮에는 휴한지나 잡종지에 방목한 뒤 밤에는 바령곶에 가두어 사육하였으며, 말은 연중 방목하여 사육하였다.

목축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테우리’라고 불렀다. 이들은 조선 시대에는 목자(牧者)라고 하여 전문적으로 소와 말을 사육했던 사람들로서 신분적인 면에서 평민보다 못한 존재로 차별 대우를 받았다. 천민 출신으로 농사에 종사하는 사람들과는 사회적으로 차별되는 인식이 있었다. 현재 와산리에는 이러한 테우리 출신이 없다. 이는 공동목장이 일찍이 사라져 버린 것과 다른 마을과 달리 기업목장

19) 강만익, 「목장 역사와 축산업 변화」, 『한경면 역사문화지』, 한국문화원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2007. 646쪽.

20) 와산리출신 양○○씨 면담(2009. 8. 12. 자택). “목축업을 위주로 여건도 좋고, 와산은 우리 선조들이 축산을 하기 위해서 정작하지 않았나,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1960년대 말) 당오름이라고. 우리 어렸을 때 콩, 조, 산뽕 파종하기 전까지 당오름에 올립니다. 소들이 거기서 물 먹고 풀 뜯어먹고 하다가 밭갈이 끝나면 허룻도라고 정을 돌아나고 여름 농작물이 파종 끝나면 소를 그때부터 그 정 뺏겼지로 돌아 내부는거라. 누룩담도 이삼일에 한번 밥 싸 들고 올라가서 낮에 소가 물가로 나오면은 확인하러 갖었어. 목축하기가 상당히 좋았어. 우리 어렸을 적에만 해도 그랬는데.”

이 없는 환경과 관련이 있다.

소와 말을 방목하여 키우려면 목초지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주기적으로 방앗불(放火)을 놓아서 산림을 목초지로 만들어 확장하였다. 이렇게 방앗불을 놓는 것도 화전의 일종으로서 목초지 확보와 함께 진드기를 살충하는 효과도 있었다. 와산리가 위치해 있는 중산간 지대는 꽃자왈 지대이다. 토심이 얇은 자왈과 나무 숲 및 현무암편으로 이루어진 꽃자왈 지대는 그 자체로는 방목지로 적합하지 않더라도 이곳에서 자생하고 있는 덩굴식물들은 겨울철에 방목해 놓은 말들의 먹이가 되었다. 특히 ‘꽃’은 비바람과 눈을 피할 수 있게 해주어서 목축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꽃자왈 지대는 대개 목장을 끼고 있으며, 방목을 위한 주기적인 화입(火入)에도 불구하고 초원에 둘러싸인 꽃자왈에 숲이 남아 있을 수 있다는 이유는 꽃자왈 자체가 암반으로 이루어져 있기도 했지만 불의 번짐을 막기 위해 주민들이 인위적으로 돌담을 쌓아 보호했기 때문이다.

와산리에서는 마을 사람들의 소와 말 뿐만 아니라 해안가 마을인 함덕, 조천, 신촌 지역 사람들의 소와 말을 대신 키워주기도 하였다. 해안가 마을에서는 방목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와산리 주민들에게 위탁하였던 것이다. 사육 규모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1991년도의 자료에 소는 75두, 말은 22두로 나타나 있다.²¹⁾ 당시 2인 이상 가구수가 74호인 것을 감안하면 가구당 평균 2마리 내외의 소와 말을 소유하고 있었던 셈이다. 또한 대신 키우던 다른 마을의 소와 말을 합치면 가구당 10여두 내외를 키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000년대에 들어서 와산리에서의 목축업은 규모가 커지게 된다. 조천읍사무소의 2008년도 통계에 의하면 소는 8가구에서 172두, 말은 5가구에서 45두를 키우고 있고, 돼지는 1농가에서 112마리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육농가는 감소한 반면에 사육 두수는 대폭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사육농가가 감소한 것은 농기계의 발달로 인하여 농사에서 우마가 불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와산리 주민들의 주요 생업은 목축이 아니라 농업이다. 주요 소득 작물은 감귤이며, 그 다음 소득 작물은 산뽕(밭벼), 보리, 조, 콩, 참깨, 유채, 복분자 등이다. 와산리와 같은 중산간지대의 토양은 ‘뜯땅’이 많다. ‘뜯땅’은 농암갈색의 화산회토로 점토 함량이 20% 내외의 경지들이다.²²⁾ 보리와 조는 어느 정도 경작

21) 김민규, 앞의 책, 84쪽.

이 가능하다. 또한 목산전이라 하여, 농암갈색의 화산회토로 점토 함량이 20% 미만으로 매우 척박한 토양도 있다. 목산전은 ‘뜯땅’과 같은 성질의 땅이나 자갈 함량이 많아서 농사짓기가 더욱 힘들었다.²³⁾ 4·3 이전에는 조, 산티(밭벼), 모물(메밀), 콩, 팥 등을 재배하였으나 토양이 척박하여 생산량이 많지 않았다. 2소장의 넓은 땅을 동장(東場)과 서장(西場)으로 나누어서 한 해에 동장에서 농사를 지으면 서장에서 방목하고, 그 다음 해에는 서장에서 농사를 짓고 동장에서 방목하여 토양이 척박해지는 것을 막고 토양의 지력을 회복하는 방식을 유지하였다.

와산리의 토지 이용 현황을 보면 임야를 제외한 농경지 중에서 밭이 147ha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과수원이 91ha, 초지가 18ha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2008년에 와서는 과수원과 초지가 차지하는 면적이 대폭 확대된다. 밭 면적은 차이가 없으나, 과수원이 522ha로 크게 늘어났으며, 초지 역시 224ha로 대폭 늘어났다. 과수원이 대폭 늘어난 것은 밀감이 1980년대 이후 주요 소득 작물로 등장하면서 재배 면적을 확대하여 대규모로 과수원을 운영하는 가구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또한 초지 역시 임야로 놔두었던 지역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목축업에 이용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2> 와산리 농경지 이용 현황 비교 (단위: ha)

구분	전	과수	초지	출처
1990년	147	91	18	김민규, 『조천읍지』, 1991
2008년	148	522	224	와산리사무소

1960년대에 비료가 보급되면서 농업생산량이 높아지기는 하였으나, 농가 소득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었다. 농사짓는 것으로는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 서 숲을 구워서 팔기도 하였으며, 마를 채취하거나 겨울철에는 꿩을 사냥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생활을 하였다.²⁴⁾ 1970년대 정부에서 유채 농사를 장려하여 주

22) 고평민, 『제주도의 생산기술과 민속』, 대원사, 2004, 65쪽.

23) 와산리주민 이○○씨 면담(2009. 8. 15. 자택). “와산리 땅은 뜯땅에 자갈이다. 계란 검은 계가 와산 지경에만 잘 되어. 저 해안 사람들 와산 돌들 치우기 싫다고 돌 재완, ‘나 돌밭에 김질 못맨다고 딸 시집 보내지 않는다고 했어. 자갈 없는 밭이 없어.”

24) 와산리주민 이○○씨 면담(2009. 8. 15. 자택). “어려운 생활하다가 4·3 사건 생기던 그때는 무법천지던 산에 가서 숲을 구웠다고. 저 산이 벌거숭이가 되었어. 그 숲을 구워서 하다가 그 숲을 계속 굶다보면 나

요 소득 작물이 되었다. 감귤은 1969년도부터 와산리에 들어왔고, 197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1980년대부터는 와산리의 주요 소득 작물이 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1990년대 와산리의 주요 소득 작물은 밀감, 콩, 보리, 참깨, 유채, 마늘 등이다.

<표 3> 1990년대 와산리 농산물 생산 현황²⁵⁾

작물	감귤	콩	참깨	맥주맥	유채	마늘	배추
생산량(톤)	2,008	291	42	87	27	19.2	13.2

1990년대의 농산물 생산량을 보면 감귤이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는 콩, 참깨, 맥주보리, 유채 순서이다. 이러한 작물 생산 현황은 2000년대에도 커다란 변화 없이 지속되고 있으며, 감귤과 콩, 참깨가 와산리의 주요 농산물로 생산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 들어와서 흑임자, 복분자, 녹차, 약용작물(독활, 당귀, 천궁, 곽행 등)을 새로운 소득 작물로 개발하고 있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표 4> 2008년도 와산리의 주요 작물 재배 현황²⁶⁾

작물	감귤	콩	참깨	약용작물	복분자
생산량(톤)	13,560	91	24	180	32

3. 신앙

와산리사무소 마을현황판에 146가구가 집계되어 있으나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구수는 79가구이다.²⁷⁾ 이 중에서 가구주가 와산리 출생인 원주민가구는 31가구

무가 었이난 정부에서 유채씨 갈랜 허연, 제주도 일대 유채가 퍼지난 비행기에서 보면 제주도 전체가 노랫어. 유채씨 해연 들어오니까 제주사람들이 숯 굽는 것도 치워 불고 조합에서 공판해가지고 판매했어.”

25) 김민규, 앞의 책, 60쪽~61쪽.

26) 와산리사무소 제공.

27) 와산리에 과수원을 갖고 있으면서 타지에 거주하는 가구가 많다. 부부가 행정상으로 별거의 형태로 나타는데 이는 농어촌 지역의 흔한 현상이다.

에 불과하고 그 나머지는 외부에서 전입한 가구들이다. 실제 마을에는 원주민 보다 외부 유입 가구가 많은데 직업 관계상 와산리에 거주하고 있다.²⁸⁾ 와산리가 고향이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원주민 가구 종교 현황을 살펴보았다.

<표 5> 와산리 원주민 가구의 종교현황²⁹⁾ (단위: 가구)

본향당(堂)	불교		수운교		기독교	종교없음
	본향당	불교	본향당	수운교		
16	2	1	4	2	0	6

위의 표에 나타난 원주민들의 종교 성향은 전통신앙인 무속신앙이 타종교에 비해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본향당의 항목은 불도당곳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불도당의 제일은 1년에 3회이다. 당곳은 크게 1년에 1번 하는데 주민들은 평균 3회 이상 다니고 있다. 당곳 이외에 당에 갈 때는 심방을 대동하지 않고 간단히 제물만 준비해서 비념만 하고 온다. 세시에 맞게 당에 지속적으로 다니는 관습이 와산리에는 여전히 남아있으므로 전통신앙의례가 활발히 전승되는 지역이라 할 수 있다.

본향당 이외의 종교 참여는 수운교가 6가구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수운교는 일제 강점기에 활성화된 종교인데, 와산리에서도 수운교 신자가 비교적 많았다고 한다. 수운교 교당은 조천읍의 조천리와 대흘1리 중간 지경인 양천동에 있었는데 와산리에서 걸어서 다녔다. 수운교 교당은 4·3 당시에 양천동 일대가 불에 타서 없어진 뒤 사라졌다가 뒤에 조천읍 신촌리에 신축하였다. 와산리를 포함한 조천읍 관내의 수운교신자들이 이곳에 다니고 있다.

와산리 인근에 사찰이나 교회 등 종교시설이 없었던 관계로 제도권 종교와의 접촉이 적어 관련 종교인이 적은 것으로 보인다. 불교 항목에 속하는 가구들은 제주시로 이주하게 되면서 불교문화를 수용하게 된 경우이다. 종교가 없는 가구

28) 외부유입가구는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농사를 짓기 위하여 1980년대에 이주한 가구들로 제주도 출신이 아니다. 나머지 하나는 중산간 지역에 펜션, 돈사, 사찰 등이 들어서면서 관련 종사자들이다.
29) <표5>에서 불교와 수운교 종교 현황란에 본향당과 해당 종교가 나뉘어 있다. 이는 제보자가 본인이 종교 여부를 해당 종교라 답변하면서 당에도 함께 다닌다고 밝혔을 경우이다.

들은 집안이 유학을 숭상하여 분향당을 다니지 않았던 경우와 예전에는 분향당에 다녔지만 최근에는 다니지 않는 경우이다. 당에 다니는 것을 중단한 경우는 당곳에 참여하던 여성이 사망하거나 고령(高齡)으로 인하여 본인은 당곳에 참여하지 않고 대신에 타지에 거주하는 며느리가 신앙을 이어받은 경우를 말한다.³⁰⁾ 와산리 원주민들의 종교성향은 무속신앙이 우세하다. 무속신앙을 공동체와 개인 신앙 양상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1) 공동체 신앙

제주의 마을에는 다양한 직능의 신당이 존재한다. 보편적으로 삼분향이 존재하고 있는데 분향당·일똥당·생업신 성격의 당이 있다. 와산리에도 다양한 직능의 신당이 존재하였는데 분향당·불도당·산신당 등이 있었다.

분향당은 당신본풀이에 전해지는 신명으로 ‘배락당’이라 하기도 하고 불도당보다 지리적으로 밑에 있다고 해서 ‘알당’이라 하기도 한다.³¹⁾ 와산리 마을회관에서 동쪽으로 약 500미터 지점에 있는 밭 한가운데 위치한다. 폐당된 지 오래되어 신목인 커다란 팽나무만 남아있다. 심방의 본풀이 말명에 의하면 제일(祭日)은 1년에 4차례였고 일제 강점기 때 폐당되었다고 전해진다. 현재는 불도당 당곳 때 분향당신을 함께 청하여 모시고 있어 불도당 의례에 분향당에 대한 의례를 통합했다고 하겠다.³²⁾

불도당은 현재 와산리의 분향당과 같은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분향당곳은 분향신을 위한 제의이지만, 불도당 제일(祭日)이 신년과세의 의미를 띄며 공동체를 집결시킨다는 기능적인 측면에서 불도당곳이 분향당곳이라고도 할 수 있다. 당신은 옥황상제의 ‘말썰떡님애기’로 포태와 산육의 신격을 갖고 있다. 이곳에서 해마다 음력 3월 13일 당곳을 하고 있다. 제물은 메 2그릇, 돌레떡, 나물 3가지, 과일 3

30) 일반적으로 나이가 70세 이상이 되면 자녀들이 모두 출가해서 가정을 가지게 되어 자녀들을 양육할 책임을 다했다고 하여 당에 다니지 않는다.

31) 80세 이상 주민들의 기억 속에도 분향당에 대한 의례는 찾아볼 수 없다. 폐당된지 오래되어 마을 주민들은 분향당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고 위치도 모른다.

32) 와산리 신당에 대한 기존의 조사 자료에서 불도당을 와산리의 분향당으로 밝히고 있다. 이는 현재 분향당 의례는 행해지지 않고 있으며, 불도당 의례를 하면서 분향당신을 청하여 의례를 통합한 형식으로 치르고 있기 때문이다.

중, 제숙(옥돔), 술, 지전, 물색, 실 등이다. 불도당굿을 하면서 본향당신을 함께 청하여 지내기 때문에 주민들은 불도당을 본향당으로 관념하고 있다. 포태의 직능이 특별히 영험한 당으로서 당굿에는 포태를 희망하는 단골들이 참여하고 있다.³³⁾

산신당은 수렵의 신이었던 산신을 모셨던 당이다. 집안마다 별도의 공간에서 산신을 위하였는데 위치는 ‘철산이도’, ‘골낫술’, ‘토방머리’, ‘감낭뱃’의 지경에 있었다. 현재는 ‘철산이도’와 ‘감낭뱃’의 산신당에만 다니고 있다. 의례는 정기적으로 당에 가서 비념 형식으로 지내기도 하고, 수시로는 사냥을 하기 전에 간단히 산신에게 코스를 지내었다. 현재는 사냥을 하지 않는 관계로 수시로 다니지는 않고 정기적으로 불도당 제일에 맞추어 간다. 새벽에 먼저 산신당에 가서 간단히 코스를 한 뒤에 불도당에 간다. 산신당의 제물은 불도당 제물과 비슷하며 신의 성격이 산신인 관계로 추가로 소고기를 구워서 가져가기도 한다.

당굿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단골(신앙민)의 지속적인 신앙심과 능력 있는 심방’이 필요하다. 와산리 단골(신앙민)들의 지속적인 신앙심은 해마다 당굿에 참여하는 인원으로 살펴볼 수 있다. ‘능력있는 심방’이란 본향당의 본풀이에 능숙하며 제주무속의 젓도리, 굿도리에 익숙할 뿐더러 단골들과 밀접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는 심방을 가리킨다. 메인심방은 주민들의 일상적인 삶에도 영향을 미쳐 집안의 대소사를 함께 의논하기도 한다. 메인심방이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당굿을 주관한다는 것은 주민들의 종교성향이 꾸준히 지속될 수 있는 비결이다.

현재 와산리 불도당굿은 김윤수 심방부부가 주관하고 있다. 메인심방의 계보는 김신천-고군찬-김윤수 부부로 이어진다. 김윤수 심방은 고군찬의 수양아들이며, 김신천의 조카손자이기도 하다. 1985년에 수양어머니인 고군찬 심방의 뒤를 이어 와산당굿을 계승하고 있고 수양어머니 생존 시부터 와산리 주민들의 개인굿도 주관하여 왔다.

33) 2008년 4월 불도당 제일에는 아들 출산을 희망하는 단골이 참여하였다. 처음 참여하는 것으로 시내에 살고 있는데 시가쪽으로 와산리와 연관이 있어 찾아왔다고 하였다.

2) 개인신앙

현재 와산리에 거주하는 원주민 가구는 31가구이며 이들 대부분 전통적인 신앙을 전승하고 있다. 원주민 가구가 심방을 청하여 하는 곳의 종류는 다양하다. 곳은 지내는 시기를 기준으로 정기적으로 하는 것과 비정기적으로 수시로 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정기적으로 하는 곳은 신년에 가정에 무사안일을 기원하는 멩감제와 칠성제를 들 수 있다. 수시로 하는 곳은 성주풀이·귀양풀이·시왕맞이·병굿·호강굿 등을 들 수 있다.

정기적으로 하는 곳은 주된 기원 대상에 따라 명칭이 달라진다. 멩감제는 멩감신에게 주된 기원을 하는 의례라는 뜻에서 붙여진 명칭으로 문전철갈이와 병행하며 이루어지고 있다. 칠성제는 북두칠성의 신에게 자녀의 수명과 복을 기원하는 의례로 멩감제와 문전철갈이를 함께 병행하며 이루어지고 있다. 신년의례로 칠원성군·멩감·가신들 모두에게 기원을 하지만 가장 중요시 여기는 신격이 칠원성군이기에 때문에 칠성제라 하는 것이다. 와산리에서 멩감제를 하고 있는 8가구 중 6가구가 칠성제를 하면서 멩감신과 가신들을 함께 위하는데 멩감신을 위한 의례가 있기 때문에 멩감제를 하고 있는 가구에도 포함된다.

비정기적으로 하는 곳은 필요성에 의해 수시로 이루어진다. 성주풀이는 집을 신축할 경우나 새 집에 이사 갔을 때 하는데 와산리의 원주민 가구가 대부분 하고 있다. 성주는 건축에 쓰인 재목의 목령(木靈)을 쫓아내고, 성주신을 모셔 앉히는 의례다.³⁴⁾ 성주풀이를 하지 않으면 다른 무속의례를 할 수 없다는 관념 때문에 의례비율이 높은 편이다. 귀양풀이는 사람이 죽었을 때 하는 무속의례로 무덤을 만들고 나서 초우제를 행하고 집에 돌아와서 지내는 곳으로 대부분의 가구가 하고 있다. 시왕맞이는 천도해원의례의 성격으로 망자의 사망 뒤 3년쯤에 하거나 큰 병을 앓고 있을 때 하는 곳이다. 규모가 커서 비용 또한 만만치 않아 쉽게 할 수 없는 관계로 와산리에서 많이 하고 있지는 않다. 병굿은 아팠을 때 하는 곳으로 규모와 병의 성질에 따라 여러 명칭으로 불리운다. 녀들임·푸다시 등의 종류가 있다. 와산리에서는 녀들임의 비율이 높다. 마을내에 ‘삼승할망’이 있어 아이들이 아프거나 가족구성원들이 크게 놀라는 일이 발생하면 찾아가 빠져나간 녀

34) 현용준, 앞의 책, 1986, 237쪽.

을 들여오는 일을 하였다. 푸다시는 병이 오랫동안 회복의 기미가 없을 때 한다. 점복을 하여 병의 원인을 묻고 택일을 하여 심방을 청해 곳으로 치료하는데 최근에는 3가구가 했었다. 호강곳은 재수곳으로 몇 해 걸러서 한다. 재수라는 말은 무병, 장수, 재복 등을 다 포괄하는 것으로 재수곳은 넓은 의미에서 그 가정의 제액초복(除厄招福)을 비는 곳이다. 규모가 큰 곳이므로 3가구만 의례의 경험이 있었다. 이외에 심방을 청하지 않고 가정 내에서 올리는 의례가 있다.³⁵⁾

<표 6> 와산리 주민들의 개인신앙 양상 (단위:가구)

성주풀이	귀양풀이	시왕맞이	병곳		호강곳
			넋들임	푸다시	
25	18	3	25	3	1

현재 이들 곳을 주관하는 심방은 불도당을 메고 있는 김윤수와 이용옥 부부, 양춘일, 김순아 등이다. 예전에는 마을에 ‘삼승할망’ 역할을 하는 심방이 있었다. ‘삼승할망’은 아이들 넋을 들이거나, 아플 때 비뚤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이들 심방들은 현재 모두 마을 내에 거주하지는 않고 있으나,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김윤수 심방 부부는 ‘제주칠머리당굿보존회’를 이끌고 있으며 신촌리에 거주하고 있다. 와산리 마을과 단골들의 크고 작은 일에 참여하여 주민들과 유대관계를 돈독히 유지하고 있다.³⁶⁾ 1985년부터 와산리의 당굿과 개인굿을 담당하여 왔다. 현재는 주로 고씨 집안의 멩감제와 기타 굿 등을 주관하고 있다.

양춘일 심방은 와산리 출신이며 제주시에 거주하고 있다. 와산리 양씨 집안에는 ‘양씨아미’라는 조상신의 내력이 전승되고 있는데 ‘양씨아미’는 양춘일 심방의 6대조가 된다. 양춘일 심방은 결혼 이후 신병을 앓게 되면서 입무하였으며 현재

35) 손자가 태어나면 시어머니가 ‘할망상’을 산모가 누워있는 안방에 준비하여 간단하게 비뚤하는 ‘할망비뚤’이 가구마다 있었다. 최근에 출산을 병원에서 하는 관계로 본인 집안의 안방에서 ‘할망비뚤’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36) 단골들 가정사에도 관여하는데 예를 들어 자녀들 시험이나, 결혼, 가족이 아플 경우에는 심방에게 전화를 걸어 길흉을 물어보고 빌어달라고 요청하기도 한다.

는 동회천당곳을 주관하고 있다. 와산리 주민들의 개인곳을 담당하고 있고,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와산리 출신들의 개인곳도 주관하고 있다.

김순아 심방은 함덕리에 거주하고 있다. 심방이었던 남편의 사망으로 인해 입 무하게 되었다. 현재 선흘리 당곳을 주관하고 있으며 조천읍 조천리, 신흥리, 함덕리의 잠수곳을 주관하고 있다. 와산리에서는 1 가구의 칠성제를 담당하고 있을 뿐이지만 조천읍 관내에서 활발하게 곳을 주관하고 있다.

와산리 주민들은 개인의례에서 있어서도 무속적 성향이 강한 편이다. 이는 당곳이 활발히 전승되고 있는 현상과 관련 있고 당곳을 주관하는 메인심방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1950년대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와산리의 멍감제를 주관하는 심방은 주로 고군찬 심방이었다. 고군찬 심방은 와산리 태생으로 불도당의 메인 심방이었다. 와산리 본가림의 주민들은 신년의례인 멍감제의 전승을 떠나서 대부분 불도당에 다녔었다. 불도당의 당곳은 음력 3월13일에 지내는데 마을 전체의 무사안녕을 기원하지만 단골 가정의 무사안녕 또한 기원한다. 아울러 마을 전체의 액도 막지만 개인의 액도 함께 막는다. 그런데 개인의 액막이는 당곳에 참여하는 누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연이 있는 단골이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개인 액막이를 요청하는 단골은 그해 운수가 많이 나쁜 경우인데 정월에 하는 멍감제의 '각산받음' 제차를 통해 알게 된다. 가족 가운데 운수가 많이 나쁠 경우 심방은 '당에 가서 한번 더 액을 막으라'고 권유하게 된다. 그렇다면 그해 운수가 많이 나쁜 사람은 멍감제에서 일차적으로 액막음을 하고 당에 가서 재차 액막음을 하게 된다. 이렇듯 동일 심방에 의해 의례가 중복적으로 진행될수록 단골과 심방의 유대관계도 깊어지게 된다. 심방에 대한 단골들의 신뢰가 깊을수록 멍감제와 같은 개인무속의례의 전승기반도 강화되기 마련이다.

III. 멩감제와 멩감본풀이

1. 와산리 멩감제 사례

멩감제는 와산리 지역에서 신년에 정기적으로 지내는 생업의례이다. 현재 와산에서 전승되고 있는 멩감제는 크게 두 가지의 의례가 합쳐져 전승되고 있다. 집 밖에서 산신멩감을 위한 ‘드르멩감’과 집 안에서 가신들을 위한 ‘문전철갈이’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2008년 2월 21일 참여 관찰한 와산리의 고씨 덕에서 행해졌던 멩감제 사례를 통하여 의례 구성 요소와 제차를 분석하도록 하겠다. 2008년 고씨 덕의 멩감제 제차는 50여 년 동안 동일 심방에 의해 주관되어 왔으므로 전승 상황은 옛 방식 그대로이다.³⁷⁾ 단지 드르멩감의 제장이 변동되었을 뿐 제차에는 변동이 없다.

1) 멩감제 준비

① 택일

멩감제는 한 해의 시작인 정월에 가족들의 무사안녕과 생업의 풍요를 기원하는 의례이다. 신년에 멩감제를 하려면 제일 먼저 묵은 해 음력으로 10월경에 ‘숫’(금줄)에 쓰이고 멩감신에게 바칠 제물 아래 놓일 ‘새(띠)’를 깨끗한 곳에서 구해와 창고에 보관해 둔다. 음력 12월이 되면 제일(祭日) 택일을 해야 하는데 본주(가장)가 철학관을 찾아가 제일을 받아온다. 날짜는 가족들의 생일에 맞춰 생기복덕일을 결정한다. 이때 가족의 범위에는 부부와 자녀들만 포함된다. 자녀들이 미혼인 경우에는 아들과 딸의 구분이 없지만 자녀가 기혼인 경우는 아들의 가족만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제일 날짜는 3개 정도 받아와서 심방의 일정과 조

37) 고군찬 심방을 이어 그의 수양아들 김운수 심방 부부가 멩감제의 제차의 진행과 방법을 그대로 계승했기 때문이다.

정하여 결정한다. 멩감제는 대부분 정월에 많이 하지만 정월에 하지 못하는 경우는 2월은 피하고 3월초에 하는 경우도 있다. 예전에는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아서 걸어서 제주시의 거로마을에 있는 ‘글을 잘 아는 사람’을 찾아가 택일하였다. 지금은 교통편이 좋아서 시내 유명한 철학관을 찾아가거나 가까운 함덕이나 북촌의 철학관을 이용하고 있다. 철학관을 찾아 택일을 하는 경우 단지 날짜 택일만 한다.

② 금기

제일 일주일 전부터 올레 입구에 ‘숫’을 걸어 놓는다. ‘숫’은 본주가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정성스럽게 원편으로 꼬아 만든다. 숫이 걸리면 가족들은 ‘몸정성’을 들인다. ‘몸정성’ 들이기는 네발 달린 육고기 금지, 가족끼리 싸움 금지, 부부관계 금지, 상가집 가지 않음, 화내지 않음 등이다.³⁸⁾ 외출은 되도록이면 삼가는데 길을 가다가 고양이나 개가 죽은 것을 보면 부정 타서 의례를 못하게 되고 뱀을 보면 큰일 나기 때문이다. 만약에 금기를 어겼을 경우에는 팔을 삶은 물로 양치를 하고, 향을 삶은 물에 목욕을 하여 몸을 정화시켜야 한다.

③ 제물준비

제일 3일 전부터 제물을 장만하는데 본주의 아내가 직접 마련한다. 3일 전부터 시장보기, 집 청소, 과수원 창고 청소(드르멩감의 제의 장소 청소), 음식 만들기 등 멩감제 준비에 분주하다. 제물에 쓰일 재료와 각종 비품, 음식 장만 등은 ‘정성을 드려야 한다’는 관념이 있어서 남에게 절대 맡기지 않는다.

넬 모리 멩감이면 오늘 강으네 과일 사고, 배, 사과, 대추, 꽃감, 밤, 비자, 밀감은 집에 잇이 난. 과일은 일곱가지 준비헤여. 전에는 동문시장 강 사나신디 이제는 조천농협마트에 강 산다. 비자 7뜯 건 잇이민 다른 디 강 사 놓고. 제숙은 열흘 전에 동문시장에 강 옥돔 열다섯개나 스물개 정도 사당노아야 헤여. 떡은 모물(메밀)가루 혼 말, 나록(벼)쌀 두 말 갈아오고. 모물가루로는 웨성 혼 말 하고, 나록쌀 두 말은 보시시리 혼 말하고 돌레떡 혼 말 하고. 채소는 미나리, 고사리, 콩나물, 속지 열권, 자치 혼 필, 초 혼 봉, 소주 사 오고. 생꼬(향) 사 오고. 아침에 다섯시 되민 일어남 물을 꿰어(끓여) 넣은애, 보시시리 먼저 다 청(찌) 놔. 보시시리 서른 개 찌야 되는데 다되민 일곱시 되주게. 그때되민 예기어멍(큰머느리)이 온다. 게민 예기어멍이 영 혼디 돌레떡 하고, 웨성시리 하고. 돌레떡하고, 웨성도 반죽 행 몰양 팔팔 끓은 물에 삶아(삶아). 그건 쉬워. 엔날도 쓸 어려울 때는 보시시리 안 하고 친떡으로 했주. 떡이 다 되민 채소 장만하고 제숙 굵고 하당 보민 두시 되여. 그땐 심방들 올 때 되난 저녁 준비해사주.³⁹⁾

38) 사돈과 가까운 친척집에 초상이 났을 경우는 제일을 변경한다.

39) 본주의 아내 부○○씨 면담(2009. 9. 26. 자택)

다른 곳들도 마찬가지로이만 멩감제 제물 준비할 적에는 ‘조상님전 바칠 음식이다’라는 생각에 좋은 품질로 구입한다. 부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물의 가격을 흥정하지 않는다.

④ 참여자의 범위

본주댁은 3남 1녀의 자녀를 두고 있다. 모두 기혼인데 멩감제는 딸의 가족을 제외하고 모두 참여하였다. 그 외에 본주의 작은 아버지, 작은 어머니, 외사촌누나, 5촌 조카며느리가 참여하였다. 예전에 본주의 부모가 살아있을 때는 와산리에 거주하는 친척들과 일월조상을 함께 전승하고 있는 양씨 집안에서도 참여하였다. 멩감제의 구성원은 본주의 가족이지만 참여범위는 유교식 제사의 범위와 동일하다.

2) 멩감제 제차와 의미

멩감제는 드르멩감과 문전철갈이를 병행한 곳이다. 멩감제의 목적은 가족들의 무사안녕과 생업의 풍요를 기원하는 것이다. 제차마다 특별히 청하는 신격이 있는데 집 밖에서 지내는 드르멩감에서는 멩감·제석할망·과수원의 신만 모신다. 집 안에서 지내는 문전철갈이에는 문전·조왕·삼승할망·칠성신·갈매(농기구의 신)·올레신·조상신 등을 모신다. 이처럼 특별한 신을 위한 별도의 제차가 있다는 것은 해당신의 직능을 강조하고 그에 대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이다.

드르멩감과 문전철갈이는 독립된 별개의 의례로 볼 수 있다. 각각 초감제를 하여 의례에 부합되는 신들을 청하고, 추물공연을 하고, 상당숙임을 하기 때문이다. 두 개의 의례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 별개의 독립적인 의례로 분리할 수 있다. 이 날 멩감제는 심방 2인이 제차를 나누어 진행하였다. 드르멩감은 김윤수 심방이 주관하고 문전철갈이는 이용옥·김윤수 심방이 제차를 나누어 주관하였다.

가. 드르멩감

멩감제는 저녁 무렵 시작되어 자정에 마무리되었다. 저녁 무렵 심방이 솥을 걷고 본주댁 집안으로 들어오면서 의례가 시작되었다. 마루에서 심방과 가족들이

간단히 인사를 하고 저녁식사를 하며 담소를 나누었다. 식사 뒤에는 드르맹감을 지내는 제장이 있는 과수원 창고로 이동하였다. 제장은 본주가 일주일 전부터 청소를 하여 의례를 지낼 준비를 해 두었다. 제장에 도착한 뒤 먼저 바닥에 준비한 천막을 깔고 그 위에 심방이 앉을 초석을 깔고, 제물은 천막 위에 새를 펴고 그 위에 진설하였다. 제물 진설이 끝나면 본주가 건네주는 열명지를 받고 심방이 의례를 시작하였다. 심방은 송낙을 쓰고 서서 쌀을 3번 뿌린 뒤 요령 두 개를 한 손에 잡고 흔든 뒤에 절 3번을 하였다. 절을 마치면 앉아서 요령 하나만 잡고 흔들면서 초감제를 시작하였다. 제의 시간은 2시간 30여분 소요되었으며 제차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

<초감제> : 말미-공선가선-날과 국 섬김-열명-연유담음-군문열림-주잔넘김-젯드리얏혀 살려움-즈손절시킴

<추물공연> : 공선가선-들어가는 말미-공연-비념-주잔권잔-산반아 분부사뵐-각산 받음-

<맹감본풀이> : 말미-공선가선-본풀이구연-바랑점-상당숙여소지사름-제비점-분부사뵐-결명

(1) 초감제

초감제는 모든 곳의 처음에 이루어지는 제차이다. 본격적인 곳을 하기에 앞서 신을 청하는 순서이다. 대개 베포도업침-날과국섬김-연유담음-신도업-군문열림-새드림-살려움서-산받음 등의 순서로 짜인다. 그런데 이 곳에서는 ‘베포도업침’이 생략되고 ‘날과국섬김’부터 시작하였다.

예전에는 조상들이 수렵을 하였던 ‘토방머리’에다 제단을 만들어 제를 지냈었다.⁴⁰⁾ 그러다가 25년 전부터 집안 소유의 과수원 창고 안에서 제를 지내고 있다. 본주를 도와 큰며느리가 제물 진설을 함께 하였다.⁴¹⁾ 준비된 제물은 메 2그릇,

40) ‘토방머리’는 와산리 당오름 지경에 있는 곳과 같은 지경이다. 마을 공동의 소유였으나 ‘토방머리’ 지경이 과수원으로 개발되면서 본주의 과수원 창고로 변경되었다.

41) 본주의 큰아들 면담. “예전에 산에서 맹감할 때는 남자들만 갖우다. 아버지영 윤수삼촌하고 우리 남자형제들만 갔는데 이유는 몰라도 사냥 해나부난 사냥은 남자들이 하는 일이라서. 요즘은 남자 여자가 **엇어**마십.”

술 1병, 생선 1마리, 명태 1마리, 과일 5가지, 나물 3가지, 삶은 계란, 소지 다섯 장 그 외 보시기에, 메밀돌레떡, 백돌레떡 등이었다. 제물 진설을 마치면 심방은 멧감기 3개를 세우고 흰 광목을 멧감기 위에 펼쳐 놓았다. 멧감기 3개는 삼멧감신을 의미한다.⁴²⁾ 그리고 광목 위에 메 2개를 올려놓았다. 왼쪽 메에는 손가락을 세 개 꽂는데 삼멧감신을 위한 것이고, 오른쪽의 산메에 손가락 2개를 꽂은 것은 제석할망과 과수원신을 위한 것이다.⁴³⁾

<사진 1> 드르멧감 초감제 장면



제물 진설이 끝나면 심방은 평복차림으로 송낙을 쓰고 신자리(司祭席)에 서서 제장에 쌀을 3번 뿌린 뒤 요령을 3번 흔들며 의례가 시작됨을 알렸다.⁴⁴⁾ 요령 소리를 멈추고 신자리에 앉아서 절 3번을 하고 다시 요령을 흔들며 제의를 시작하였다. 초감제는 모든 무속의례의 시작이다. 의례 시작 부분으로 제장에 모셔야 할 신들을 불러들이는 청신의례이다. 제의는 공선가선-날과국섬김-연유 닦음-군문열림-젯도리앉혀살려움-정대우-즈손절시킴의 순서로 진행하였다.

42) 멧감신의 신체이다. 윗부분을 송낙 모양으로 만들고 그 안에 댓가지를 집어넣어 틀을 유지하며, 아랫부분에 가랑이와 다리 틀을 만든다. 창호지 한 장을 세로로 두고 그 밑에 반장을 덧붙여 다리 모양을 만든다.

43) 이용옥심방 면담. “과수원신은 과수원에서 멧감해부난 모시는 거. 과수원 말양 드르에서 멧감 할 때에는 제석할망만을 위하고, 만약에 집에 강 현덴허민 과수원신은 안 모실 거주.”

44) 현용준, 앞의 책, 1986, 420쪽. “요령은 청신부구(請神巫具)이다. 각종 비념이나 액맥이 때에 쓰인다. 초공 본풀이에 의하면 황금산의 절 스님이 요령을 세 번 흔들며 잠긴 지맹왕 아가씨의 방문이 열리게 하였고 스님이 딸의 머리를 세 번 쓸고 무조신을 잉태시켰다고 전해진다. 이 본풀이를 근거로 심방들은 요령 소리는 신을 청해 들이는 기능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① 날과 국 섬김

날과 국 섬김은 낫 하는 날짜와 낫 하는 장소를 고(告)하는 제차이다. 심방이 요령을 흔들며 말명을 하였다. 특히 낫 하는 장소를 고하기 위하여 멀리 거슬러 올라가 동양의 오랜 역사를 언급하고 우리나라의 역사와 행정구역의 편제를 차례로 풀이하였다. 나아가 제주도 역사와 행정구역을 제시한 뒤에 낫 하는 집의 주소를 말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였다.

② 열명

심방이 신에게 제의를 의뢰한 가족구성원을 아뢰는 순서다. 가족구성원은 부모 가정과 결혼한 아들의 가족들을 말한다. 가장을 선두로 하여 막내아들 가족의 순서까지 말하였다.

③ 연유담음

낫을 하게 되는 사연에 대해 설명하는 제차이다. 먼저 인생무상을 강조하고, 집안의 내력을 밝혔다. 그 다음에는 택일 과정과 삼땡감을 청하게 되었다는 사연을 밝혔다. 심방의 말명을 통해 땡감제를 하는 이유를 살펴볼 수 있다. 아래는 심방의 말명한 연유담음의 일부분이다.

이간정중안에 고씨대주 예순아홉 [요령] 조상부모 본인 테사른 땅이웨다.(중략) 예순아홉님은 부모슬하에서 부모님광 의지하여 살젠 허여 연날 하르바님때부터 유강허고 부강하여 말 백쉬 쉼 백쉬 거느려 눈미와산 테집이 나면 [요령] 건이우품나고 유강허고 부강허게 잘 사는 집안이엔 건이우품난 집안인데 [요령] 예순아홉님 아버지 산 때부터 집안 고택에 옷대 정근 조상님네 잇고 [요령] 조상님네 위로 적선하고 영허든 집안이우다. [요령] 해마다 드르땡감 메고 집 안 문전으로 문전철같이 과세문안 들며 서로 조상님네 집안 부모 영가님네 다 읍센 헤여 잔이 혼 잔 썩이라도 위 불령 다 드리고 삼년 일등 큰긋 허고 죽은긋 허고 허던 집안인데 [요령] 아버지 어머님 산 때부터 조상 위찬허고 해마다 불공허는 거 보아돈 이십스물 탄생헤영 일선 군대 강 오랑 바깥농사 00농사 살당 보난 [요령] 처가들어 아들 삼형제 딸형제 탄생헤영 [요령] 조상님 위로적선허고 므음 성심하는 즈손인데 [요령] 부모님 나이 원만 되어가난 부모님 허단 일 무심허든 웨리야 예순아홉 일혼하나 부베간이 마음 정성 헤영 조상 위찬하고 삼땡감님네 몸 성심헌 역가 바치고 허든 집안인데 [요령] 올 금년도 당허가난 이진 묵은 해부터 좋은 날 택일 반양 신전에 하강일 생인에 복덕일 굴리잡아 [요령] 삼진정월 대보름날 저녁 술시 초후루헤연 [요령] 삼땡감님 위찬허여 제청베당 헤여수다 [요령] 땡감 연드리로 초감제로 읍서 읍서 청허져 영협네다. [요령]

위의 말명으로 보아 땡감제를 의뢰한 본주댁은 집안 대대로 소와 말을 많이

키웠던 부자로 테우리 집안이었음을 알 수 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가정의 전통으로 멩감제를 꾸준히 하고 있고 그 전통을 이어받아 지금도 정성껏 하고 있음을 신에게 말하고 있다.

④ 군문열림

신들이 살고 있는 영역의 문을 여는 제차이다. 심방은 신자리에 앉아서 요령을 흔들며 하늘에서 땅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사방(四方)과 저승·이승, 본당·신당의 문까지 열거한 뒤에 삼멩감·제석할마님·과수원신들의 문도 열어 달라고 말명하였다.

⑤ 주잔넘김

대주와 장남이 제상의 술을 교환하고 올렸던 술은 과수원 밖의 군졸들을 위해 제장 밖으로 나가 과수원 한쪽에 부었다.

⑥ 젓드리얏혀 살려움

신들을 청해 제상에 앉히는 대목이다.

천왕(天皇) 열두 멩감님도 살려옵서. 지왕(地皇) 열한 멩감님도 살려옵서. 인왕(人皇) 아홉 멩감님 살려옵서. 동이 청멩감(靑冥官)님, 서이 백멩감(白冥官)님, 남이 적멩감(赤冥官)님, 북에 흑멩감(黑冥官)님 살려옵서. 중앙 황심멩감 살려옵씨. 여든여덟 빗골 멩감님네 살려옵서. 일흔여덟 빗골님도 느립서. 주년국땅 서스만이 살려옵서. 제석할마님네 살려옵서. 과원하르방 과원할마님네 살려옵서. 삼멩감 언드리로 떨어지고 낙루(落漏)헌 신진없이 살려옵서. 신공시 옛선 성님에 몸받은 부모조상, 몸받은 일월조상님네 살려옵서. 삼멩감 언드리로 제청더레들 다 살려옵서예.

이와 같이 심방은 신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청하였다. 일반 곳에서는 초감제에서 우선 무속의 종합신을 청신의 위계에 맞게 순서대로 청해놓고 개별제의의를 통해 개별신을 다시 청하는 순서를 밟는다. 위의 말명에는 멩감신이 먼저 청해지고 그 뒤를 이어 제석할마님(자청비), 과수원의 신을 청하고 있다. 드르멩감이 개별제의라는 성격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대목이 이 부분이다. 초감제에 옥황상제를 위시한 모든 신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멩감신과 같은 생업신만을 청해 생업과 관련 있는 의례를 하겠다는 의미이다.

심방은 위의 제차를 신자리에 앉아 요령를 흔들면서 말명을 진행하였다. 끝에 간단히 정데우를 하였다. 정데우는 신들을 모두 강림시키면 신들을 제상에 청해

앉히는 말명을 하는 제차다. 심방은 말명을 하면서 쌀을 제상에 뿌리는데 이는 신들을 앉히는 의미이다.

⑦ 즈손절시킴

심방이 가족들에게 제상에 절을 하라고 지시하자 가족들이 나와 절을 하였다. 본주와 장남이 먼저 절을 다섯 번 하고 이어서 제장에 참여한 가족 전체가 절을 하였다. 절을 다섯 번 하는 것은 청한 신이 삼맹감과 제석할망, 과수원신 이렇게 다섯 신위이기 때문이다. 이때 심방은 신자리에서 물러나 잠시 휴식을 취하였다.

(2) 추물공연

추물공연은 청해 들인 신들에게 제물을 잡수도록 권한 뒤, 소원을 비는 제차다.⁴⁵⁾ 심방은 제상에 올린 제물의 이름을 하나하나 말하면서 참여한 신들에게 잡수도록 권하였다.

① 들어가는 말미

곳을 하는 날과 장소를 말한 뒤에 제장에 앉힌 신들의 이름을 다시 불렀다.

② 공연

신에게 '몸정성'을 드린 내용과 제장의 단장·제물을 준비한 정성과 제물 이름 하나 하나를 열거하며 잡수기를 권유하는 제차다.

③ 비념

신들에게 제물 잡수기를 권유한 뒤 가족들의 소원을 비는 제차다. 기원사항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가족들 건강이다. 두 번째는 가장을 위시한 가족들의 생업번창을 갈구한다. 세 번째는 한 해 동안 가족들에게 미칠 나쁜 액(厄)을 막아달라는 것이다.

④ 주잔넘김

기원이 끝나자 제장에 청하지 않은 균졸들에게 남은 술을 대접하였다.

⑤ 산받아 분부사뤄

<초감제>를 하여 신에게 운수를 알아보고 그 결과를 전하는 제차이다. 초감제에서 산받음을 할 때는 산판으로 점을 쳐서 신의 의사를 묻는다. 산받음에 이어

45) 현용준, 앞의 책, 1986, 331쪽.

분부사뵐을 하는데 분부사뵐은 산받은 결과를 가족들에게 전달하는 제차이다. 산을 받는 순서는 가족들의 위계순서에 맞게 진행하였다. 운세를 점치는 과정에서 두 가지 양상이 나타났다. 첫 번째는 한 해의 전반적인 운세를 계절별로 점을 쳤다. 두 번째는 본주의 생업이 농업인 관계로 신년에 경작할 작물들을 거론하며 풍흉을 점을 쳤다. 거론하는 작물로 보아 생업작물의 현황을 알 수 있다. 본주덕의 작물의 순서는 밀감-콩-무우-참깨-산티(밭벼)였고, 본주의 큰아들네에는 밀감-콩-무우-수박-단호박의 순서이었다. 산을 다 받으면 심방은 신들에게 “집에 가서 문전으로 조상님네 청하여서 방액을 잘 막겠습니다.”라고 말명을 하였다.

(3) 멩감본풀이

일반적으로 무속의례에서 추물공연 제차를 마치면 의례의 목적에 따라 개별의례를 행하게 된다. 드르멩감에서는 추물공연 뒤에 멩감신을 위한 본풀이 의례가 시작되었다. 본풀이란 신의 근본 내력의 해설이란 뜻으로, 신의 내력담 곧 신화를 창하여 기원하는 의례다. 본풀이는 주인공의 출생, 성장, 고행, 결연 등 파란 많은 생활을 그려 나가고, 끝에 가서 신으로서의 직능을 차지하여 좌정하는 것으로 결말을 지어 간다. 신화를 노래하고 이어서 축원을 하는 이유는 지금 축원하려는 사항을 신화를 통하여 명확히 증거를 제시하여 신으로 하여금 그 축원을 들어주게 하는 방법인 것이다. 제차는 들어가는 말미-본풀이 구연-바랑점-상당숙여 소지사름-축원-산받음-결명 순서로 진행되었다.

① 말미

심방은 평복차림의 복장 위에 군웅치메를 입고 신자리에 앉아서 요령을 흔들며 의례를 시작하였다. 군웅치메는 장삼을 의미하는 것으로 불교적인 색채를 띤 제차에서 쓰인다.⁴⁶⁾ 간단히 공선가선, 날과 국 섬김, 연유담음을 하였다.

② 본풀이 구연

멩감본풀이는 일반신본풀이로서 신년의 멩감제와 일반굿의 액택이 제차에서 불린다. 멩감본풀이는 서사관련 인물의 이름이 스만이인 관계로 스만이본풀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멩감본풀이는 스만이가 백년해골을 잘 모셔 수렵으로 부자가

46) 국립문화재연구소, 『인간과 신령을 잇는 상징 巫具』(전라남도·전라북도·제주도), 민속원, 2008, 373쪽.

되었고 백년해골의 도움으로 죽을 날짜를 미리 알아서 저승차사를 잘 대접하여 정명(定命)을 연기하게 되었다는 내용을 지니고 있다. 스만이 백년해골을 잘 모셔 부(富)의 축적과 장수(長壽)를 하게 된 내력을 신에게 밝혀 기원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밝히는 제차다.

③ 바람점

본풀이 구연을 마치면 심방은 바람을 들고 일어섰다. 바람을 치면서 제청에 모신 신들에게 상(床) 받기를 기원하였다. 기원한 뒤에는 상받음이 잘 되었는지 바람을 던져 점을 쳤다. 바람은 돛으로 만든 밥사발 뚜껑의 모양으로 뒷부분의 중심부에는 끈이 붙어 있다. 제주의 곳에서 불교적 색채가 있는 기원을 할 경우, 바람을 양 손에 들고 부딪쳐 올리면서 집행한다.⁴⁷⁾ 기원이 끝나면 바람을 던져서 신의(神意)를 점쳤다.

④ 상당숙여 소지사름

상당숙임은 굿을 마무리하기에 앞서 마지막으로 신들에게 잔(술)을 바치고 그 제상 위에 있는 제물을 걷어내는 제차이다. 신의 서열대로 참여한 신명들을 언급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심방은 제단 앞에 서서 요령을 흔들며 신명들을 언급하면서 “술 흥 잔씩 받고 하전하라”는 말명을 하였다. 상당숙임과 소지사름은 동시에 진행된다. 가족들은 심방의 지시대로 제상의 지전과 자치에 불을 붙여 태웠다. 이때 심방은 신자리에서 벗어나 잠시 휴식을 취하였다.

⑤ 산받아 분부 사됨

심방은 제비쌀로 산을 잡아 점쳐 신의 응답을 가족들에게 말하였다. 좋은 점괘의 제비쌀은 가장에게 주어 삼키게 하였다. 심방은 큰 아들에게 “금년 제수(財數) 소망 이렇 자손들 다 조크라. 집이 강 어머님안티 강 액(厄) 잘 막음센 곶아.”라고 분부사됨을 하였다. 삼맹감신이 사만을 도와 사만이 부자가 되었듯이 본주댁의 생업도 삼맹감신이 도와줄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제차다.

⑥ 걸명

본주와 큰아들이 제상 위의 제물을 제반걸음 하여 과수원 밖의 군졸들에게 떡기를 권유하는 제차다.

47) 현용준, 앞의 책, 1986, 421쪽.

나. 문전철갈이

드르멩감이 끝나 집으로 돌아와서 이용옥 심방이 큰상에 제물을 진설하여 문전철갈이 준비를 하였다. 마루에 큰상이 놓여있고 신들이 좌정한 집안 곳곳에 제상이 놓여있었다.⁴⁸⁾

제주의 가옥에는 정주목을 경계로 가신들이 집안 각처에 좌정하고 있다. 가신들의 내력은 본풀이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문전신은 문전본풀이에 근거하여 ‘상방(마루)’에 좌정하여 ‘문전 모른 공사 없다’라는 말처럼 집안의 모든 일을 관장한다. 문전신의 어머니는 부엌에 좌정하여 가족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화재를 방지한다. 문전신의 아버지는 정주목에 좌정한다. 그 외 문전신의 형제들도 집안 곳곳에 좌정하게 된다. 이 외 칠성본풀이에 근거하여 칠성신이 고향(곡물창고)과 뒤뜰에 좌정한다. 고향에 좌정하는 신은 ‘안칠성’이라 하고 뒤뜰에 좌정하는 신은 ‘밧칠성’이라 하며 ‘칠성놀이’안에 좌정한다.⁴⁹⁾

문전철갈이는 신년에 하는 정기적인 의례로 집안에 좌정한 문전신을 비롯한 각처의 가신(家神)들에게 가족들의 건강과 한해의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것을 말한다. 문전제·문전코스·올래코스·철갈이 등 지역별로 다양한 명칭이 있다. 철갈이는 밧칠성을 모신 ‘칠성놀이’를 추수감사의 의미로 새로 수확한 오곡을 속에 갈아 넣고 그 위를 빗물이 들지 않도록 새(띠)로 갈아 덮는 것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철갈이 한다’라는 것은 밧칠성에 대한 의례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멩감제 한다’가 멩감제와 가내 의례를 함께 하지만 주된 신의 이름을 따서 의례의 명칭이 결정되는 것처럼 ‘정월에 가내 의례를 한다’라고 간주하면 된다. ‘밧칠성’은 집집마다 있는 것이 아니라 집안에서 전통적으로 모셔왔거나, 새로 이사간 집에 ‘칠성놀이’가 있어서 등 특별한 사연에서 모신다. ‘철갈이’는 ‘밧칠성’에 대한 의례를 할 경우에만 사용되어야 마땅하지만 개념이 혼동되어 사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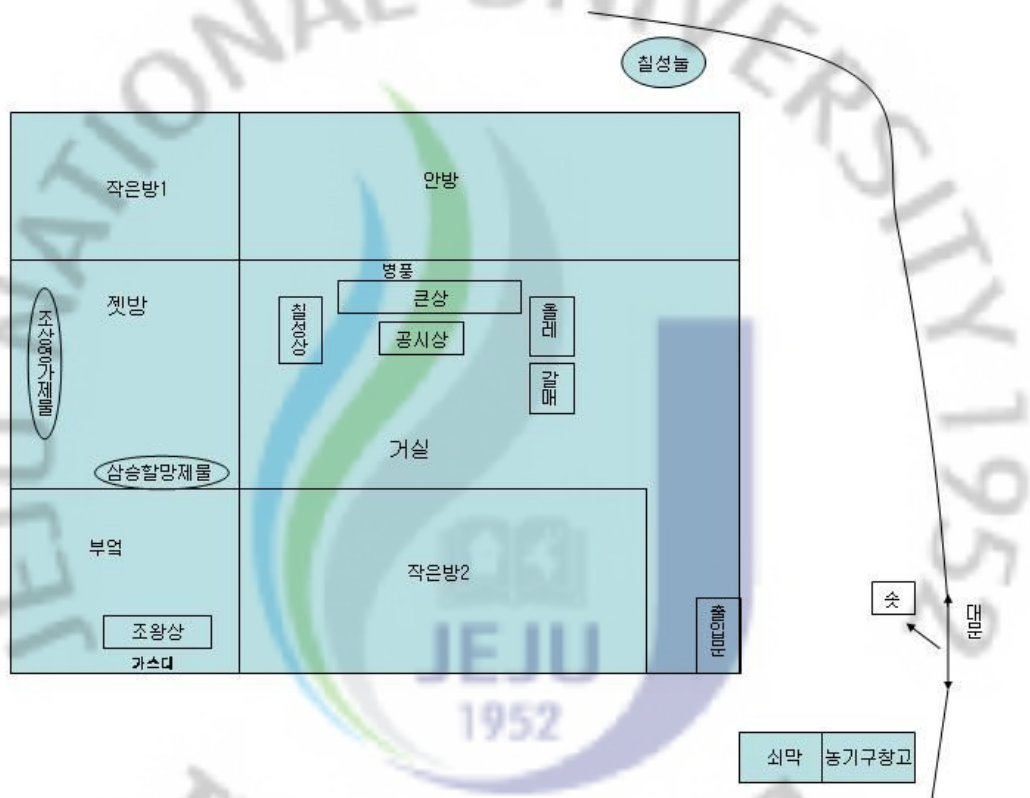
거실에 그해의 트인 방향으로 큰상을 놓아 제물 진설을 하였다. 벽면에 병풍을 놓고 병풍 앞에는 큰상을 놓았는데, 큰상 앞에는 공깃상, 왼쪽으로는 칠성신, 오

48) ‘큰상’은 일만팔천의 신을 청하기 위해 제물을 진설한 상을 말한다.

49) ‘밧칠성’에 대한 관념은 지역마다 다르다. 와산리에서는 ‘터주로 인식하고 있고, 동북리에서는 ‘농사를 잘 되게 해주는 부의 신’으로 인식하고 있다. 신격에 대한 관념이 중층적으로 섞여 있어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큰쪽으로는 올레신, 올레신 앞에는 갈매신을 위한 제물을 차롱 위에 준비하였다. 방에는 조상영가와 할망신을 위한 제물이 준비되어 있었다. 조상영가를 위한 제물은 바닥에 돛자리를 깔아 진설하였으며, 방 왼쪽 벽면의 궤 위에는 삼신할망을 위한 제물을 진설하였고, 부엌의 싱크대 앞쪽에 조왕신을 위한 조왕상을 준비하였다.

<그림 1> 문전철같이 상차림



문전철같은 다른 곳의 형식과 동일하게 청신-공연-기원-송신의 순서로 진행된다. 제차는 <초감제>-<추물공연>-<균용놀림>-<각도비념>-<상당숙여 소지사름>-<액맥이>-<도진>의 순으로 진행된다. 드르맹감과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 언급했으므로 생략하기로 한다.

<초감제> : 말미-공선가선-날과 국 섬김-열명-집안연유 닦음-군문열림-주잔넘김-젯드리얏혀 살려움-정테우

<추물공연> : 공선가선-들어가는 말미-공연-비넵-주잔권잔-

산받아 분부사뵐-각산 받음

<군웅놀림> : 조상신본풀이구연

(산신일월,동이풀이,이씨불도,양씨아미,양씨큰할마님,고씨어머님)

<각도비넵> : 조왕-삼승할망-칠성-갈매-조상영가

<액맥이>

<도진>

(1) 초감제

<사진 2> 문전철같이 초감제 장면



제물 진설이 끝나면 심방은 큰상 앞에 앉아서 제장에 쌀을 3번 뿌린 뒤 요령을 3번 흔들고 초감제를 시작하였다. 제차는 날과 국 섬김-열명-집안연유 닦음-군문열림-젯드리얏혀 살려움-정대우의 순서이다. 초감제와 추물공연의 제차는 드르맹감과 다르지 않아 기술하지 않기로 한다. 대신에 젯드리얏혀 살려움에서

청하는 신의 범위가 드르맹감과 다르므로 심방의 말명을 통해 살펴보겠다.

임신중에 올라사민 옥황 상제 대명전도 느려 하강함씨. 당차지 지부사천대왕 산으로 가민 산신대왕 물로 가민 사해용왕 서산 육간대스님 오늘 저 대보름날 달빛 받으명 이 집안 문전 철같이제 받으레 느려 하강함씨. 인간불도 명진국할마님, 천안 불도할마님, 지황 불도할마님 인황 불도할마님, 안태중 이 인간 명진국 삼불도 공시 밧시 셋씨 여러할마님, 할마님 몸상더레 동살장 침방우전 금백당더레 살려옵씨.(이하 생략)

위 말명에서 보이듯이 문전철같이 초감제 제청에 청하는 신들은 드르맹감과 달리 옥황상제로부터 일월조상까지 일반곳의 초감제에 청하는 신격들이다. 문전 철같이여서 가신들만 청해 기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초감제에서 무속의 선신들을 모셔놓고 별도로 가신들을 위한 비념을 하였다.

(2) 군웅놀림

어느 곳이나 곳을 할 때에는 집안의 일월조상이 있으면 군웅놀림 제차에 조상신본풀이를 풀어야 한다. 조상신본풀이에 등장하는 조상은 혈연의 조상이나 혈연의 조상이 섬겼던 신이다.⁵⁰⁾ 부계·모계로 전승되어 동일한 본풀이가 지역과 집안을 달리하여 불리는 경우가 있다. 본주택은 다섯 신위의 군웅일월이 있어 곳할 때 마다 조상신본풀이를 구연한다. 조상신은 산신일월, 고전적, 이씨불도, 양씨아미, 양씨큰할마님, 고씨어머님으로 본풀이는 이 순서로 구연하였다.⁵¹⁾ 앞의 순서대로 각각의 조상신의 본풀이를 구연할 때마다 비념을 하였다. 조상신본풀이를 구연한 뒤에는 친가, 외가의 조상영가에게 비념을 하고 제비점으로 마무리하였다.

① 들어가는 말미

공선가선-집안연유담음의 순서를 생략하고 간단하게 말미로 시작하였다.

② 산신일월본풀이

곳을 하고 있는 집안의 일월조상이다. 조령적 성격과 생업수호신적 성격을 포

50) 현용준은 조상신이 조령적·생업수호신적·재앙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51) 와산리 신복순씨 면담. “와산리 고씨 집안과 양씨 집안은 사돈관계이다. 양씨 집에서 <군웅놀림>을 할 때는 양씨아미분을 먼저 푼다.”

함하고 있다. ‘산신일월’은 혈연 조상 중에 산을 이용한 수렵이나 목축업을 하여 가산이 번창하게 한 이나 원통하게 돌아가신 조상의 내력을 말하는 본풀이다. 혹은 혈연과 무관하게 조상이 섬겼던 수렵, 목축업 수호신을 말한다. 산신일월은 드르멩감의 산신멩감과 연관이 있다. 산신일월이 섬겼던 생업수호신이 산신멩감이다. 그렇다면 산신멩감을 하는 가구에서는 산신일월이 있기 마련이다. 조상의 종교의례인 산신멩감이 집안의 전통의례로 전승되고 신앙민들에게 “조상을 모신다”는 관념으로 자리잡은 것이다. 심방은 “본주 집안은 말테우리 집안이라 하여 오름 일대에 목축업을 크게 하여서 잘 살아왔다”라고 말명을 하고 간단히 신명만 언급하였다.

③ 고전적풀이

고전적풀이는 제주시 봉개동과 조천읍 일대에 분포하고 있다. 본주택이 고씨 집안이어서 혈연과 관계되는 일월조상이다.⁵²⁾ 본풀이는 ‘고전적하르바님’이 서울에서 큰 벼슬을 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봉개에 있는 그의 딸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그 선물에 한양일월조상이 따라와서 신병을 얻게 되었다. 양반집이어서 곳을 못하게 방해하자 그 딸과 계집종이 죽어버려 고씨 집안과 딸의 약혼자인 김씨 집안에서 ‘한양일월조상’이라 모셔 내려오고 있는 내력을 밝히고 있다. 신앙의 대상은 고전적의 딸과 하녀이지만 명칭은 ‘고전적풀이’라 한다. 고전적풀이는 재앙을 주는 성격을 포함하고 있다. 신가물을 입은 조상이 죽어 원액이 되어 자손을 괴롭힐 수 있어 정성껏 받들어 모셔야 집안이 편안하다는 관념 아래 모시고 있다.

④ 이씨불도본풀이

이씨불도는 본주택에서 문전철같이뿐만 아니라 명절과 제사 때에도 별도로 제사를 차려 모시는 일월조상이다. 조령과 같은 성격으로 삼승할망과 같은 영급이 좋았던 조상이다.⁵³⁾ 이씨불도는 후손이 없는 고씨택에 후처로 들어와 아들도 낳고 해마다 정성을 다해 곳을 하여 집안을 번창하게 하였다. 장성한 아들이 큰곳을 하기 위해 모아둔 재물을 모두 불태워 버리는 바람에 이씨불도가 충격을 받아 앓다가 죽게 된 사연으로 고씨 집안에서 일월조상으로 모시고 있다.

52) 고전적에 대한 설명 이용옥 심방 면담. “고전적은 고씨 집안이어서 하는 거.”

53) 마을에서 뉘들임이나 산파의 역할을 담당했던 소미를 말한다.

⑤ 양씨아미본풀이

양씨아미는 양씨 성을 가진 결혼하지 않은 여성을 의미한다. 와산리 양씨댁은 양반집으로 아들 셋과 딸 한 명이 있었다. 신가물을 입은 막내 여동생이 큰오빠의 타박으로 인하여 죽게 되고 원액이 된 양씨아미는 큰 오빠의 가정에는 액운을 내리고 두 명의 오빠에게는 일월조상이 되어 자손을 돌보아준다는 내용이다. 와산리에서 양씨 집안뿐만 아니라 양씨 집안과 결혼으로 인해 친족 관계가 형성된 고씨, 이씨, 현씨 집안에서 굿을 할 때에 모시는 일월조상이다. 양씨아미 본풀이를 하는 가정에서는 반드시 고전적 본풀이를 구연해야 한다.⁵⁴⁾

⑥ 양씨큰할마님본풀이

양씨큰할마님은 양씨아미의 조카딸이다. 양씨큰할마님이 고씨 집으로 시집오면서 이로 인해 친정의 일월조상인 양씨아미를 모시게 되었다고 하여 함께 모시고 있다. 심방은 산신일월과 같이 간단히 신명만 언급하였다.

⑦ 고씨어머님본풀이

김윤수 심방의 수양어머니인 고군찬 심방의 내력을 말하는 제차다. 고군찬 심방은 본주댁의 6촌 누님이고 와산당의 메인심방이었다. 1980년대 중반까지 와산리 출신의 주민들의 크고 작은 굿들을 주관하고 멍감제를 거의 도맡아 하였다. 생전에 김윤수 심방 부부에게 본주댁의 멍감이나 굿을 하게 되면 군웅놀림에서 위해 달라는 당부가 있어 함께 청한 것이다. 산신일월과 같이 이름만 언급하였다.

(3) 각도비념

집 안에 좌정해 있는 가신들에게 의례를 올리는 것을 말한다. 각각 마련된 제상 앞에서 심방이 앉아 요령을 흔들며 비념을 하였다. 각도비념의 순서는 조왕-칠성·불도할망 - 갈매·조상영가를 동시에 진행하였다. 제차는 들어가는 말미(연유답음을 포함)- 공연- 비념- 소지사름- 산받아분부사됨- 제반건음- 걸명으로 진행되었다. 각 제차마다 ‘좋은 산’을 받은 제비쌀은 본주가 받아서 찻지 않고 삼켰다.

54) 이용옥심방 민담. “고전적하르바님을 푸는 이유는 양씨애미가 이도저도 못 가서 울고 있으니 고전적하르바님이 인도해서 신이 되거든. 게난 양씨애미 푸는 데는 고전적을 반드시 풀어.”

① 조왕

조왕신은 문전신의 어머니로 부역에 좌정하여 가족들의 건강을 관장하는 신이다. 김윤수 심방이 부역의 가열대 앞에 놓인 제상 앞에 앉아서 '조왕경'을 읽었다. 조왕경 독경을 하기 전에 간단하게 연유담는 말명을 하였다. 독경을 마친 뒤에는 비념을 하였고 제상에 있는 제비쌀을 잡아 산을 받고 분부사뵐을 하였다.

② 삼승할망

이용옥 심방이 거실에서 칠성비념을 하고 있을 때, 김윤수 심방이 젓방으로 들어가 삼승할망 비념을 하였다. 삼승할망은 일반신본풀이의 맹진국할마님으로 자손들의 탄생과 양육을 담당하는 신격이다. '깨끗한 신'으로 관념하여 제숙을 올리지 않는다. 맹진국떡넙아기의 본풀이는 생략하고 간단한 말명으로 진행하였다. 제상은 없이 궤 위에 제물을 차려 놓았다. 본주댁은 이씨불도라는 일월조상이 있어 이씨불도를 위한 메 1그릇을 추가하였다. 비념을 마친 뒤에는 제상에 있는 제비쌀을 잡아 산을 받고 분부사뵐을 하였다.

<사진 3> 칠성 지드림



③ 칠성

이용옥 심방이 큰상 왼쪽에 놓여 있는 칠성상을 향해 돌아앉아 진행하였다. 칠성본풀이를 구연하고 비념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였다. 칠성상에는 기본 제물 이외에 묵은 해 수확한 농작물을 종류별로 올렸다. 본주대는 안칠성, 밧칠성이 있어 때 2그릇을 올렸다. 비념을 마친 뒤에는 본주가 ‘지’를 준비해서 뒤뜰에 있는 밧칠성의 켓문을 열고 ‘지드림’을 하였다.⁵⁵⁾ ‘지’에는 작년 농사지은 곡물을 바치는데 신에게 수확의 감사를 올리는 의미와 금년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는 의미가 있다. 비념을 마친 뒤에는 제상에 있는 제비쌀을 잡아 산을 받고 분부사뵐을 하였다.

④ 갈매

예전에는 밭을 갈던 농기구를 관장하는 신격인데 최근에는 농업용 차량과 가족들 소유의 차를 관장하는 기능이 추가되었다. 심방은 마루에 앉아서 큰상 오른쪽 쟁반 위에 준비된 제물을 향해 말명을 하였다. 농사용 차량과 자가용 차량의 안전운행을 기원한 뒤에는 제상에 있는 제비쌀을 잡아 산을 받고 분부사뵐을 하였다.

⑤ 조상영가

본주대의 제사와 명절 때 모시는 조상영가들이다. 심방이 간단하게 말명을 하고 가족들이 제상의 제물을 제반건음을 하여 집 밖의 군졸들에게 절명하였다.

(4) 액막이(액막음)

액막이는 가정에 찾아오는 나쁜 액을 막아 한 해를 무사히 지낼 수 있도록 기원하는 제차다. 방액상에는 실, 무명, 지전 등이 놓여 있다. 심방은 방액상 앞에 앉아 요령을 흔들며 아래와 같이 말명을 하였다.

방액은 주년국 사만이 범으로 체서에 방액 올린 방액 올립네다.

위와 같이 방액을 올리는 근거를 밝히고 가족들 이름을 차례대로 부르면서 나

55) ‘지’는 흰 한지에 제물을 조금씩 싸서 뭉친 것을 말한다.

뿐 액을 막아달라는 기원을 하였다. 생명위협·교통사고·관재수·부모자식 이별수·군대 간 자손의 사고 등의 나쁜 액을 막아달라고 기원하였다.

(5) 도진

도진은 모든 신들을 돌려보내는 송신(送神)하는 제차이다. 심방은 콩이 담긴 그릇을 들고 서서 빠르게 말명을 이어갔다. 청해 들인 신들의 신명을 서열대로 말하며 어서 가시라고 하는 내용이다. 집안 구석구석에 콩을 뿌리며 “헛쉬!” 하며 잡귀를 쫓고, 술을 입에 물어 방안마다 뱉어서 부정을 씻어내었다.

3) 드르멩감과 문전철갈이 의례 비교

와산리 고씨택의 멩감제는 드르멩감과 문전철갈이가 합쳐진 의례이다. 두 가지 의례가 합쳐져서 하나의 의례로 행해졌다. 하지만 두 의례는 각각의 대상신이 있으며, 각각 완결적인 구조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각각 분리해도 충분히 독립할 수 있다. 여기서는 현재 행해지고 있는 와산리 멩감제가 갖고 있는 복합적인 성격을 이해하기 두 의례에 대한 비교를 하겠다. 두 의례가 진행되었던 장소, 기원했던 신격, 본풀이, 신에게 바친 제물 등을 통해 두 의례가 지니는 의미를 살펴 보도록 하겠다.

(1) 의례 장소

드르멩감과 문전철갈이의 제장은 집을 경계로 밖과 안으로 나뉘었다. 드르멩감은 집 밖의 생업 현장인 과수원 창고에서 의례를 지냈다. 문전철갈이는 집 안의 가옥을 중심으로 가신들의 좌정처에서 의례를 지냈다. 드르멩감은 제장이 들판이어서 연유된 이름이다. 문전철갈이는 가신들 중 으뜸신인 문전신에게 기원하는 의례이기 때문에 연유된 명칭이다.

(2) 대상신

드르멩감과 문전철갈이의 대상신은 의례 장소에서 확인되듯이 생업신과 가신으로 구분된다. 청해지는 신격이 다른 것은 두 의례의 성격이 변별성이 있다는

의미이다. 또한 직능이 세분화된 신에게 기원하는 바를 강조하는 의미도 있다.

<표 7> 드르멩감과 문전철갈이 구성 요소 비교

의례 구성 요소	드르멩감	문전철갈이
의례 장소	과수원 창고	집 안
신격	삼멩감, 제석할마님, 과수원신	문전, 조왕, 삼승할망, 칠성신, 갈매, 조상영가
본풀이	멩감본풀이	조상신본풀이(산신일월, 고전적, 이씨불도, 양씨아미, 양씨큰할마님, 고씨어머님), 칠성본풀이
제물 진설 방법	제물 진설 방법 바닥에 새를 골고루 펴서 그 위에 광목을 다시 깔고 제물 진설을 하였다. 제물 앞에는 삼멩감기를 세워 놓았다.	제물 진설 방법 거실에 병풍을 놓고 그 앞으로 칠성, 올레, 갈매, 액막이, 공깃상이 있다. 안방에는 궤위에 삼승할망 제물이 놓여 있고 방 바닥에는 초석을 깔아 제물 진설을 하였다. 부엌에는 조왕상을 놓고 제물 진설을 하였다.
	메2, 메밀돌레떡, 백돌레떡, 과일 5종, 채소 3종, 삶은 계란, 술, 제숙, 명태 광목, 소지	제물은 드르멩감과 동일한데 삼승할망상에는 제숙을 올리지 않는다.

드르멩감에서는 삼멩감·제석할망·과수원신만을 모신다. 드르멩감이라 하여 멩감신만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생업신을 함께 모셨다. 드르멩감은 산신멩감이라도 불린다. 산신멩감은 수렵이나 목축을 관장하는 신격이다. 제석할망은 땅에서 이루어지는 소산물을 관장한다. 과수원신은 드르멩감이 과수원에서 지내기 때문에 별도로 모신 신격이다.

문전철갈이에서는 초감제에 다른 무속제의와 같이 옥황상제를 위시한 모든 신

을 청한 뒤에 집 안의 각 처에 좌정한 가신(家神)에게 각도비념을 하였다. 초감 제에 문전신을 위시한 가신들만 청한 것이 아니라 가신은 신들의 서열 중 하위 신이므로 상위의 신들을 형식적으로 언급만 하였다. 가신은 문전신·조왕신·삼승할망·철성신·조상영가·갈매·올레신 등이다.

여러 신들 중에서 갈매신을 위한 제차가 특이하다. 갈매신은 농기구의 신이다. 현재는 자동차가 농기구로 대신하고 있어 현재의 갈매신에 기원하는 바는 가족들의 자가용의 안전운행이다. 농기구와 관련된 신을 모시는 것은 농업 생산력의 증대를 위하여 당연한 것이라 하겠다. 기계를 이용하여 농사를 지으면서 생산력이 증대하고, 풍농을 기원하는 것은 자연적인 변화이다. 하지만 현대에 들어와서 농기계가 보편화되면서 이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여 자동차신이 등장하였다. 자동차는 생업과 관련이 없지만 현대 인간 생활에서 언제든지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기계이다. 따라서 한 해의 액을 막는 제의에서 자동차신을 모시고 기원을 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이는 무속 제의가 사회 변화의 흐름을 수용하고 변화해 가는 현상이라고 하겠다.

(3) 본풀이 구연

본풀이 구연은 의례의 근거를 신에게 밝히는 제차로 의례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크다. 드르멩감에서는 의례의 주요 대상신이 삼멩감 이므로 멩감본풀이만 구연하였다. 농업의 풍요를 기원하는 신으로 모신 제석할마님에게 기원하는 세경본풀이가 구연되기도 하는데 이번 사례에서는 세경본풀이는 풀지 않았다. 제석할마님은 제석신의 변형이다. 제석신은 풍요의 신으로 제주도내에서 보편적으로 마을마다 존재하고 있으며, 관련 의례가 별도로 있다. 제석제라 하여 여름농사를 시작하기 전에 제석신에게 풍년을 기원하는 의례가 있었다. 마을내에 제석동산이라 하여 제석제를 지내는 별도의 공간에서 마을단위의 규모나 개인단위 규모로 의례를 지내었다. 생업의 풍요를 바라는 의례에서 제석신을 모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제석신과 과수원신을 대상으로 의례를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일치한다.

하지만 이번 사례에서 세경본풀이를 풀지 않고 멩감본풀이를 푼 것은 굿을 하고 있는 본주댁의 집안 조상이 수렵과 목축을 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멩감제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와산리에서는 전통적으로 드르멩감을 하면서 멩감

본풀이를 풀었으며, 와산리 주민들도 멩감본풀이의 내용을 잘 알고 있다.⁵⁶⁾ 또한 드르멩감을 집 안에서 가신들과 함께 지낸다 하더라도 멩감본풀이를 구연한다는 것은 신년제의 안에서 드르멩감의 위상이 어떠한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⁵⁷⁾

문전철갈이에서는 군웅을 놀리기 위해서 조상신본풀이와 칠성본풀이를 풀었다. 본주댁은 일월조상이 다양하다. 일월조상인 산신일월·고전적·이씨불도·양씨아미·양씨큰할마님·고씨어머님 등의 내력을 차례차례 밝혔다. 이 중에 산신일월은 본주댁의 멩감제가 산신멩감인 것과 관련이 있다. 심방의 말명에 의하면 본주댁의 산신일월은 수렵이나 목축으로 집안을 번창하게 일으킨 조상이다. 즉 수렵과 목축을 번창하게 만든 산신일월을 조상으로 모시고 있으며, 그 조상이 섬겼던 신앙인 산신멩감제가 본주댁의 전통의례로 전승되고 있는 것이다. 칠성본풀이는 가정에 복을 기원하는 내용으로 신년의례인 문전제에서 필수적인 항목이다. 복을 가져다주는 칠성신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논리적으로 굿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다.

(4) 제상차림

드르멩감에서는 삼멩감, 제석할마님, 과수원신만을 모셨다. 제상을 준비하지 않고 바닥에 새를 깔아 펼친 위에 제물을 진설하였다. 제상을 준비하지 않은 것은 드르에서 지내왔던 전통의 방법에 근거한 것이다. 과거 제장이 곶에 있을 때에는 돌로 된 제단이 있어 그 위에 새(띠풀)를 펼쳐 제물을 진설하였다. 과수원 창고로 바뀐 현재에는 돌로 된 제단은 없지만 새는 준비하여 그 위에 제물을 진설하였다. 준비된 제물은 메 2그릇, 술 1병, 생선 1마리, 명태 1마리, 과일 5가지, 나물 3가지, 삶은 계란, 소지 다섯 장 그 외 보시기메, 메밀돌레떡, 백돌레떡 등이다. 드르멩감의 제물의 특이한 점은 날채소를 올리는 것이다. 꿩이나 노루 고기와 함께 날채소를 올렸지만 이번에는 날채소만 올렸다. 날채소를 올리는 이유는 산신멩감이기 때문이다.

문전철갈이에서 제상차림은 큰상, 공깃상, 칠성상, 올레상, 갈매상, 조왕상이며,

56) 와산리 고근송씨 면담. “심방이 멩감본 풀난 멩감제렌 허주게. 거 사만이가 사냥하당 해골 모성 부제(富者)되고, 나중에 굿 해영 오래 산덴 허느네.”

57) 다른 가정에서 멩감제를 하는 양춘일 심방과 김순아 심방의 면담을 통해 확인하였다.

조상영가와 삼신할망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을 차리지 않고 제물만 진설하였다. 신을 위한 제상 차림은 필수적인 것이며, 굿의 성격을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하겠다. 굿을 하기 위하여 청하는 일반적인 신들은 큰상에 모신다. 그와 별도로 특정 목적을 위하여 모시는 개별신들은 별도의 상을 마련하여 모시는데, 문전철같이에서는 각도비념의 제차에서 각각의 신에게 별도의 기원을 하였다. 제물 진설의 특이한 점은 칠성신을 위한 데서 찾을 수 있다. 칠성신은 고팡(창고)의 신으로 집안의 부를 축적하는 신이다. 칠성상에는 다른 신들에게 바치는 제물 이외에 묵은 해에 수확했던 작물을 종류별로 올렸다. 칠성신은 집 안에 들어온 재물(財物)인 농사작물을 관리하기 때문에 수확에 대한 감사와 풍요기원의 의미로 올린다.

2. 멩감본풀이 분석

멩감본풀이는 일반신본풀이의 하나로 굿의 액막이 제차와 멩감제에서 구연된다. 액막이 제차는 굿의 후반부에 나쁜 운을 신께서 함께 가져가 달라는 기원에서 진행된다. 멩감제는 생업의 풍요를 기원하는 의례이다. 이렇듯 하나의 본풀이가 성격이 다른 의례에 쓰이는 것은 멩감본풀이가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멩감본풀이에 대한 기존의 연구 성과들은 채록된 자료를 토대로 본풀이를 해석하거나 형성과정을 살펴본 것이며, 실제 의례와의 연관성 속에서 분석한 것은 없다. 본풀이는 의례 속에서 불리고 있으며, 의례와 떨어져서 별개로 존재할 수 없다. 의례 속에서 본풀이는 기능하며 살아 움직이는 것이다. 따라서 의례가 진행되는 현장 속에서 본풀이와 의례의 관련성을 규명하는 것은 필요한 작업이다. 멩감본풀이의 서사를 통해 멩감본풀이의 성격을 분석하고, 멩감본풀이가 불리는 각각의 의례와 비교를 통해 멩감본의 의미를 찾아보도록 하겠다.

1) 멩감본풀이 성격

멩감본풀이가 각기 성격이 다른 의례에 쓰인다는 것은 중층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중층적인 성격으로 인해 멩감신의 신격에 대해서도 다양한 주장이 존재한다. 백년해골이 사만이를 부자로 만들어주고 정명연장의 방법도 알려주었으니 신앙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또한 사만이가 백년해골을 섬겨 부와 장명을 획득하였기에 신앙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본풀이 후반부에 등장하는 삼차사가 사만이의 정명을 연장하였으므로 신앙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처럼 본풀이의 신격이 모호한 것은 본풀이의 서사가 전반부와 후반부로 명확히 나뉠 수 있기 때문이다. 2008년도 와산리 멩감제에서 구연된 멩감본풀이를 대상으로 멩감신의 성격을 살펴보겠다. 멩감본풀이의 서사단락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사만이는 조실부모하여 거지 동남으로 살아간다.
- ② 사만이는 처지가 비슷한 장대감님 애기를 만나 함께 동남하며 다니다가 15세 때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룬다.
- ③ 가정형편이 궁핍하여 사만이치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서 사만이에게 건네주며 그것으로 식량을 구해오라고 시킨다.
- ④ 사만이는 머리카락을 팔아서 쌀 대신에 총을 산다.
- ⑤ 집에 돌아온 사만이는 부인으로부터 야단을 맞고 총을 메어 사냥하러 떠난다.
- ⑥ 한 밤중에 사냥에 실패한 사만이에게 어디선가 사만이를 부르는 소리를 듣게된다. 자신의 이름이 세 번째 불리우면 대답하려 했지만 두 번째에 멈춰버린다.
- ⑦ 사만이가 이튿날 날이 밝자 소리가 났던 곳을 찾아가보니 만년폭낭 아래 백년해골이 있었다.
- ⑧ 백년해골은 사만이에게 자신은 서울 백정승 아들인데 사만이처럼 사냥하다 총고 굶어 죽게 되었다고 말하고 자신을 조상으로 모셔주면 부자를 만들어주겠다고 말한다.
- ⑨ 사만이는 백년해골과 함께 집에 돌아오고, 사만이치는 연양상고팡에 모시고 정성을 다해 조상신으로 모신다.
- ⑩ 사만이는 사냥을 하여 큰 부자가 된다.
- ⑪ 저승에서 사만이의 친부모가 사만이가 자신들은 섬기지 않고 백년해골만 위한다고 염라대왕에게 탄원을 한다.
- ⑫ 백년해골이 미리 알아차려서 사만이에게 살 방도를 알려준다.
- ⑬ 사만이는 저승차사를 잘 대접하여 목숨을 연명하게 된다.
- ⑭ 저승차사들이 시왕을 속이고 저승의 명부를 고쳐 사만이를 삼천 년을 살게 한다.
- ⑮ 사실을 안 염라대왕이 삼천년을 산 동방색이를 잡아오라 하여 동방색이가 차사들의 꾀임에 넘어가 저승에 잡혀간다.

멩감본풀이의 서사단락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뉠 수 있다. 사만이가 수렵으로 부를 축적한 전반부와 정명을 연장하는 후반부로 나뉠 수 있다.⁵⁸⁾ ①~⑩의 전반부는 사만이가 부를 축적하는 계기를 설명하고 있어 수렵의 풍요를 기원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⑪~⑮의 후반부는 사만이가 정명연장을 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어 액을 막아주길 기원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성격이 다른 두 개의 대목을 중심으로 멩감본풀이 서사를 살펴보겠다.

(1) 수렵 풍요

사만이는 어려서 조실부모하여 결혼 직후까지 경제적으로 궁핍했었다. 그러나 백년해골을 조상신으로 섬기면서 그의 경제형편은 부유하게 되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부분은 백년해골과 사만이의 만남이다. 백년해골은 생전에 수렵을 업으로 삼다가 사망한 사만이와 동일 직종의 영혼이다. 백년해골이 한밤중에 사냥중인 사만이를 부르고 있다. 생업의 수호신으로 모시게 될 대상이 스스로 제향받기를 부탁하고 있다. 이처럼 당신 혹은 조상신이 스스로 단골을 찾아서 결연을 맺는 화소는 당신본풀이나 조상신본풀이에서 자주 등장한다. 제주시의 운동지 영감당이나 조천읍 와산리의 불도당 등의 본풀이에서도 이러한 화소를 발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신과 단골 사이에 결연이 완성되면 조상과 자손이라는 관념으로 발전하게 된다. 여기에서 조상이라는 것은 혈연의 조상이 아니라 조상들이 섬겼던 신앙대상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사만이가 백년해골을 모셨던 생업수호신신앙과 같은 행위는 수렵문화의 상징으로 산악지대에 골고루 퍼져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신앙의 풍습은 함경도 지역의 무가를 통해서 살필 수 있다. 함경도의 황천혼시 무가는 멩감본풀이와 주인공만 다를 뿐 백년해골을 섬겨 부자가 된다는 내용이다. 중국의 소수민족인 장족인들도 해골을 숭상하여 사람들의 두개골로 만든 가면이 가장 영험하다고 믿는다. 이들에게 해골을 숭상하는 것은 가장 큰 행복의 표시이다.⁵⁹⁾ 백년해골은 조령적 성격을 띠며 북방이나 산악지역서 숭앙되었다. 이처럼 백년해골을 섬기는

58) 현용준, 『제주신화의 수수께끼』, 집문당, 2005, 93쪽. 현용준은 멩감본풀이를 3개의 유형으로 정리하고 있다. 첫째는 '정명수정형'으로 차사가 저승의 명부를 고쳐 수명이 연장되었다는 유형이다. 둘째는 '대명대충형'으로 다른 사람이나 동물로 대신 잡아가 수명을 연장했다는 유형이다. 셋째는 '혼합형'으로 이 두 가지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다.

59) 최원오, 「차사본풀이 유형 무가의 구조와 의미」, 『한국민속학』 29호, 1997, 234쪽.

이유는 수렵문화권에서 생업의 풍요를 기원하기 위함이고 원시신앙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것이라 하겠다.

(2) 정명 연장

후반부는 평소와 달리 사냥이 잘 되지 않은 사만이 집에 돌아와 백년해골에게 연유를 묻는 것으로 시작된다. 백년해골은 사만의 정명이 다 했음을 알리고 저승차사를 회유할 수 있는 계책을 말해주 위기를 모면하는 것으로 맺는다. 저승차사는 염라대왕의 부하관속으로 저승의 신이다. 저승에서 명부(冥簿)를 관장하는 관리이다. 이렇듯 명부를 관장하는 멩감을 잘 위해서 횡액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것으로 멩감(冥官)본풀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내용의 무가로 호남지역의 장자풀이가 있다. 장자풀이에서는 사마장자가 문복을 하여 보니 집안의 조상신 성조, 조왕, 조상신을 위하지 않아서 죽을 날이 임박했음을 알고 차사를 잘 위하여 죽음을 모면하게 된다. 백년해골에서 점복으로 매개체가 바뀌었을 뿐 나머지 내용은 같다. 백년해골에서 점복으로 바뀐 것은 원시신앙에서 후대의 신앙적인 양식으로 변모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두 개의 무가는 죽음을 모면하기 위한 대책으로 저승의 신인 차사를 대접하는 방안을 활용한다. 그런데 사만이나 사마장자가 죽음에 처한 것은 조상신들을 잘 모시지 못해서다. 저승에서 대접받지 못한 조상신들이 염라대왕에게 탄원을 하여 저승차사가 내려오게 된 것이다. 저승차사를 잘 위하여 죽음을 모면하고 나중에는 혈연의 조상신들도 함께 위하여야만 복도 받게 되고 명도 늘일 수 있다는 지극히 현실적인 사고가 반영된 것이다.

멩감본풀이의 내용은 사만이 부자가 된 사연과 정명 연장을 하게 된 것을 다루고 있다. 본풀이는 의례의 근거가 된다. 무속의례는 현세에서의 복을 기원하는 것으로 생명과 부는 복의 근원이며 인간의 절실한 욕망이다. 멩감본풀이가 인간의 근본적인 욕망인 부와 생명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어 성격이 다른 각각의 의례가 존재하는 것이다.

2) 관련 의례 비교

멥감본풀이는 신년의례인 멥감제와 각종 굿의 액막이 제차에서 활발히 전승되고 있다. 멥감본풀이의 의미는 본풀이가 불리워지는 의례와의 관계 속에서 생각할 수 있다. 비교 자료로 쓰일 멥감본풀이는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에서 발간한 『동북 정병춘택 시왕맞이』에 기술된 자료서와 2008년 와산리 멥감제에서 구연된 멥감본풀이이다. 『동북 정병춘택 시왕맞이』의 멥감본풀이는 2006년 서순실 심방이 구연하였고, 시왕맞이의 액막이 제차에 사용되었다. 구연 당시의 의례 상황에 대해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어 제차의 진행과 흐름에 대해 살펴볼 수 있다. 2008년 와산리 멥감제의 멥감본풀이는 김윤수 심방이 구연하였고 드르멥감에서 사용되었다.

액막이는 시왕맞이의 한 제차인 관계로 전체 굿의 제의순서를 통해 액막이제차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당시의 굿은 나흘간 계속되어 주요 제차는 초감제-초상계·추물공연-석살림-시왕맞이-(본풀이)-뫓제의 흐름으로 이어졌다. 시왕맞이는 둘째 날과 셋째 날 이루어졌다. 좀 더 세분하면 아래와 같다.⁶⁰⁾

첫째 날 : 초감제 - 초상계·추물공연 - 석살림

둘째 날 : 시왕맞이(초감제, 방광침, 추물공연, 체서본풀이, 석살림, 나까시리놀림, 군병지사귀, 세경본풀이)

셋째 날 : 시왕맞이(넉들임-액막이-칠성본풀이-공시풀이-상당숙임-군졸지사귀-막방광-영계 돌려세움)

넷째 날 : 군웅만판-선앙풀이(뫓제)-도진

액막이 제차는 다음과 같다. 제차는 날과국섬김-연유담음-신메움-상촉권상-주잔님김-멥감본풀이-주잔권잔-주잔님김-방액-대명대충-산받음-산받아분부사됨-제차님김으로 진행되었다. 방액상에는 시령목, 쌀, 술, 실, 소지, 지전, 다라니, 향, 짚신, 통기, 발지전 등이 놓였다.

드르멥감은 초감제-추물공연-본풀이-걸명(잡식)으로 진행되었다. 바닥에 띠를

60) 강정식, 「해설」, 강정식·강소진·송정희, 『동북 정병춘택 시왕맞이』,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2008, 18쪽. 위의 시왕맞이는 보편화된 시왕맞이 형식과 다르다. 일반적으로 시왕맞이에서는 차사영맞이를 하여 질 짐을 해야 되는 데 본주택의 사정에 의해서 생략되었다. 그리고 세경본풀이와 칠성본풀이가 특별히 첨가되었다.

깎아 그 위에 메 2, 술, 생선, 명태, 과일 5가지, 나물 3가지, 삶은 계란, 소지 5장 그 외 보시기에, 메밀돌레떡, 백돌레떡 등이 놓였다.

(1) 제청에 초대되는 신

액맥이에는 우선 옥황상제를 위시한 무속의 신들을 청한 뒤에 방액상에는 차사들만 청하였다. 반면에 드르멩감에서는 초감제에서 삼멩감, 제석할망, 과수원신을 청하였다. 두 의례에서 청한 신들 중 공통분모는 차사들이다. 하지만 액맥이에 청한 차사들은 본주댁의 조상영가들을 데려간 차사들이 추가되는 것으로 보여 의례의 성격별로 차사들을 청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드르멩감에서 특별히 청해지는 제석할망과 과수원신은 생업의 풍요를 관장하는 신격으로 삼멩감 또한 같은 성격의 신으로 유추할 수 있다.

(2) 제의 순서

액맥이는 시왕의 차사들에게 방액을 기원하는 제차다. 멩감본풀이를 구연하여 차사들이 액을 막아주어야 되는 당위성을 밝히기 위함이다. 본풀이를 통한 액을 막아줘야 하는 당위성이 증명이 되면 방액을 할 대상자의 이름을 말하였다. 열명을 한 뒤에 차사들에게 인정을 걸고 방액을 기원하였다. 방액을 기원한 뒤에는 산을 받아 신의 뜻을 열명을 올린 대상자들에게 전달하였다.

반면에 드르멩감은 초감제에서 특정의 신만을 청한 뒤에 신에게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대접하였다. 그런 뒤에 심방이 가족별로 그 해 운세를 점을 쳤다. 그런데 점을 치면서 하는 심방의 말명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아래는 심방의 말명이다.

주잔은 권권 지냉겨 드러가며 삼멩감 연드리로 다 읊서 읊서 청헤엿수다. 일로 다 상이나 곱게 받아 사오리까. [산관점] 귀신에 길로 다 산 곱게 받고, [산관점] 성선도 잘헤어신가마썸. 그 다음에도 고씨 대주 예순아홉님이나 차도 운전허고 멩기고 허는 즈손 이 봄 석들이나 [산관점] 펜안허고 [산관점] 여름 석들이나 [산관점] 가을 석들이나 [산관점] 겨울 석들이나 [산관점] 몸이나 펜안헐 낀가마썸. [산관점] 반에반석(半吉半凶) 올금년 예순아홉 운도 굿고 허난 집으로 문전으로 조상님네 다 읊센 허연 그 앞으로 방액도 [산관점] 잘 막고 허쿠다. [산관점]

[산관점] 올금년 곳인 운이 [산관점] 집으로 강 액 잘 막고 영허면 [산관점] 인명 축혈 일이나
엇고 [산관점] 과원도 영허영 땡기는 길이나 [산관점] 멍심허여사 뵈 일 말입네까. [산관점]

심방의 말명 가운데 “반에반석(半吉半凶) 올 금년 예순아홉 운도 곳고 허난 집
으로 문전으로 조상님네 다 읍센 허연 그 앞으로 방액도 잘 막고 허쿠다.”에서
심방은 집에 가서 문전으로 액을 막겠다는 말명을 하였다. 이 부분에서 드르멩감
에서는 액맥이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하다. 이로 볼 적에 드르멩감에서 멩감
본풀이를 구연하더라도 그 기능이 액맥이의 기능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드르멩감은 와산리에서 보여지는 멩감제의 한 부분이다. 앞서 본 대로 와산리의
멩감제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드르멩감과 문전철갈이 두 부분으
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곳에서 액맥이는 필수적인데 곳의 후반부에 진행된다.
와산리 멩감제에서도 문전철갈이의 후반부에 진행되었다. 시왕맞이 제차에서도
액맥이는 3일째 곳의 후반부 제차에 진행되었다. 이는 신이 떠날 때 액을 함께
거둬가 달라는 기원을 하기 위해서이다. 그렇다면 제차의 진행으로 보아도 두 의
례에서 불린 멩감본풀이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 드러난다.⁶¹⁾

3) 멩감본풀이 의미

앞에서 멩감본풀이의 중층적인 성격으로 인하여 곳의 액막이제차와 신년의례
인 멩감제에서 구연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의례대상인 멩감신의 존
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멩감신의 직능이 중층적이고 다른 일반신
의 직능과 겹치는 부분이 있어 하나의 신격으로 정의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
서 신격의 대상에 대한 논의보다는 신격의 특징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있다. 어
찌면 멩감신의 중층적인 신격이 다른 일반신에 비하여 변별적인 성격이고 이것
이 제주무속신앙의 여러 측면을 설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직능이 비

61) 그런데 한 가지 주저되는 부분이 있다. 멩감제의 양상이다. 앞서 와산리 멩감제의 구성을 드르멩감과 문
전철갈이의 결합 형태로 보았다. 두 의례에서 각각의 초감제를 하였기 때문에 맞이곳의 성격을 띄는 별도
의 의례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드르멩감만 별도로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액맥이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 이에 관련하여 이용욱 심방은 “나는 이제까지 드르멩감에서 액맥이를 안 해주만은
말약에 문전철갈이 안 하고 별도로 멩감만 헌텐 허면 마지막에서 액맥이를 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하였
다. 액맥이도 별도로 지내기도 한다. 당곳이나 기타 곳을 통해 개인의 신수가 많이 좋지 않을 경우 집으로
심방을 청해 별도의 액맥이를 하기도 한다.

슷한 신격과의 비교를 통해 멧감본풀이의 의미를 찾아보겠다.

멧감제가 생업의 풍요를 기원하는 의례인 관계로 와산리 사례에서는 초감제에 삼멧감, 제석할망(세경신), 과수원신을 청하였다. 다른 지역 사례에서는 집안의 생업환경에 따라 멧감본풀이와 세경본풀이가 선택되어 불리기도 하였다. 그런데 처음부터 생업의 풍요를 기원하기 위해서 여럿의 신격을 동시에 모셨는지는 의문이다. 와산리 사례에서 보이듯이 과수원신은 드르멧감의 제장이 과수원 창고로 옮겨오면서 모시게 된 신격이다. 그렇다면 멧감제에서 생업의 변동에 따라 여러 신격이 추가되었고 처음에는 어느 특정의 생업신만 모셨을 수도 있다. 이는 멧감제를 통해 생업의 변모 또한 찾아볼 수 있는 의미가 있다.

멧감제는 멧감신을 위한 의례이므로 멧감제라 칭하기도 하고 생업의 공간에 따라 드르멧감, 산신멧감, 제석멧감, 요왕멧감 등이라 하였다. 멧감제라는 큰 틀 안에 직능이 세부화된 드르, 산신, 제석, 요왕 등의 멧감제가 있는 것이다. 이 가운데 제석과 요왕의 멧감제와 직능이 유사한 의례가 있다. 일반신인 세경신을 위한 제석제와 요왕신을 위한 요왕제라는 의례이다. 다른 신격과 중첩이 되지 않는 의례는 멧감제 가운데 산신멧감만 남는다. 산신멧감이 다른 생업신격과 섞이지 않는 멧감신의 변별적인 성격임은 멧감본풀이에서도 증명된다. 그렇다면 멧감제는 생업 가운데 수렵을 관장하는 산신의 직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산신은 애초에 수렵을 관장하는 원시 생업의 신격이었다. 수렵의 공간이 목축으로 변모하게 되면서 소와 말을 관장하는 목축의 신격이 추가 되었다. 그런데 소와 말은 목축산업의 근간이기도 하지만 전근대 농업에서 절대적인 농업수단이기도 하다. 따라서 산간 지역의 목축농가가 아니더라도 해변 마을이나 중산간 지역의 발농사를 짓는 농가에서도 소와 말을 위한 무속의 의례는 필요하였다. 소와 말을 위한 멧감제는 결국 농업의 풍요를 기원하는 의례이기 때문이다. 문화의 교류로 인하여 신앙풍습 또한 전파되게 되면서 제주 전역에 멧감제가 생업의 풍요를 위해 행해졌다.

멧감신의 또 다른 직능인 액막이를 담당하는 신격은 차사이다. 차사에게는 차사본풀이가 있어 동일 신에 대한 본풀이가 두 가지 있다. 차사본풀이는 시왕맞이나 귀양풀이에서 차사에게 사령을 고이 극락세상으로 인도해 달라는 기원을 할 때 불린다. 인간의 죽음이라는 것이 염라대왕의 명을 받아 저승차사인 강남이가

인간 영혼을 데리러 오는 것이므로 저승차사를 잘 모심으로써 죽은 영혼이 저승까지 편안히 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는 바람이 차사본풀이를 구연하는 이유이다. 멩감본풀이는 정명이 다 된 사만이 백년해골의 도움으로 저승차사에게 인정을 베풀어 액을 막고 연명하게 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가지 모두 차사와 관련된 본풀이지만 차사본풀이는 죽음의 기원, 차사의 내력, 저승길 묘사로 이루어진다. 실제 의례도 이와 연관지어 질치기가 진행된다. 멩감본풀이는 차사를 소재로 활용하고 있지만 죽음이라는 액을 막기 위한 방안을 알려주는 무가이다. 죽음은 저승에 있는 인간의 정명이 기록되어 있는 명부(命簿)에 의해 결정되고 그 역할을 저승사자인 차사가 담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승의 차사를 잘 위하면 정명연장을 할 수 있다는 방책을 무가를 통해 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두 본풀이의 기능이 다른 관계로 의례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삼차사가 정명연장을 해줘서 기원을 하고 있지만 멩감본풀이 서사의 전반부와 관련이 없어 신격의 대상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 이처럼 멩감본풀이의 신격을 한마디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은 멩감본풀이가 오랜 신앙의 풍습이었고 시대를 거치오면서 변모해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대가 원하는 요구를 수용해왔기 때문에 무속신앙의 변모를 멩감본풀이 안에서 살펴볼 수 있는 의의가 있다.

멩감본풀이의 전반부와 후반부는 별도의 서사구조를 가지고 있어 각각의 의례가 있다. 특히 멩감본풀이의 전반부는 원시의 수렵문화권에서 모셨던 생업조상신에 대한 의례를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서 멩감본풀이가 일반신본풀이면서 조상신본풀이와 당신본풀이로 확장된 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 일반신본풀이는 육지뿐만 아니라 제주도에서 심지어는 동아시아적 일치점을 지니는 소재가 월등하게 많다. 일반신본풀이에서 고유한 제주도적 요소를 발견하기는 어렵다. 소재적인 차원에서 신화의 원천으로 다양한 이야기를 많이 가져와서 구성을 했으므로 보편적인 성향이 농후하다고 하겠다. 대신에 일반신본풀이는 시대적인 특징과 소재적인 판도를 확인하는 요긴한 본풀이라는 의의가 있다.⁶²⁾ 한 집안에서 전승되던 조상신본풀이가 혈연가족의 확대에 의해 전파되면서 보편성을 띄는 여러 가지 화소와 결합하여 일반신본풀이로 바뀌어 가는 무속신앙의 전환 과정을 이해하는 데 소중한 단서를 알 수 있다.

62) 현용준·김현선·강정식, 『제주도 조상신본풀이 연구』, 보고서, 2006, 17쪽.

IV. 멩감제 전승과 변화 양상

1. 멩감제 조사 사례 정리

앞에서 와산리 지역의 멩감제 사례를 통해 의례의 구성과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기존의 마을 조사 보고서를 살펴보면 멩감제는 와산리 뿐만 아니라 제주 전역에서 보편적으로 지내던 기풍제의(祈豊祭儀)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장에서는 기존의 조사 보고서와 와산리의 마을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멩감제의 전승과 변화 양상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1) 기존 조사

제주도내 여러 마을의 멩감제 전승 상황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 자료는 없지만, 기존의 마을 조사에서 부분적으로 조사된 자료를 통하여 개략적인 윤곽을 파악할 수 있다. 제주도내 마을조사는 197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왔다. 제주대학교 국어교육학과와 『백록어문』과 국어국문학과와 『국문학보』에 정기적으로 보고서가 기재되어 왔다. 또한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제주도 세시풍속과 가정신앙에 대하여 조사한 보고서가 있다. 기존의 마을조사 자료에서 부분적으로 조사된 내용들을 토대로 멩감제 전승 양상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 멩감제의 시기

기존의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멩감제를 하는 시기가 대개 정월에 하는 것으로 보아 신년제의라는 일치점을 보였다. 정월은 가정과 마을 단위의 세시의례가 집중되어 있는 시기이다. 멩감제를 가정의 신년제로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지만 마을제와 연관하여 마을제를 지낸 뒤에 올릴 수 있는 사례가 있었다. 조천읍 선흘리에서는 마을의 신년제인 포제를 지낸 뒤에 지낼 수 있었다.

멥감은 ‘뽕릉갱이’라고도 한다. 정월에 마을에서 포제를 지내기 전에는 절대 먼저 지낼 수 없으며, 심방을 데려다 지낸다. 제물로는 돌래떡, 보시떡, 7종 과일(배, 사과, 꿀, 비자, 대추, 밤, 꽃감), 명태, 오징어(다른 바닷고기는 올릴 수 없다), 채소 3종(미역채, 미나리채, 무우채), 감주, 산메 등이다. 쌀도 올려놓는데 그릇에 쌀을 넣고 아직 피지 않은 동백꽃 봉오리를 꽃아 놓는다, 일주일 전부터 돼지고기, 개고기를 먹지 않으며, 집에 두지도 않는다, 제물은 집에서 차리지만 진설은 심방이 한다.⁶³⁾

멥감제가 정월에 행하는 신년제이지만 주기는 지역마다 달랐음이 보인다. 신년제로 매년 1회 정월에 하기도 하지만 3년을 주기로 멥감제를 하였다.

3년에 한번 심방을 빌어다가 곡식 잘되고 아이 좋게 하려는 곳이다. 집안의 신인 문전·조왕·칠성께 빈다. 메는 신의 수대로 올린다. 문전메, 조왕메, 칠성메, 그 외 집안의 조상메를 올린다.⁶⁴⁾

(2) 멥감제의 형식

멥감제는 무속의례이므로 주로 심방을 청해서 지내는 방식이었다.

멥감은 한 해 동안 집안의 평안과 행운을 빌기 위하여 벌이는 곳이다. 정월 초에 택일을 하여 들에서 행하였다. 옛 조사 자료에는 ‘동갯지’라고 하는 곳에서 지냈다고 하였다. 한편 같은 자료에 그곳에서 백중제도 지냈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때의 ‘멥감’은 산신멥감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다. 멥감은 규모는 작아도 곳으로 벌이는 것이므로 반드시 심방을 빌어서 하였다. 덕수리에서는 없어진 지 오래됐다.⁶⁵⁾

반면에 유교식 축문으로 대체되거나 불교식으로 지내는 경우도 있었다.

멥감축(明鑑祝)을 한다. 생업의 풍요를 비는 신년제로 농사의 풍성을 기원하며 제신(祭神)은 멥감부군지신(明鑑府君之神)이다. 제장은 깨끗하며 조용하고 정결한 곳에서 유식(儒式) 제법에 의해 행제(行祭)한다.⁶⁶⁾

해마다 집집마다 심방을 빌어다가 시루떡을 하고 산신에게 제를 지낸다. 먼저 새끼를 꼬아 골목(올래) 입구에 부정을 방지하는 금줄을 친다. 무당이 들어오기 전에 산에 가서 황토를 파다가 골목에서 마당까지 한 사람 걸어 올 만큼의 넓이로 간다. 심방이 금줄 묶었던 것을 풀고, 황토를 밟고 들어와 집안에서 고사를 지낸다. 밥, 채소, 생닭 등을 차려 액막이를 한다. 차츰 스님을 빌어다 제를 지냈다가, 요즘은 거의 제를 지내지 않고 있다.⁶⁷⁾

63) 백록어문학회, 「조천읍 선흘리 학술조사보고」, 『백록어문』10호, 제주대학교 국어교육학과, 1994, 202쪽.

64) 백록어문학회, 「애월읍 장전리 학술조사보고」, 『백록어문』18호·19호, 제주대학교 국어교육학과, 1994, 532쪽.

65) 국립민속박물관, 『덕수리민속지』, 국립민속박물관, 2007, 202쪽.

66)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애월읍 귀덕리 학술조사보고집」, 『국문학보』9집,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89, 250쪽.

무속의례이었던 멩감제가 시대문화의 변화에 따라 변모되어온 양상을 찾을 수 있었다.

(3) 멩감제의 내용

멩감제의 목적은 주로 농사를 하거나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 산신을 청하여 안전과 풍요를 기원하는 것이며, 여기에 집안의 1년 횡액을 막고 자녀들의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목적이 추가되기도 한다. 그런데 멩감제는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지내는 신년제라기 보다는 특정인들만 한다는 사례도 보인다.

‘멩감코스’나 그건 허여도 산신에 태운 사람은 산신도 위허영 허고, 칠성 태운 사람은 칠성에 위로허영 허고 그걸 다 포함해가지고 날 밤양 그걸 허는디, 문저 챗차는 산신에 드르로 정결헌 달로 강 허고 와그네 문전에 홉니다.⁶⁸⁾

위의 자료에 있는 ‘산신에 태운 사람’은 수렵이나 목축의 생업이 번창했던 사람을 의미한다. 혹은 집안에 이와 같은 선조가 있거나 이와 같은 일월조상을 직업의 수호신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는 멩감제를 전승하는 신앙민의 특색을 말하는 것으로 멩감제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단서이다. 또한 경제력과의 관련이 있어서 경제력이 좋은 집안에서 했다는 사례도 있다.

제보자가 어릴 때 잘 살았던 큰아버지 댁에서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마당에 병풍을 쳐서 하는 곳으로 칠성도 함께 위했다.⁶⁹⁾

제주시 삼양동 마을 조사 사례인데 위의 문구를 보아 제보자의 형편이 좋은 큰아버지 댁은 멩감제도 지내고 칠성제도 지냈다고 한다. 제보자는 멩감제는 ‘잘사는 사람들이 하는 곳’으로 관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멩감신을 수렵의 신이 아닌 땅의 신으로 여기고 여성의 신앙으로 강조한 사례도 있다.

67) 국립문화재연구소, 『제주시 영평동 사례』, 『제주도 세시풍속』, 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20쪽.

68) 제주도, 『제주도의 세시풍속』, 『제주의 민속』, 제주도, 1993, 89쪽.

69)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의 가정신앙(제주도편)』, 국립문화재연구소, 2007, 33쪽.

이 마을에서 특히 많이 행해지는 무제(巫祭)로서 <멧감> 또는 <드르코스>라는 것을 들 수 있다. 이 제의는 풍농을 위한 가정 단위의 무제로서 인가에서 떨어진 깨끗한 밭에 띠를 깔아 제물을 진설하고 밤에 심방이 행하는 것이다. 이 야제는 동서남북중앙의 멧감신을 청하여 제주(祭主)의 집안의 풍농과 가내의 진경을 빈다. 심방을 빌어다 무제로 하는 것이 일반이나, 유식(儒式)으로 축문을 고하여 의례하는 집안도 있다. 멧감신은 땅을 차지한 신이라 부락의 여인들은 말한다. 무속의례가 주로 여성들에 의하여 주관되는 여성의 신앙임은 타리(他里)와 같다.⁷⁰⁾

(4) 멧감제 제의장소

앞에서 멧감제는 제의장소에 따라 명칭이 달랐음을 언급했다. 생업의 장소에서 풍요를 기원하는 멧감제는 시대 상황에 따라 잠시 바뀌기도 하였다. 야외인 생업의 현장에서 의례를 지내다가 4·3을 계기로 집 안에서 지내게 되었다.

이것은 칠성제-초감제-멧감제 순으로 행해지는 것으로서 제물은 온 시루떡, 돌래떡, 오물떡, 묵, 바닷고기(조기,생선,명태)등을 쓰는데, 그 외 형식은 칠성제와 같다. 이 때 제물에는 칼집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통째 그대로 옮긴다고 한다. 이 제(祭)는 4·3사건 이전에는 들에서 지냈으나 그 후는 가정에서 지낸다고 한다.⁷¹⁾

멧감제는 생업의 변동에 의해서도 바뀌었다. 지역의 특수한 생업환경에 맞게 의례장소가 특이한 곳도 나타났다.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서귀포지역의 주된 작물은 바나나와 파인애플의 열대과일 농사이었다. 열대과일 농사는 비닐하우스를 가운하고 열을 관리하는 것이 농사의 풍흉을 결정한다. 한 해 농사의 판가름이 전기설비 기자재에 달려있다 해도 무방하다. 아래의 사례는 멧감제를 지내게 된 계기가 비닐하우스 전기설비의 고장에 의해서다. 기계설비의 안전운행을 기원하여 생업의 풍요를 바라는 의미에서 서귀포시 강정동에서는 비닐하우스 안에서 멧감제를 올렸다.

바나나 비닐 하우스의 전기모터가 고장나서 멧감코스를 지내고 나니 기계가 잘 돌아가게 되어 바나나 농사가 잘 되었다. 이러한 연유에 택일하여, 하우스 속 깨끗한 곳에서 메1, 갱1, 고기, 과일, 떡 등을 올려 멧감제를 한다. 멧감제 형식은 아들이 축문을 읽는 독경식으로 지낸다.⁷²⁾

70)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안터면 창천리 학술조사」, 『국문학보』4집,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72, 167쪽.

7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제주도부락지(II)』, 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 1990, 394쪽.

72)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서귀포시 강정동 학술조사」, 『국문학보』13집,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5,

(5) 멩감제 참여자의 범위

멩감제는 무속식 가정의례의 하나로 가족구성원이 모두 참여하였다. 그러나 산신멩감을 지낼 적에는 수렵은 남성들의 활동영역인 관계로 제의참여 또한 남성으로 제한하고 있는 사례가 있었다.

‘멩감고스’는 멩감에 대한 고사라는 말로서, ‘멩감’은 제주도 무속의 심방의 12분풀이 중의 하나인 ‘멩감본’속의 사냥꾼(수렵신)인 ‘송스만’을 가리키는 말이다. 밭에는 제석멩감, 산에는 산신멩감, 바다에는 요왕멩감이 있어 이 ‘멩감고사’는 산(山)으로 가서 제를 지내는 것으로, 3일전에 산에 올라가 정성하는데, 여자는 참여를 안한다. 췌자리 위에 제물을 설비하고, 심방이 절 삼 배 하고 비념을 한다. 비념을 국생기고(섬기고) 기원하고, 멩감본 풀고 기원한 다음 본주 잔 드리고 절 삼 배 하고 소지(백지) 불사르고 산 받고(점치고) 절 삼배 드리고 절명해서 제는 끝난다.⁷³⁾

한편 1999년 대정읍 상·하모리 학술조사보고서에는 남녀의 구분을 가리지 않고 있다.

목축과 수렵의 풍요를 비는 것으로 여자, 남자 가리지 않았다. 묘지나 산이 없는 트인 데서 하는데 여기서는 산방산 앞에서 정월이나 3월에 하였다. 제물로는 백설기, 매 3그릇을 올렸다.⁷⁴⁾

기존의 마을조사 자료를 통하여 멩감제가 제주 전역에서 행해져 온 것을 알 수 있었다. 1970년대 이후 정부의 미신타파 정책으로 인하여 많이 소멸되었고 최근에는 전승이 끊겨 사라진 마을이 많았다. 멩감제는 신년에 정기적으로 하는 무속 의례였다가 사회의식의 변화,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축을 읽는 독경식으로 변모되었음이 여러 마을사례에서 보였다. 멩감제의 기원 내용은 첫째로 생업의 풍요를 기원하는 것, 둘째로 가정의 평안이었다. 멩감제의 제장은 야외인 들이나 산에서 지냈지만 생업의 변화로 인해 비닐하우스 안에서도 지냈다. 멩감제는 가족구성원이 참여하는 의례로 남녀 구분이 없었으나 멩감신이 산신멩감일 경우에는 남성들만 참여하는 사례도 있었다. 멩감제의 참여 범위에는 가족구성원 이외에 친족도 참여할 수 있는데 기존조사보고서에는 기술되어 있지 않아 유추하기

321쪽.

73)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제주도편)』,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74, 323쪽.

74) 백록어문학회, 『대정읍 상·하모리 학술조사보고』, 『백록어문』15집, 1999, 333쪽.

가 어렵다.

2) 와산리

멥감제는 신년제로 생업의 풍요와 가정의 평안을 위해 제주도 전역에서 전승했던 의례이다. 멥감제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전승과 소멸의 양상을 거치고 있는데, 와산리에서는 원주민 31가구 가운데 8가구가 전승하고 있다. 멥감제는 가구의 상황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가구별 양상은 개별 면담을 통해 작성하였다. 면담을 통한 멥감제의 양상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 8>과 같다.

<표 8> 와산리 멥감제의 양상

분류 가구	드르멥감제 의례장소	칠성제	문전	조왕	안칠성	뱃칠성	삼승 할망	조상 영가	주기	심방
1	과수원 창고		○	○	○	○	○	○	매년	김윤수 이용옥
2	과수원 창고		○	○	○		○	○	3년	김윤수 이용옥
3	거실	○	○	○	○		○	○	매년	김윤수 이용옥
4	거실	○	○	○	○	○	○		매년	양춘일
5	거실	○	○	○	○	○	○	○	매년	양춘일
6	과수원 창고		○	○	○		○		3년	양춘일
7	거실		○	○	○		○		매년	양춘일
8	거실	○	○	○	○		○	○	매년	김순아

(1) 시기와 주기

멥감제의 시기는 대부분 묵은 해 철학관에서 택일을 하여 신년 초에 한다. 주기는 매년 1회씩 하기도 하고 3년에 1회씩 하기도 한다. 가구 2와 가구 6에서는 3년에 1회씩 하고 있다.

(2) 형식

원주민 31가구 가운데 무속의례로 하는 가구는 위의 표에 제시되어 있는 8가구이다. 원주민 가구 가운데 3가구는 다른 종교의례 형식으로 대체되었지만 무속식의례가 아닌 관계로 표에서 제외되었다. 3가구 중 한 가구는 의례준비 절차의 번거로움으로 인하여 수운교 교당에서 가정의 안택을 지내는 안택곳의 성격으로 변모하였다. 나머지 두 가구는 집 안에서 토신제로 지내고 있다. 토신제로 지내는 두 가구 가운데 한 가구는 스님을 빌어 불교식으로 3년에 1회씩 지내고 있다. 나머지 한 가구는 가장이 직접 유교식 축문을 익혀서 지내고 있다.

(3) 내용

멥감제는 신년제로 다른 가신의례와 함께 지내는 데 가구마다 의례에 청하는 신격이 다르다. 주로 <드르멥감 + 문전철갈이>로 구성되면서 칠원성군이 추가되어 <드르멥감 + 문전철갈이 + 칠원성군>로 나타나고 있다.

<드르멥감 + 문전철갈이>만 지내는 가구는 가구1·2·6·7이다. 생업의 풍요를 위하여 멥감신에게 기원을 한 뒤에 집 안에 좌정한 가신들에게 한 해의 무사안녕을 기원한다. 드르멥감 의례장소가 과수원창고인 가구1·2·6은 집 밖의 과수원창고에서 드르멥감을 지낸 뒤에 집에 와서 문전철갈이를 별도로 지낸다. 드르멥감을 집에서 지내는 가구2·7은 거실에서 초감제를 지낸 뒤에 멥감신을 위한 의례를 한다.

<드르멥감 + 문전철갈이 + 칠성제>를 지내는 가구는 가구3·4·5·8이다. 칠원성군에게 자식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의례는 칠성제라 한다. 와산리는 칠성제 비율이 높은 편인데 칠성제는 가장(家長)이나 아들 중에 '칠성에 태운 사람'이 있는 경우에 한다.⁷⁵⁾ 초감제를 한 뒤에 멥감신-칠성제-문전철갈이 순서로 의례를

진행한다.

문전철같이 또한 가구별 상황에 따라 밧칠성과 조상영가에 있어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밧칠성에 대한 의례는 집안 대대로 전승되어 왔거나 새로이 이사 간 집에 밧칠성이 있는 경우에 모신다. 조상영가는 ‘가구 4·6·7’은 모시지 않는데 동일 심방이 의례를 주관하지만 가구의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제장

멥감제의 제장은 멥감터라 한다. 멥감터는 마을에서 지정한 공간이 있어 공동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가구마다 별도의 멥감터를 마련해서 단독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와산리의 멥감터는 드르이었다. 숲 안의 조용하고 깨끗한 지경에 돌로 된 제단이 놓여있었다. 야외의 생업의 공간에 있었던 멥감터는 도로개발과 과수원의 확산으로 인해 소실되고 각 가정의 과수원 창고 안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현재는 가구1·2·6을 제외하고는 집 안의 거실에서 지내는 데 과수원 창고에서 다시 집 안의 거실로 멥감터가 바뀌었다.

(5) 참여자 범위

멥감제의 참여자 범위는 성씨별로 차이가 있다. 본가름의 고씨와 양씨인 경우에는 일가방상 뿐만 아니라 사돈 관계에서도 의례에 참여하였다. 한씨인 경우는 나중에 본가름으로 이주한 뒤에 한씨 일가 중 일부만 멥감제를 생성하였기 때문에 참여하는 범위가 고씨와 양씨에 비해 적다. 단, 멥감터가 곳안에 있었을 때에는 남자들만 참여하였고 여성들은 집 안에서 문전철같이 의례준비를 하였다. 현재는 멥감제를 집 안에서 지내거나 과수원창고 안에서 지내기 때문에 남녀의 구분은 하지 않는다.

75) ‘칠성에 태운 사람’은 철학관 등에서 사주를 볼 적에 알 수 있는데 북두칠성신의 수호를 타고 난 사람을 가리킨다.

2. 와산리 멩감제 전승과 변화 양상

의례는 쉽게 만들어지지도 않지만 또한 쉽게 사라지지도 않는다. 무속 신앙에 기반을 둔 의례는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지속되어 왔으며, 멩감제와 같이 세시풍속의례로 자리를 잡을 경우 강한 생명력을 갖게 된다. 전근대사회에서 생겨난 멩감제는 근대로 들어오면서 사회변동의 영향을 받으면서 지속과 중단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의례를 주관하는 심방과 신앙민 모두 사회 변동의 영향을 받으며 상호 작용을 하고 있다.

멩감제의 지속 및 생성 현상에는 조상신 숭배 전통, 제약초복 신앙, 경제력 및 사회적인 위상 등의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한 가정의 종교사와 신앙이 의례를 지속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또한 공동체 내에서의 경제적, 사회적 위상이 의례의 지속에도 영향을 미친다. 의례가 중단되는 요인으로는 종교와 신앙의 세대 전승 단절, 농촌공동체의 해체, 경제적 부담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의례의 전승과 중단에 영향을 끼친 주요 외적 변수로 4·3과 농업 생산 환경이 일정하게 작용을 하였으며, 내적 변수로 가정의 전통 및 신앙과 경제력이 의례에 영향을 행사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또한 의례를 구성하는 요인들 제장 및 제물의 변화 양상도 함께 고찰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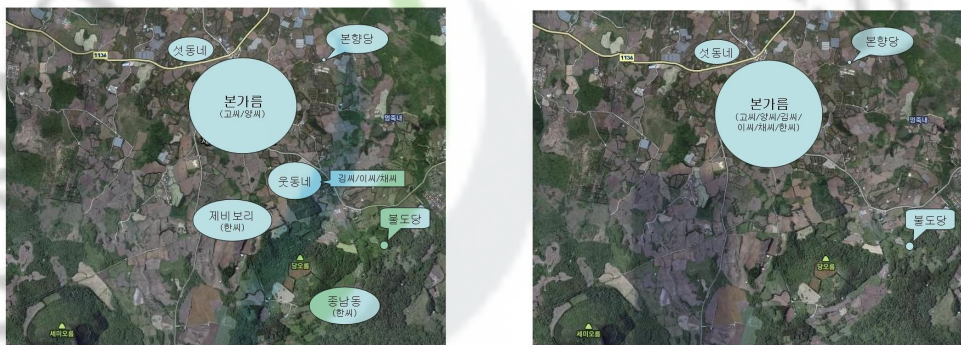
근대에 들어오면서 와산리 지역에 영향을 끼친 요인은 4·3과 농업 생산 환경의 변화이다. 4·3으로 인해 웃가름 지역에 거주하던 가구들이 사라지고 본동네로 병합되거나 인구의 유출이 일어나는 사회변화가 일어났다. 1960년 중반부터 시작된 비료와 농기구의 기계화는 와산리의 생산구조를 변화시켰다. 선진화된 농기계의 도입은 농업과 축산에서 대량 생산 체제를 낳았으며, 선진화된 영농 지식의 도입으로 감귤을 비롯한 상업적 농업이 발달하게 되었다.

4·3 이전의 와산리는 지금의 선인군도를 중심으로 아래 지역은 본가름, 위에는 웃가름으로 구성되었다. 본가름의 주요 성씨는 고씨와 양씨로 80가구가 있었고, 서쪽 지역의 첫동네에는 외지 출신 각성만이 4가구가 있었다. 웃가름에는 선인군도에 인접하여 웃동네가 있어 김씨와 이씨 등 6가구가 있었고, 당오름을 경계로 북쪽의 제비보리에는 한씨 5가구, 남쪽의 중남동에는 한씨와 양씨 등 12가

구가 있었다. 4·3 이후 옷가름의 가구들은 본가름으로 이주하거나 타지로 이주하였다.

4·3 이후 와산리의 인구 이동은 두 차례 발생했는데, 첫 번째는 1960년대 초 마을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하여 제주시내로 이주한 것이며, 두 번째는 1980년대 초 감귤재배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윤택해진 가구들이 자녀의 교육을 위하여 제주시내로 이주한 것이다. 현재 와산리는 본가름을 중심으로 양씨, 한씨, 고씨, 채씨, 이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2> 4·3 전후 마을구성과 주요 성씨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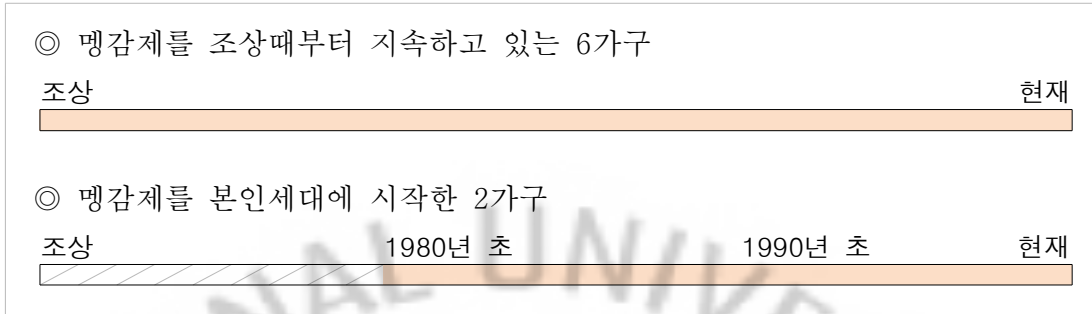
<4·3 이전>

<4·3 이후>

1) 전승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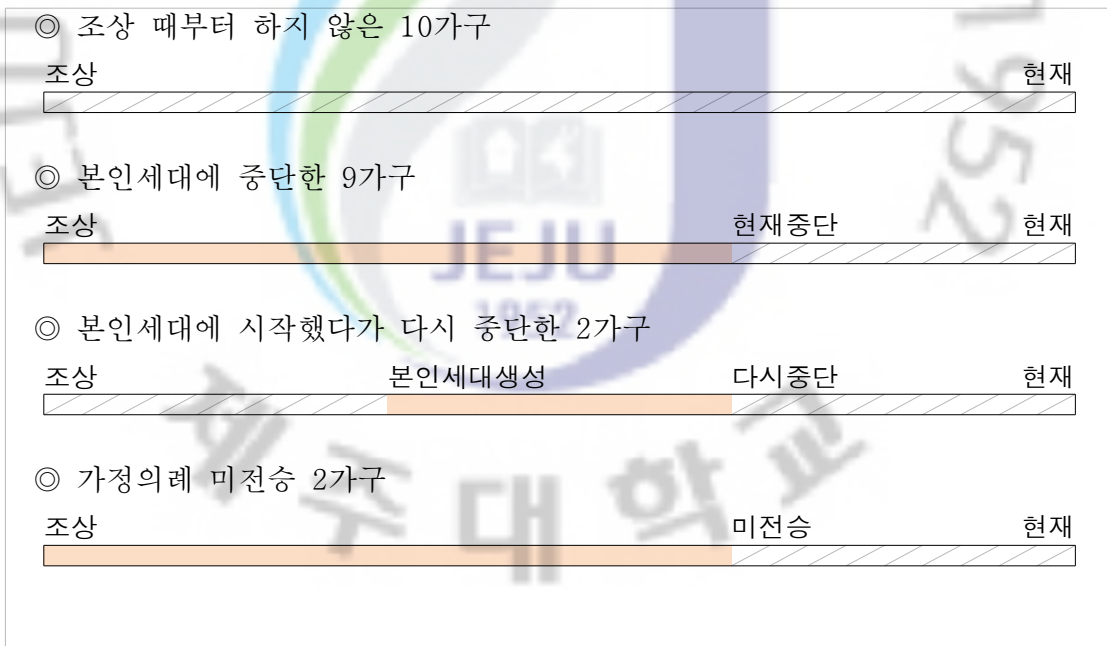
2009년 현재 와산리에 거주하고 있는 원주민 가구는 31가구로 모두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멩감제 전승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멩감제가 언제부터, 무엇을 위하여, 어떤 양상으로 전승되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멩감제를 현재 지속하고 있는 가구는 8가구이고 하지 않는 가구는 23가구이다. 멩감제를 하고 있는 8가구 중 6가구는 조상 대대로 전승해 왔으며, 2가구는 본인 세대부터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정리하면 <그림 3>로 나타낼 수 있는데, 조상 대대로 행하고 있는 가구 외에, 본인 세대부터 시작한 가구는 1980년대 초반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지속하고 있다.

<그림 3> 멍감제를 하고 있는 8가구



멍감제를 하지 않는 23가구는 <그림 4>와 같이 정리할 수 있는데, 10가구는 조상 때부터 하지 않았고, 9가구는 과거에는 했었지만 현재 중단한 경우이다. 나머지 4가구 가운데 2가구는 조상 때에는 하지 않다가 본인세대에 시작한 후 다시 중단하고 있는 경우이며, 나머지는 2가구는 가정의례가 전승되지 않아 멍감제를 하고 있지 않다.

<그림 4> 멍감제를 하지 않는 23가구



(1) 멍감제를 하고 있는 경우

멍감제를 지속하고 있는 8가구의 현황은 아래의 <표 9>와 같다. 멍감제의 전승시기에 있어 차이가 있지만 멍감제의 목적과 양상은 비슷하다.

<표 9> 멩감제를 하고 있는 가구 현황

분류 가구번호	집안성씨	전승계기	농사규모	의례목적	종교	4·3이전 주거지
1	양씨	조상	밀감5천평, 콩3천평,참깨2천평,복분자1 천5백평	가족건강, 풍년기원	분향당	본가름
2	양씨	조상	밀감1만2천평, 콩3천평, 깨3천평,소10두	가족건강, 풍년기원	분향당	중남동
3	고씨	조상	밀감1만평, 콩8천평, 깨2천평	가족건강, 풍년기원	분향당	본가름
4	이씨	조상	밀감1만평, 콩3천평, 깨3천평, 소10두	가족건강, 풍년기원, 마소번성	분향당	웃동네
5	양씨	조상	깨2천평	가족건강, 풍년기원	분향당	본가름
6	고씨	조상	밀감5천평,	가족건강, 풍년기원	분향당	본가름
7	한씨	본인세대	밀감5천평	가족건강, 농사풍요	분향당	제비보리
8	한씨	본인세대	밀감5천평, 콩1만5천평, 깨1천평, 소16두, 말 10두	가족건강, 농사풍요, 마소번성	분향당	중남동

① 조상때부터 지속

와산리에서는 현재 8가구가 멩감제를 하고 있는데 모두 ‘멩감제는 모든 것을 다 잘되게 해주는 것’으로 관념하고 있다. 이 중에 6가구는 멩감제를 조상 대대로 전승하고 있는데 집안전통에 의해서이다. 6가구의 성씨는 양씨, 고씨, 이씨이다.

나 시집오난 시어머니가 햅서. 시어머니영 헨디 살당 시어머니 돌아가시난 나가 그테로 물려받앗주. 멩감터만 엔날 동박낭빋께 지경에서 허당 집안에서 지냄주. 방법은 엔날광 똑같이 헤여.⁷⁶⁾

위와 같이 멩감제는 기타 집안의례와 함께 계승되기도 하지만 반면에 결혼과 동시에 가정을 일구게 되면서 시부모의 권유로 시작하는 경우도 있다.

76) 와산리 주민 한○○씨 면담(2009. 9. 26. 자택)

우리 결혼행 한 삼년쯤 되난, 우리 큰 동서네도 허고 있는 디 우리 시아버지가 우리신디도 멩감제 허렌 시켜라게. 경행 ‘알앗수덴’허영 시작했주. 우리 친정어머니펜으로 이씨불도렌 헤영 일월조상도 잇고 허난, 조상 위하는 거난 잘 허민 집안 펜안 헤질거난, 군말엇이 해서. 경허당 남편 직장으로 시에 강 살명 두 집 살림 허명 살앗주게. 시에 강도 군찬이 성님(고군찬 심방) 빌영 멩감제는 꾸준히 헤나서. 새마을운동때 일거라, 굿 같은 거 못허게 헤나서. 우리 집인 파출서 옆쪽인디 남편이 공무원이라부난 못허게 행은에 몇 년 못헤신디 그땐 관음사도 가고 행 넘겼어. 경허당 지금까지 쪽 헬주게.⁷⁷⁾

친정과 시댁의 동일한 종교문화로 인해 멩감제 계승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고 지속적으로 전승해왔다. 그러나 시대 상황에 의해 멩감제를 못하게 되자 부득불 대체수단인 불교에 의탁하게 되었던 경우다. 이와 같이 시대적인 상황으로 인해 와산리 전체가 멩감제가 잠시 중단된 시기도 있었다.

우리 집인 ‘큰굿 허민 큰 발 사고, 죽은굿 허민 죽은 발 산다’ 라는 말이 전해져. 일제때 관에서 굿을 못허게 허여도 우리 아버지네는 멩감제 만큼은 헤나서. 멩감제는 큰 소리 내명 허는 굿이 아니라부난, 이녁 정성 잇이른 밤에 모르게 조용히 하면 되는거난. 이녁 초상(조상)위하는 건디, 하루 세끼 먹는 거 혼끼 굶으면 되는 거난. 엔날엔 굿 허는 디 경 돈도 하영 드는 것도 아니고, 못허는 사람들은 엇영 못하는 것이 아니라 먹음 엇이난 못하는 거주. 경허당 4·3 사태 때에는 함덕이영 대홀로 탱기당 보난 힐 수 엇이 못했고, 마을에 들어와서도 다들 굶어죽을 시절이난 형편이 어려워서 못하고, 한 삼사년 지남 정신 출려지난 허게 뱃주게.⁷⁸⁾

일제강점기에 풍속개량외 이유로 행정에서 당굿 금지, 구정(舊正) 금지 등의 전통문화에 대한 탄압이 있었다. 경찰국에서는 <무녀취체법규>를 제정하여 강력하게 무속신앙을 탄압하였고, 학무국에서는 신도정책을 펴나가 학생들에게 신사참배를 의무화시켰고, 사회과에서는 민속신앙을 미신으로 간주하는 사회교화운동을 전개했다. 집안의 신앙인 가신들의 신체를 수색하여 불사르고, 마을의 당집과 당나무를 훼손하여 마을제를 중단시켰다.⁷⁹⁾ 와산리 역시 일제강점기에 무속신앙이 탄압을 받아 당굿이 중지되고, 가정내의 큰굿 역시 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었다.

하지만 마을 주민들은 일제의 무속신앙 탄압에도 불구하고 멩감제 만은 꾸준

77) 와산리 주민 신○○씨 면담(2009. 8. 9. 자택)

78) 와산리 주민 고○○씨 면담(2009. 8. 6. 자택)

79)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편찬부, 1994, 738쪽.

히 지냈다고 한다. 그 이유는 세시풍속 성격을 띠는 가정신앙 의례는 명절 못지 않게 반드시 해야만 하는 조상 대대로 내려온 전통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4·3을 겪는 시기에는 주민들의 거주와 생존 자체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이어서 멩감제 역시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② 본인 세대에 시작

멩감제를 하고 있는 가구 중 2가구는 멩감제를 본인 세대에 시작한 경우이다. 두 가구의 멩감제 시작 계기는 동일하다. 아래는 1980년 초에 멩감제의 필요성을 느껴 심방과 상의한 뒤에 멩감제를 시작한 경우이다.

우리 증조부가 다섯 아들을 두었는데 선흥2리 지경의 정덕골에 살았다 하여. 그 중에 두 형제, 우리할아버지 허고 그 위의 성이 와산리로 왕 살았주. 와산 본가름이 아닌 옷가름에. 우리 할아버지는 제비보리에 살명 우리 아버지 성제들을 낳양 우리집이영 사촌들이 살았주. 그 윗할아버지는 중남동에 살았주. 제비보리에는 주로 한씨들이 많이 살았어. 2소장에 농사하고, 말 키우명 살았는데 4·3 사건 일어나난 집은 문 었어지고, 대흘 함바집에서 살다가 여기 알동네(와산리 본가름)에 살게 뻘주게. 제비보리 살적에는 멩감제 안 해신디, 대신에 우리 집안만 다니는 철산이도렌 허는디 산신당이 있어나서. 이디서 결혼 행 살명 농사도 하영 허게 되고, 아이들도 키 가고 하니까, 심방(양춘일)신디 의논하니까 심방이 멩감제 허렌 해가지고 삼년에 혼번씩 허는 거. 멩감제는 드르에 강 허지 않고 그냥 과수원 창고 안에서 멩감상 출령 해어. 멩감제 이제는 큰집이서나 오고, 형수나 오고, 며느리나 오고. 알아지민 가차운 친족이나 오고. 이녁집이 조으렌 허는 건디 동네 사람들이 안오지.⁸⁰⁾

위의 구술 내용을 살펴보면 멩감제를 하게 된 이유가 풍농을 기원하고, 자식들의 안녕을 빌기 위한 것이라 말하고 있다. 그런데 정월에 다른 안택곳이 있는 데 굳이 멩감제를 하게 된 이유는 심방의 권유 때문이다. 심방은 멩감제를 권유한 이유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밝혔다.

그 집인 소도 키우고 말도 키우난, 멩감허는 거. 농사도 하영 허고. 멩감은 첫째로 소, 말 키우고 농사도 많이 허고 하는 집이 정초에 일 년에 하는 일도 잘 되게 해주고, 아기들도 잘 되게 해 주렌 허는 거주.⁸¹⁾

멩감제를 시작한 나머지 한 가구는 멩감제를 매년 하는데 의례의 시작 계기는

80) 와산리 주민 한○○씨 면담(2009. 8. 19. 자택)

81) 심방 양춘일 면담(2009. 8. 30. 와산리 김귀례씨 자택)

위의 사례와 비슷하지만 1990년 초에 본인이 자발적으로 심방을 찾아가 멩감제를 시작하였다.

그냥 아이들 잘 되고, 농사 잘 되게 하고, 마소 키워부난 멩감제 해주게. 우리 시어머니네는 종남동에 살았다고 하는데 멩감제 같은 거는 안했고 당에도 안땡겨. 우리집이 아방이 싫어라 해도 나가 그냥 헤어. 시집와 보난 멩감제들 험시난 해주.⁸²⁾

본인 세대에 의례를 시작한 2가구는 다음과 같은 유사점이 있다. 첫째로 가족 전통의 산신신앙을 전승해온 점, 둘째로 4·3사건 이후에 와산리 본가림의 윗지경인 제비보리와 종남동에서 멩감제를 많이 하는 본동네로 이주한 점, 셋째로 본동네 이주 뒤 예전보다 농사짓는 규모가 늘어난 점 등이다. 의례가 생성되었다는 것은 해당 사회의 종교문화 안에서 의례가 지니는 위상이 크기 때문이다. 그 위상의 영향을 받아 멩감제에 대한 신뢰가 생성되고, 의례를 통하여 기원을 달성하려는 종교 의식이 전파된 것이다.

(2) 멩감제를 하지 않는 경우

와산리 지역에서 멩감제를 하지 않는 가구는 23가구이다. 이들 가구들을 유형별로 구분하면 조상 때부터 하지 않았던 가구, 최근에 중단한 가구, 본인 세대에 생성했다가 중단한 가구, 가정의례 미전승 가구로 나눌 수 있다. 또한 사회변동 요인도 멩감제를 중단시키는데 작용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유형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조상 때부터 하지 않았던 가구

조상 때부터 하지 않았던 가구는 10가구이다. 이들 가구의 현황은 아래의 <표 10>과 같다. 조상때부터 멩감제를 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속신앙이 아닌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경우와 또 하나는 멩감제를 준비하는데 많은 정성을 들여야 함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0> 멩감제를 조상 때부터 하지 않는 가구의 현황

82) 와산리 주민 정00씨 면담(2009. 8. 5. 와산리사무소)

분류 가구번호	집안 성씨	이유	중단시점	농사규모	종교	4·3이전 주거지
1	양씨	조상	조상	밀감 임대2천평	수운교	본가름
2	이씨	조상	조상	-	종교없음	웃동네
3	한씨	조상	조상	밀감 임대5천평	수운교	중남동
4	한씨	조상	조상	밀감5천평, 콩3천평, 소5두 말10두	종교없음	중남동
5	한씨	조상	조상	밀감1천평, 콩2천평	본향당	제비보리
6	김씨	조상	조상	밀감5천평, 콩5천평, 소5두	종교없음	본가름
7	한씨	조상	조상	깨1천평 산디1천평	종교없음	중남동
8	채씨	조상	조상	밀감3천평 콩3천평	종교없음	웃동네
9	채씨	조상	조상	밀감3천평 콩2천평 소10두 말5두	종교없음	웃동네
10	채씨	조상	조상	밀감3천평	종교없음	웃동네

먼저 윗대 조상들의 종교가 수운교, 유교 등이었으며, 멩감제와 같은 무속의례를 기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전통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다.

우리집인 할아버지 때부터 수운교 믿어부난 당에도 일절 안다니고 굿도 안하고 멩감제도 안헤여. 멩질은 허여도 문전도 안하고 안내도 안헤여.⁸³⁾

우리 친정 부친님은 제국시대에 구장만 헤영. 구학문이 뛰어난 어른이랏주. 생전에 “귀신은 얹전헌다. 밥 주렌 안헌다.”고 하셔여. 미신이렌 허영은에 멩감제나 굿 7뜯것은 안헛서. 시집와도 시집인 한집이라부난 그런거 일절 안헛시난 멩감제 허지 았앗고. 예전에는 불도당에 다녀나신디 안다니기 시작헌지가 한 오년이 되어. 아무것도 안믿영 신간 펜안헛 조야.⁸⁴⁾

83) 와산리 주민 양○○씨 면담(2009. 8. 2. 자택)

위와 같이 가정의 종교문화가 달라서 멧감제를 하지 않았다. 와산리에서 멧감제는 어느 가정에서나 보편적으로 했던 의례가 아니다. 멧감제의 전승 범위는 크게 선인군도를 중심으로 아래 지경인 와산리 본가름의 고씨와 양씨 집안에서 활발히 전승되었다. 본가름의 고씨와 양씨집안 가운데서도 특정 집안이 멧감제를 했는데, 특정 집안은 집안의 조상 가운데 사냥이나 목축으로 집안을 번성케 한 조상이나 그 조상이 섬겨왔던 산신멧감 신앙이 있는 집안이다. 이에 대해 와산리 주민들은 ‘멧감제는 집안으로 가기 때문이다’라고 동일하게 답변한다.

멧감제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고침과 양침은 가름 안에 살명 일월조상이 있어부난 하는 거주. 집안 대대로 안 할 수 엇이난 정성들여 하는 거고.⁸⁵⁾

위의 구술 자료에 의하면 멧감제는 특정 집안의 종교전통이 계승되어 후대에도 이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정 집안이라는 것은 원액이 된 ‘양씨아미’ 조상신을 말한다. ‘양씨아미’는 양씨 집안의 딸로서 신병에 걸리자 큰오빠의 구박으로 억울하게 죽은 처녀이다. 원액이 된 일월조상은 잘 모시지 않으면 해를 입히기 때문에 모신다는 것이다. ‘양씨아미’ 조상신은 양씨 집안의 딸이 시집가게 되면 시댁의 종교문화에 따라 모시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다. 와산리에서 양씨집안과 혼인으로 맺어진 성씨는 고씨, 한씨, 이씨 등이다. 이 중에 한씨는 4·3 이전에는 제비보리와 종남동에 거주하면서 산신당에는 다녔지만 개별적으로 무속의례는 하지 않았다. 한씨의 사례를 통해 볼 때 일월조상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멧감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집안의 종교문화에 따라 좌우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이유는 멧감제를 준비하는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과 노력이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마치 제사 준비를 하듯이 이웃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였는데 그 비용과 노력이 만만치 않았다. 조상 때부터 멧감제를 하지 않았던 이유로 가정의 경제적 상황을 들 수 있다. 한 세대 위인 1950년대의 경제 사정을 마을주민 가운데 고령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유추해 보면 자금자족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을

84) 와산리 주민 고○○씨 면담(2009. 8. 9. 자택)

85) 와산리 주민 부○○씨 면담(2009. 9. 26. 자택)

알 수 있다. 다음은 종남동, 제비보리, 본가름의 경제상황에 대한 면담 자료이다.

4·3전 농사는 피, 조 밖에 없었어. 보리도 안 되고. 종남밭 사람들은 피, 조 농사 지으면서 살았는데 농사 지어 먹고 살기 힘들어서 한해 농사지어서 못 살았어. 소 말 키우는 사람은 많이 키웠지만 소는 이년 말 가는 한두 마리 잇었고 말은 잇는 사람만 잇었고. 피 조를 같이 섞어서 농사를 지었거든. 2소장에 가서 농사짓고. 일 년 그걸로 먹고 살기가 힘들다고. 숯장수가 잇었어. 그걸로 생활유지를 했는디. 산에 가서 마 파먹기, 사농정도, 평하고 노리주. 4·3전에는 노리하고 썰이 힘들어서. 그것을 주식으로 해서 먹고 그 때는 사농을 해도 그것을 주식으로 했지. 팔기는 힘들어.⁸⁶⁾ (종남동에 대한 구술)

2소장에서 농사 지으멍 살아신디 먹고 살기위해 농사 지었주. 보리는 안되고. 팔, 피, 모밀, 산디었주. 소는 밭 갈젠 허민 잇어야 되고. 말을 키워야 부체렌 했주. 말은 그당시 주로 운송용 사용할때난. 우리 백부님도 하영 키워신디. 이젠 여기 안 살아부난. 제비보리니 종남동이니 본가름이니 사는건 다 똑ㄹ타. 비료 나왕 유채갈고 보리 허게되면서 돈을 만지게 났주. 그 전에는 말 키우는 집 아니든 똑ㄹ타.⁸⁷⁾ (제비보리에 대한 구술)

생업이 주로 농사주, 말이 아니고, 말 잇는 사람은 몇 서너집, 그 집인 다 문딱 멩감제 허여. 말 대여섯 필은 잇어도, 그 때는 말을 잡아먹는 게 아니고 말테가 잇영 운송용으로 좋은 말은 사 가고, 그때 당시 생업 잇는 것은 농사, 겨울에는 주로 사냥, 우리집 같은 데는 그런 것도 안 하고, 겨울에 농사가 끝나면 그냥 집에 앉아서 화로불 쪼기나 하고. 주로 위식을 잇는 것은 고구마, 그것도 농사가 잘 될 때 콩으로 죽 썬서, 콩에다 나물을 많이 놔 가지고, 콩도 그때는 귀해서 콩을 갈아서 고구마 놓고 나물 많이 놔서 그렇게 먹어 났는디. 어려운 생활하다가 4·3사건 생긴난 그때는 무법천지난 산에 가서 숯을 구웠다고, 저 산이 벌거숭이가 되었어. 그 숯을 구워서 걸영 시에 강 팔고 해서.⁸⁸⁾ (본가름에 대한 구술)

1950년대를 전후한 와산리의 경제상황을 요약하면, 주로 조, 피, 팔, 메밀 등 잡곡류를 경작하여 생계형 농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목축을 병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리 농사는 본가름 가운데서도 선흥1리 가까운 지경에서 겨우 경작되었다. 겨울철에는 사냥을 하여 끼니를 해결하였고 숯을 구워 팔기도 하였다. 와산리에서 ‘부제’라고 하는 가구를 제외하면 나머지 가구들의 경제사정은 비슷하며, 이들 가구에서는 멩감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와산리에서 ‘부제(부자)’라 하면 말을 많이 키우는 집을 가리키는 데 4가구가 있었다. 이 가운데 3가구의 후손은 와산리에 거주하면서 멩감제를 하고 있고 경제형편도 우수한 편이다. 따라서 멩감제와 가정의 경제력은 일정한 상관관계를

86) 와산리 주민 양○○씨 면담(2009. 8. 12. 자택)

87) 와산리 주민 한○○씨 면담(2009. 8. 19. 자택)

88) 와산리 주민 이○○씨 면담(2009. 8. 15. 자택)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즉, 경제력이 있는 가정에서 멍감제를 전승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멍감제 중단 가구

현재 멍감제를 하지 않는 23가구 중에 조상 때부터 해오다가 본인 세대에 의례를 중단한 가구는 9가구이다. 이들 가구의 현황은 <표 11>과 같다.

<표 11> 멍감제 중단 가구

분류 가구	집안 성씨	중단원인	시점	농사규모	종교	4.3이전 주거지
1	양씨	농사의 감소와 자녀들의 반대	1999년	밀감5천평	본향당	중남동
2	양씨	시내 이주	1980년 중반	밀감5천평	본향당· 불교	중남동
3	양씨	의례준비의 번거로움	1998년	밀감1만평, 깨1천평, 소10두	본향당· 수운교	본가름
4	고씨	토신제로 대체	2000년	밀감5천평 콩3천평	본향당· 수운교	본가름
5	고씨	주부 건강 악화	2006년	밀감1만평	본향당	본가름
6	양씨	부인사망	2004년	밀감3천평 콩3천평	종교없음	중남동
7	양씨	고령으로 자녀에게 승계	1979년	무업(無業)	본향당· 수운교	본가름
8	고씨	고령으로 자녀에게 승계	1980년	깨1천평 산뒤편1천평	불교	본가름
9	고씨	장애	분가 이후	밀감3천평	종교없음	본가름

멍감제를 중단한 이유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중단 요인별로 구분하면 <표 12>와 같다.

<표 12> 멍감제 중단 이유

구분	(가)	(나)	(다)	(라)	(마)	(바)
중단 이유	의례의 불필요	의례준비 절차의 번거로움	다른 종교의례로 대체	부인의 부재	고령으로 인한 자녀 승계	장애
가구수	2	1	1	2	2	1

(가)유형은 의례의 불필요성으로 인해 중단된 경우로서 2가구가 있는데 의례를 중단하게 된 시기가 각각 다르다. 한 가구는 결혼한 이후 부모님 권유로 30년간 멩감제를 하다가 1999년에 의례를 중단하였다. 그 때 전후로 농사의 규모도 줄었고, 의례에 대한 자녀들의 불만도 있어서 중단하게 되었다고 한다. 다른 가구는 결혼해서 시부모님의 권유로 멩감제를 하다가 제주시 이주 후 남의 집을 임대해 살면서 의례를 그만 두었다. 다시 와산으로 귀향해서도 의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하지 않고 있다.

한 가구의 중단 원인은 “농사가 줄어들고, 아이들이 반대해서”이다. 영농 기술이 미흡했던 시절에 밭농사의 수확은 예측할 수가 없었다. 달리 방법이 없어 조상대대로 살아왔던 삶의 방법인 전통신앙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과학의 발달로 인하여 농사가 예측 가능해졌고, 근대화 교육으로 인해 사회의식이 바뀌었으며, 한결 편해진 농사 등으로 인한 삶의 변화는 조상들의 방법이 필요하지 않게 된 것으로 보인다.

다른 가구의 중단 요인은 집주인의 눈치 때문이다. 와산리에서 집단적인 인구 유출은 두 차례 있었다. 첫 번째는 1960년대로 부두항만공사가 한창일 때 일자리를 구하려 젊은 세대의 절반이 제주시내로 이주하였다. 두 번째는 감귤농사의 수입이 최고조를 달하였던 1980년대 중반에 자녀들의 교육을 위하여 제주시로 이주하였다.⁸⁹⁾ 제보자는 두 번째 시기에 제주시내로 이사를 갔다. 이사를 간 몇 년은 당장 집을 장만할 수가 없어서 남의 집에 살면서 의례를 중단하게 된 것이다. 전통시대의 생활양식은 공동체의 문화, 전통의 문화를 지속시킬 수 있지만 달라진 도시의 주거환경, 생활양식으로 인해 의례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89) 와산리 주민, 양호범씨 면담.

(나)유형의 가구는 멩감제의 제물 준비가 번거로워 10년 전 부터 사찰(수운교 교당)에 맡겨서 하고 있다. 멩감제에 소요되는 제물 중에 가장 번거로운 것은 떡을 만드는 것이다. 산메, 보시기메 종류의 떡은 대신 맡길 수 없고 직접 장만해야 되고 시간이 많이 걸려 준비하는 데 힘들다. 사찰에 맡기면 비용은 비슷하게 소요되지만 의례의 모든 준비를 사찰에서 해주고 본주는 제일에 참석해서 정성만 들이면 되니 간편하다고 한다.

멩감제에 소요되는 제물은 집에서 직접 준비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정성을 들이기 위해서이지만 다른 이유는 달리 제물을 마련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와산리 가정에서 제사나 명절에 쓰일 떡들은 떡집에서 사오면 된다. 하지만 멩감제에 소요되는 떡들은 시장에서 팔지 않기 때문에 집에서 일일이 만들어야 한다. 멩감제의 제물은 앞의 '제물준비' 항목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른 새벽부터 시작해야 된다. 또한 '남의 도움을 받으면 안된다' 라는 정성주의로 인해 젊은 세대로부터의 외면당하는 면도 있다.

(다)유형은 멩감제를 중단하고 다른 종교의례로 대체한 경우로서 멩감제를 중단하고 3년마다 스님을 빌어 토신제를 지내고 있다. 앞에서 제주지역의 마을조사 보고서를 통해 살펴보았듯이 다른 지역에서는 1970년대부터 멩감제를 지내는 형식이 유교와 불교식으로 대체되기 시작하였다. 다른 종교문화의 수용으로 인해 의례의 본질과 형식이 바뀐 사례이다.

(라)유형은 부인의 사망이나 건강 악화로 인한 의례 주관자의 부재로 인한 경우이다. 한 가구는 결혼해서 집안의 전통으로 50년간 멩감제를 지속해왔는데, 3년 전에 부인이 암에 걸려 건강이 악화되자 '정성이 부족하면 큰 죄가 된다'는 생각에 멩감제를 중단하였다. 출가한 딸들과 미혼인 아들을 두고 있는데 출가한 딸은 남의 가문이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없어 부득불 의례를 포기한 상황이다. 다른 가구부인의 사망으로 인해 멩감제가 중단되었다. 멩감제 뿐만 아니라 분향당곳에도 참여하지 않게 되었다. 멩감제의 지속여부는 부인의 건강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멩감제의 준비 절차는 번거롭다. 의례 전부터 시작되는 금기사항과 제물 준비는 건강한 육체와 정신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부담이 제물을 준비하는 여성들에게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마)유형은 집안의례가 아들 세대에게 전승된 경우이다. 남편 사망 후에도 꾸

준히 멩감제를 하다가 고령으로 아들에게 집안 의례가 전승되면서 와산리 지역에서만 중단된 경우이다.⁹⁰⁾ 반면에 다른 가구는 아들세대가 지속하였는데 제주시로 이사 가면서 의례가 중단된 경우이다.

(바)의 유형은 장애가 있는 가구이다. 집안 대대로 멩감제를 지속하여 왔지만 장애가 있어 본인세대에는 멩감제가 중단되었다. 대신에 큰집 조카 집에서 하는 멩감제에는 참석하고 있다.

③ 본인 세대에 시작했다가 다시 중단

집안에서 멩감제를 하지 않았다가 본인 세대에 시작했다가 중단한 2 가구가 있다. 이OO씨는 멩감제는 ‘조상에서 하면 하는 것이고 안 했으면 안 한다’는 관념으로 인해 멩감제를 하지 않았는데, 결혼 이후 부인의 종교문화 영향을 받아서 시작했다가 현재 중단한 사례이다.

우리 할아버지가 제주 향교에서 다니면서 공부를 했다고 해. 우리 아버지 형제간은 저래 명도암에 한문 공부하러 다녔대. 그래서 집안에 일절 곳 7튼 것은 안 했어, 그러다가 저 사람(부인)이 시집 와서 하게 냈주. 직장 관계로 시에 강 살아도 멩감도 하고, 칠성제도 하고. 우리 처갓집인 그런거 하영 허는 집이라. 집안에 일월조상이 있다고 해서 아주 열심히 허는 집이야. 우리집 부인이 하도 아파서 어디 강 물으난 절에 가서 정성 드리렌 허난 절에서 하는 행사 참석하다 보니 자동적으로 멩감제 안 하게 냈주. 절에선 ‘산신기도’라고 있는데 그게 멩감하고 비슷한거주. 그러다 와산에 다시 돌아와서 내가 철학관 가서 토신제 하는 방법 배워가지고 제를 지내.⁹¹⁾

제보자의 처갓집은 일월조상을 정성껏 섬기고 멩감제를 비롯하여 각종 무속의례를 했었다. 무속문화가 강한 종교문화에서 성장한 부인이 시집와서 제보자와 상의하여 멩감제를 지내게 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종교인 불교를 수용하면서 멩감제를 중단하였다. 위와 같이 친정에서 형성된 종교문화가 아니더라도 멩감제의 필요성에 의해서 시작했다가 세대전승의 실패로 중단된 경우도 있다.

친정광 시집인 원래 멩감제 안해신디 결혼해서 살다 보니 농사도 하영허게 되고, 아이들도 커 가서 심방하고 의논하난 멩감제 하고 칠성제 하고 했주. 경허당 아방 죽고 집안의 멩질이 영 식계영 아들신디 물려줘부난, 아들신디 허렌 허난 안 허켄 허영 안 햐주. 그냥 며느리가

90) 아들은 제주시에 거주하면서 양춘일 심방을 청해 멩감제를 지속하고 있다.

91) 와산리 주민 이OO씨 면담(2009. 8. 15. 자택)

절에 강 허켄 헬서.⁹²⁾

가장(家長)의 타계로 집안의 모든 의례가 아들세대에게 전승되었는데, 아들에게 멩감제 계승을 권유했지만 아들의 종교관으로 인하여 멩감제가 소멸된 사례이다. 위의 제보자의 의례시작 계기는 앞의 사례들과 유사하다. 산신을 신앙했던 종교문화권에서 생업의 수호신을 산신으로 선택한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아들 세대로 바뀌면서 종교문화는 다양성을 띠게 된다. 제물 준비와 절차의 번거로움, 금기의 엄숙함을 지니고 있는 멩감제의 특성은 젊은 세대에게 전승되는데 부정적인 영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④ 가정의례의 미전승

가정의례의 미전승으로 멩감제를 하고 있지 않은 가구는 2가구이다. 이들 가구는 장남으로 부모세대의 의례를 계승하게 된다. 1가구는 부모 가구에서 멩감제를 가족 전통의례로 지속하고 있는데 이후 전승의 지속여부는 미지수이다. 나머지 1가구는 부모 가구에서 수운교 의례로 멩감제를 대신하고 있는데 부모세대의 양상으로 계승할 예정이다.

2) 변화 양상

멩감제와 같은 세시의례는 시대의 문화 상황을 수용하여 변화를 거치면서 전승된다. 급속히 변화되는 경우와 서서히 변화되는 양상을 볼 수 있는데, 양자 모두 외적 요인, 즉 정책의 전환이나 경제상황의 급변, 급격한 사회 변동을 야기하는 역사적인 사건, 천재지변이나 자연환경의 급변 등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이와 같은 외적 요인으로만 파악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외부로부터의 각종 도전에 대해 종속적이며 소극적으로만 대처해 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외부의 반응을 불안해하기 보다는 전통의 반복을 통해 안정을 지속시키려는 인식과 종교 심리가 멩감제를 전승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조상 때부터 해 와서 그래왔다’는 신앙민들의 생각과 생활 전통이 무속의례를 유지하고 계승시키는 원동력

92) 와산리 주민 채○○씨 면담(2009. 8. 12. 자택)

이 되고 있다.

와산리 멩감제는 제장, 제물, 참여자의 범위 등이 변화를 보이고 있다. 멩감제 형태의 변화양상과 원인을 살펴봄으로써 멩감제가 가정신앙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제장(祭場)의 변화

와산리 멩감제의 제장(祭場)은 야외였다. 예전에는 ‘곶’과 같이 나무가 우거지면서 조용하고 깨끗한 곳에서 지냈다. 와산리 주민들은 이러한 공간을 ‘드르’라고 부른다. 그래서 멩감제를 달리 ‘드르멩감’이라 부른다. ‘드르’는 제주어로 들판이라는 의미를 지니지만 중산간 지역의 사람들에게는 생업의 활동공간을 의미한다.

현재는 와산리 멩감제 제장은 곶에서 과수원창고로 바뀌었다. 곶과 같은 숲의 제장은 1980년대 중반 감귤작목이 활성화되면서 과수원 창고로 바뀌었다. 제장이 과수원 창고로 바뀐 이유는 다음과 같다.

원래는 토방머리에서 해냇주. 우리집인 당새미 옆에 있는 곶에다 산신제단을 만들어 놔. 넓이 60cm, 반 평 먼적 정도의 돌이 잇었주. 그 위에 새를 깔아놓고 자치(무명천)를 놓고 그 위에 제물을 놓주. 자리는 아무데나 허는 것이 아니라 이녁만씩 자리가 좋은 디 찾아야 헐다. 경하다 그 자리가 개인땅이어서 팔아부난, 그냥 이녁 과수원 창고에서 하게 되었주.⁹³⁾

멩감제는 위와 같이 집안 마다 별도로 지정된 공간에서 하기도 하지만 몇몇 사람이 공동으로 사용하기 하였다.

조롱이왓, 와산리 사무소 남쪽의 곶이라신디. 넓은 돌 헤영 놔 땡, 딴 사람들도 쓰당 땅이 팔리고 길 나면서 었어졌주. 그 후에 당새미 옆이 곶에 강 해서. 우리는 남 하는 디 강 2치 헤여.⁹⁴⁾

위와 같이 과거 멩감제의 제장은 곶과 같은 수풀이 우거진 곳이었다. 제장은 집안 편의상 여러 가구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단독으로 사용하기도 하여 마을에 여러 군데가 있었다. 제장의 형태는 돌로 된 제단이 있어 그 위에 제물을 진

93) 와산리 주민 고○○씨 면담(2009. 9. 26. 자택)

94) 와산리 주민 양○○씨 면담(2009. 9. 26. 자택)

설했었다. 제장터가 남의 소유라서 팔리는 바람에 부득불 과수원 창고로 변경되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과수원 창고에서 집안으로 다시 바뀌고 있다.

예전에는 동박낭빛계에서 멧감해나신디 팔려부난. 이녀집이 과수원 창고가 잇이난 그디 강해났주. 경허당 혼 해는 심방이 그디 가난 농약네 나고 깨끗하지 못하덴 행은에 집에서 하라고 해서 집에서 했주.⁹⁵⁾

멧감터가 과수원으로 옮기다 보니 인근 과수원의 농약냄새를 비롯 불결해서 심방의 권유에 의해 집안에서 지내게 되었다. 위의 정황들을 살펴보면 제장의 변화 계기는 도로개발이나 용지변경으로 인한 제장터의 손실 탓으로 보여진다. 제장터의 손실은 생업의 변화와 연관이 있다. 수렵과 목축의 공간이었던 곳이 감귤 농사의 공간으로 활용되면서 제장이 과수원 창고로 바뀐 것이다. 그런 뒤에 편의성을 쫓아 제장이 집안으로 바뀌고 있다.

(2) 제물의 변화

제물은 신에게 드리는 정성으로 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올린다. 신이 좋아하는 음식이란 그 문화에 있어서 가장 상품의 음식물로서 소중한 식품으로 간주되어 온 것임에 틀림없다. 그 식품은 그 문화의 생산 경제 형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이런 점에서 신들의 음식물인 제물이 문화와 연관되고 신들이 문화적 특성을 나타내는 근거가 된다. 신들의 제물은 인간의 음식물의 투영이고, 옛날의 귀중한 식료의 잔영이라고 보면, 제물은 고대적 생산 경제와 연관된다.⁹⁶⁾

와산리 지역의 멧감제는 ‘산신멧감’이다. 산신멧감은 산신 즉 산을 기반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재앙을 막아주고 복을 주는 신이다. 산신멧감은 산간 지역 문화의 영향에서 형성된 신격이다. 산신멧감에게 바쳐질 제물은 와산리의 원시 생업의 소산물이다. 제물은 보수성이 강한 관계로 오랜 세월이 흐르더라도 옛 문화의 관습이 남아있기 마련이다.

멧감제에서 제물의 특이성은 드르멧감에서 보인다. 드르멧감은 수렵의 수호신인 산신멧감을 위한 제의이므로 육류와 날채소를 올린다. 육류는 와산리의 주요

95) 와산리 주민 한○○씨 면담(2009. 9. 26. 자택)

96) 현용준, 앞의 책, 1986, 199쪽.

수렵 대상물인 노루와 꿩고기를 올린다. 초감제가 끝나면 제장에서 구워서 올렸다. 날채소는 익히지 않고 간단히 양념만 첨가한 상태로 올린다. 겨울이 되면 사냥을 하지 않던 가구라도 옛 관습대로 노루와 꿩 고기를 준비해두었다가 멧감상에 올렸지만 노루 사냥이 금지된 지금은 올리지 못하고 있다. 대신에 옥돔으로 대체하는데 제숙을 올리는 방법은 옛 관습 그대로 제장에서 구워서 올렸다. 그러다가 요즘은 집에서 익혀 가지만 옛날 관습을 따라서 불은 피우고 있다. 본주는 제물을 육류와 날채소로 올리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아마도 옛날에 할아버지네가 사냥(사냥)하면서 올려나부난 그 때문에 해 봐신타주. 우리집인 사냥 안 해부난, 고기가 잊어부난, 정월에 멧감제 허젠 허민 미리 구해 놔. 얼마 많이 필요한 거 아니 난. 그냥 손바닥만큼 썬. 경행 멧감터신디 강 제 보는 옆에서 구형 올린다. 이제 멧감할 때 과수원창고에 불 피우는 것이 그 때문이주. 요즘은 범으로 금해부난 옥돔으로 썬주. 날채소는 산신이라부난 경하는 거.⁹⁷⁾

반면에 여전히 노루와 꿩 고기를 올리는 가구도 있다.

우리 조상안터 바치는 건데 그대로 해야주.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미리미리 말해 놓으면 다 구해진다.⁹⁸⁾

위의 정황들로 볼 때 멧감제 제물의 변화는 생업의 변화이기보다는 외부의 사회적 압력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제물은 대체되더라도 관습은 계승하려는 내부의 노력이 보인다. 멧감제의 기능이 생업의 풍요를 기원하는 점에서 생업의 변화가 의례에 미친 영향은 당연히 있다. 그런데 생업의 양상이 과거 수렵과 목축을 거치면서 농업으로 바뀌었다 해도 과거 조상들이 섬겼던 생업신의 성격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것은 제의를 지속하는 후세들에게는 생업수호신의 성격보다는 조상의 풍습 그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조상들이 생업수호신에게 기원했던 전통이 현실에 살고 있는 후세들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기에 때문이다.

(3) 멧감제 참여자의 범위

멧감제를 경험했던 주민들은 멧감제를 유교식 의례인 명절과 제사처럼 생각하

97) 와산리 주민 고○○씨 면담(2009. 9. 26. 자택)

98) 와산리 주민 한○○씨 면담(2009. 8. 19. 자택)

고 있다. 한 가정의 안택곳으로 직계 가족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일가친척과 사돈, 가까운 이웃들도 참여하였다. 그러다가 1980년 후반부터 동네 어른들이 돌아다니면서 6촌 이내의 가까운 친족만 참여하고 있다.

엔날에는 보리밥 먹으멍 쌀메 놓고 제물 준비하젠 허든 보통일이 아니라. 멩감허젠 허민 집 안 방상에서 왕 저녁 먹고. 어머니 살앗일 적에 켜당들 다 와나신디 이젠 다 돌아가셔버렸어. 엔날엔 멩감 허젠 허민 문 옛 허여. 좁쌀 헤영 골감주 달영 옛 만들영 켜당들안테 돌렸어. 비단 일가방상이 아니라도 '수눔음' 하는 거추룩 우리집 멩감허민 오고, 그 집이 멩감허민 우리 어머니 가 보고. 이제는 죽은집 허고 오촌조케 오고. 경 행 우리식구들 뿐이주.⁹⁹⁾

위의 사례에서는 외가친척은 보이지 않는다. 와산리는 4·3 이후에 와산리 안에서만 혼인을 하였었다. 같은 마을내에서의 근거리혼으로 인해 친가로는 할아버지이지만 외가로는 이모부가 되는 가구가 많았다. 이런 혼인권으로 인해서 와산리에 친가와 외가가 함께 있어 마을에 살고 있는 외가 친척들도 멩감제에 참여하였다.

엔날엔 멩감허젠허민 그 어려왕은에 감저가투로 떡을 치어먹던 시절에도, 그 켜당들은 다 모여. 멩감날 반양 오민 보일 때 “언제 어느날 읍서.” 허멍 곱아. 그 돌레떡 물떡 만들젠허민, 그것들 모물외성 허고 허영 감저떡 하나하나 반 테우멍, 그 어려웠던 시절에도 살아신디. 우리 집이 현대 허민 외사촌이고 뭐고 할 거 엇이 왕으네 ㄷ치 혼디 떡 만들영 나뉘 먹고 허주게. 경행 그 집이 현대 허민 별일 잇어도 강 보주. 그디 강 안장 체시리 맛베기 주면 그거 맛 조아. 풀맛이주. 돌레떡 삶아 난 물에 배추 뜯어 낭 국으로 주민 어떻사 맛 조은지. 멩감제 끝날 때까지 빵 오는거라. 이제는 딱 이녁집만 허영 그 떡들도 지체 못허고 과일도 지체 못허여 허는디. 그때는 경 나뉘 먹으멍 살았어.¹⁰⁰⁾

멩감제 참여자의 범위가 축소된 것은 원로 세대들의 사망도 이유이지만, 현대에 들어와서 농촌 공동체문화의 해체도 또 다른 요인으로 생각할 수 있다. 현대에 들어와서 농촌공동체는 해체 과정을 겪고 있다. 인간의 생활은 경제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와산리의 생업은 수렵-축산-농업으로 변모하여 왔다. 수렵·축산·밭농사는 공동의 노동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생업이었다. 와산리에서는 수

99) 와산리 주민 부○○씨 면담(2009. 8. 26. 자택)
100) 와산리 주민 양○○씨 면담(2009. 8. 15. 자택)

놀음과 같은 노동조직이 있었다. 그러나 영농 수단의 기계화로 인하여 이러한 공동노동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졌다. 공동노동이 사라지면서 수놀음과 같은 조직도 사라지게 되고 노동을 할 때 피로를 달래주었던 노동요 또한 사라지게 되었다. 마을 주민들이 함께 할 시간과 공간이 사라지면서 정보공유는 물론 유대관계도 소홀해졌다.

달라진 농업 생산구조와 함께 1980년대에 들어와서 자녀 교육으로 인한 인구 유출로 인하여 공동체 문화의 해체가 가속화되었다. 1970년대부터 와산리 주민들은 유채와 밀감 재배로 인한 부를 축적하여 왔다. 환금작물의 도입은 부의 편차를 가져왔으며 비교적 잘 살고 있는 가구들은 자녀 교육을 위하여 제주시로 이주하였다. 거주권의 변화는 마을 안에서 대면했던 관계의 변화를 초래한다. 직접적인 대면보다는 간접적인 대면이 많아지게 되고 마을내 행사에도 소홀하게 된다. 마을의 정기총회나 경로잔치에서는 향우회 회장만 대표 성격으로 참석할 뿐이다.¹⁰¹⁾ 사회변동으로 인한 거주지 변화는 멍감제에도 영향을 미쳐 참여자의 범위를 축소하였다.

와산리 공동체문화의 해체는 공동체 의례인 당굿에서도 보인다. 와산리 불도당 굿에서 단골들은 ‘각산반음’의 제차만 끝나면 사라진다. 이어 진행되는 ‘산신놀이’에서는 마을 관계자만 남을 뿐이다. 산신놀이는 공동체의 놀이이면서 생업의 풍요를 추구하는 유감주술 성격이 강하다.

엔날 당굿은 참 재미있었어. 마지막에 산신놀이 하는데, 심방들이 득코(닭코) 꿩당오름으로 들으멍 어떻 재미났다고, 그때 서로 득간(닭간)을 사 먹젠 득투멍 해났다고, 근디 이제는 이녁 산 받아지민 집에 가기 바빠.¹⁰²⁾

놀이가 다양해진 현대의 대중문화로 인하여 오락에 대한 기대치가 감소했다고 보이지만 공동체의례에 대한 참여의식의 감소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

101) 와산리 마을회칙에 의하면 와산리에 주소를 두고있다 하더라도 와산리에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와산리 주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마을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102) 와산리 주민 한○○씨 면담(2009. 10. 10. 자택)

V. 멥감제 전승 요인과 의의

1. 멥감제 전승 요인

와산리 멥감제 전승 상황을 토대로 멥감제 전승요인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멥감제를 전승하고 있는 가구들은 두 가지 경우로 나뉜다. 가정의 종교 전통으로써 조상대대로 전승하고 있는 경우와 본인 세대에 새로 시작한 경우이다. 멥감제의 기능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경우 비슷하지만 의례를 하게 된 계기가 다르다. 전자의 경우는 멥감제는 집안의 전통으로써 반드시 행해야만 하는 의례로 여기고 있다. 후자의 경우는 농사의 풍요과 자녀의 무사 안녕을 위해 멥감제를 시작하였다. 멥감제라는 전통의례가 지속되고 생성되는 것은 멥감제가 와산리에서 차지하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이다.

와산리에서 멥감제를 지속하고 있는 가구주들의 연령이 고령이며, 또한 근대화 교육을 받지 못한 세대여서 학력과 의례의 상관관계는 없다고 하겠다. 원주민 가구들의 종교현황을 보면 무속신앙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불교와 수운교도 있으며, 종교가 없다고 대답한 경우도 있다. 이러한 현상을 가정의 종교전통 영향에서 살펴볼 수 있고 멥감제의 전승과도 연관 지을 수 있다. 경제력은 의례를 지속하기 위한 기반이자 목적이기도 하다. 멥감제는 생업의례로 경제력을 향상하기 위함이지만 의례를 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필요하다. 멥감제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른 무속의례에 비해서 적지만 유교식 의례에 비해서는 많이 소요된다. 특히 생계농업시대에서 멥감제와 같은 무속의례는 경제력이 밑받침이 되어야 존재할 수 있었다. 가구별 현재 농업규모와 과거의 농업규모를 살펴보면서 멥감제와의 연관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신앙 전통

멩감제를 조상대대로 지속하고 있는 가구들의 종교는 <표 9>에서 보이듯이 무속적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타종교의 습합이 전무하면서 무속의 일월조상을 섬기고 있는 신앙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일월조상을 섬기는 것은 무속의례의 보편된 현상이다. 그렇지만 집안에 일월조상이 있으면 의례를 지속적으로 전승하게 되고 새로이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멩감제에 불리는 조상신본풀이를 통해 본주댁의 특별한 신앙 전통을 살필 수 있고 집안의 생업과 관련 있는 생업조상을 파악할 수 있어 멩감제에 구연되는 조상신본풀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의례의 세부 내용은 본주보다는 심방이 자세히 알기에 심방을 통해서 구연되는 조상신본풀이 양상을 정리하였다. 아래의 표는 멩감제를 조상 대대로 전승하고 있는 6가구에 대한 현황이다.

<표 13> 조상신본풀이 구연 현황

가구 분류	1	2	3	4	5	6
주관 심방	고군찬- 대흘황심방- 양춘일	고군찬- 대흘황심방- 양춘일	고군찬- 김윤수· 이용옥	고군찬- 김순아	고군찬- 김윤수· 이용옥	고군찬- 김윤수· 이용옥
조상신 본풀이 종류	양씨아미	양씨아미	산신일월, 고전적, 이씨불도, 양씨아미, 양씨큰할머니, 고군찬심방	양씨아미	산신일월, 고전적, 이씨불도, 양씨아미, 양씨큰할머니	산신일월, 고전적, 이씨불도, 양씨아미, 양씨큰할머니

위의 표를 보면 가구마다 섬기고 있는 일월조상의 종류는 틀리지만 공통으로 전승되는 양씨아미 일월조상이 있다. 양씨 집안의 양씨아미는 혼인으로 전파되어

와산리 여러 가구에서 모시는 조상신이다. 조상신을 모시는 신앙은 혼인을 통해 전파되기도 한다. 양씨아미의 신앙이 혼인을 통해서 가구마다 공유하고 있다면 다른 조상신본풀이도 공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위의 표에는 김윤수·이용옥 심방이 주관하는 가구에서만 조상신본풀이의 종류가 다양하게 나타난다. 의례는 주관하는 심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차이에 대해 원인을 살펴 보아야 한다. 심방의 의례진행 방식은 학습에 의하기도 하고 스스로 익혀서 진행하기도 한다. 멩감제를 주관했던 심방들을 추적해 보면 현재 보이고 있는 의례의 차이에 대해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위의 표를 보면 과거 와산리의 멩감제는 고군찬 심방이 거의 주관했음을 알 수 있다. 고군찬 심방은 와산리 출신으로 1950년 후반부터 불도당의 메인심방이었고 당곳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개인무속의례도 도맡아 주관하였다. 1980년대 타계하면서 그의 수양아들 김윤수 심방 부부가 대를 잇고 있다. 김윤수 심방 부부의 멩감제 진행 방식은 어머니 고군찬 심방으로부터 전수된 것이다. 이들 심방이 주관하는 3가구의 의례양상은 고군찬 심방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50여 년간 지속되고 있다. 반면에 나머지 두 심방이 주관하는 3가구는 여러 번 멩감제 주관자가 바뀌었고 현재 멩감제를 주관하는 두 심방은 본인 스스로 익혀서 멩감제를 진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위의 가구 가운데 멩감제의 진행방식이 보다 고행적인 것은 김윤수·이용옥 심방이 주관하고 있는 가구들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이 주관하고 있는 가구3·5·6의 조상신본풀이 가운데 집안의 생업과 연관있는 조상신본풀이는 ‘산신일월’이다.

‘산신일월’은 조상 중에 축산으로 생업이 번창하였던 혈연의 조상이나 ‘산신일월’을 섬겼던 조상을 가리킨다. 조상신본풀이가 혈연으로 확산이 된다면 양씨아미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산신일월’의 본풀이 구연은 다른 조상신본풀이에 짧게 신명만 거닐며 언급할 뿐이어서 의례에 집중하여야만 들린다.¹⁰³⁾ 아울러 멩감제를 동일 심방이 오래 동안 지속하지 않고 여러 심방을 거치면서 전승된다면 심방의 특성상 ‘산신일월’과 같은 짧은 본풀이는 생략할 수도 있다. 와산리의 자연조건은 농사보다는 축산에 적합하다. 축산업이 가정경제에

103) 본주들은 원액이 깊은 일월조상에 대해서는 잘 기억하고 있다. 이를테면 고씨집은 이씨불도와 양씨아미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양씨집과 이씨집은 양씨아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미친 영향이 크다면 축산업의 번창을 위한 의례가 있기 마련이다. 그 의례가 전통의 방식인 멧감제라면 ‘산신일월’과 같은 조상신에 대한 의례는 반드시 있었을 것이다.

멧감제는 누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소·말 많이 키우는 집’에서 했던 의례이다. 이런 생업의 특징이 있는 멧감제는 산신멧감이라 한다. 산신멧감에 불리는 멧감본풀이의 전반부 내용은 ‘해골을 모셔 사냥으로 부자가 된 사만이’가 핵심을 이룬다. 사만이가 수렵의 신을 모셨던 신앙풍습이 멧감제의 근거를 제공한다. 그렇다면 조상신본풀이에 등장하는 산신일월과 멧감본풀이의 산신멧감은 신의 출처는 다르지만 산신과 관련 있는 조상신을 모시는 신앙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런 이유로 멧감제를 지속하고 있는 본주들에게 멧감제는 ‘조상을 위한다’는 관념으로 자리잡은 것이다.

멧감제를 본인세대에 새로 시작한 가구는 2가구이다. 이들 가구는 유사한 점이 있다. 첫째로 가족전통의 산신신앙을 전승해온 점, 둘째로 4·3사건 이후에 와산리 본가림의 윗지경인 제비보리와 중남동에서 멧감제를 많이 하는 본동네로 이주한 점이다. 산신신앙은 수렵과 관련 없이 집안의 종교전통으로 인하여 산신당에 다니는 것을 말한다. 이 두 가구는 한씨 집안으로 6촌 형제간이다. 한씨 집안은 철산이도에 있던 산신당을 마을에서 가까운 감낭밭으로 모셔왔다. 산신당은 수렵이나 목축을 관장하는 생업의 신격이다. 생업의 비중이 농업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현재에도 꾸준히 모시고 있다.

이들의 4·3 이전의 주거지는 본가림이 아닌 윗가림으로 와산리 정착은 100여년 밖에 되지 않는다. 와산리의 한씨 집안은 지금 가구주들의 할아버지 세대에 선흥2리에서 와산리의 윗가림으로 이주하여왔다. 본가림의 본향당에는 다니지 않았고 불도당은 일부만 다녔으며 산신당만 다녔다. 와산리 본가림과는 다른 종교문화를 지녀서 멧감제는 하지 않았다. 산신당이 멧감제와 비슷한 생업의 풍요를 기원하는 기능이 있었기 때문에 절차의 번거로움이 많은 멧감제를 굳이 수용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¹⁰⁴⁾ 4·3 이후 본가림으로 정착하면서 이웃하는 가구들의 종교문화와 접촉하게 되어 생업의례의 필요성으로 멧감제를 새로이 시작하였다.

104) 와산리 한순선씨 면담. “우리집인 저 제비보리에 있어신디 곳(멧감제) 같은 거 전혀 안 했어. 곳은 해 난 사람만 하는 거.”

의례가 생성되었다는 것은 해당 사회의 종교문화 안에서 의례가 지니는 위상이 크기 때문이다. 정월의 의례 중에 굳이 멩감제를 하게 된 것은 와산리 본가름이 산신멩감에 대한 신앙이 만연했기 때문이다. 이들 가구의 종교문화도 산신을 모시는 특성이 있기에 산신당의 신격과 직능이 비슷한 산신멩감인 멩감제를 생성한 것이다.

그들이 멩감제를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초반으로 감귤산업이 활성화를 띠는 시기였다. 삶의 여유가 생기다 보니 생업의 풍요와 자녀 양육을 위한 의례가 필요하였고 마을출신인 양춘일 심방과 의논하여 멩감제를 수용하게 된 것이다.¹⁰⁵⁾

와산리의 멩감제는 특정 집안의 생업수호신 신앙이 확산되어 와산리 본가름의 세시의례로 정착한 것으로 보인다. 의례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의례의 근거를 제공하는 신화, 의례를 주관할 심방, 의례의 대상신을 섬길 신앙민이 필요하다. 멩감제는 수렵 풍요를 기원하는 생업수호신의 성격으로 와산리 지역의 생업문화와 연관이 깊다. 신화 속에 등장하는 생업의 무대는 와산리 생업의 공간과 유사하여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가운데 의례의 필연성은 만들어지게 된다. 여기에 본가름 출신의 심방이 당곳과 개인의 무속제의를 담당해주었기 때문에 신뢰가 형성되어 의례를 지속할 수 있는 요소가 덧붙여진 것이다. 게다가 본가름의 집안들은 혼인으로 조상신 신앙이 확산되면서 멩감제를 지속시키는 강화장치의 기능을 한 것으로 보인다.

와산리 주민들의 당신앙과 가정신앙은 오랜 역사와 문화 전통에서 활발하게 지속되고 있다. 특히 지금은 폐당 되었지만 예전에 본향당에서 모시던 신격이 주변의 마을들과 다른 특성이 있으며, 현재는 불도당이 본향당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처럼 사회 환경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본향당 신앙을 존속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무속신앙 전통은 가정에서도 멩감제와 같은 의례가 지속되는 배경이 되고 있다. 와산리 불도당 의례가 존속하고 있는 것은 상단골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계승되어 내려 온 단골들이 있으며, 이들이 당신앙의 중심이 되고 있다. 또한 메인심방이 존재하고 있는 것도 당신앙

105) 양춘일 심방은 불도당을 주관하지 않지만 고군찬 심방 타계 후에는 와산리 양씨 집안의 각종 무속제의를 담당해 왔다. 한씨 집안은 결혼으로 인해 양씨 집안과 같은 일월조상을 섬기게 되어 유대관계가 있는 양춘일 심방에게 의례를 상담하게 될 가능성이 더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을 유지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심방들은 단골들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당곳과 개인의 곳을 주관하고 있다. 이러한 종교사회적 배경이 멩감제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2) 생업과 경제력

멩감제 지속 가구들의 농사규모는 큰 편이다. 현재의 경제 상황을 보면 보편적으로 농지소유도 많은 편이다. 전통사회에서는 토지가 중요한 생산수단이 되지 못하였다. 특히 와산리는 땅이 척박하여 더더욱 그랬다. 보리농사도 되지 않았고 주민들은 이러한 자연환경을 이용하여 축산을 병행할 수밖에 없었다. 와산리 주민들의 농지소유의 규모가 커진 것은 1970년대 유채와 수박농사를 시작하면서부터이다. 그전에는 생계형농업이었으며, 농업의 규모도 비슷하였다. 생계를 잇기 위한 농사만 지었을 뿐이고 살림살이의 규모는 잘 사는 몇 집만 빼고 비슷했다. 와산리에서 부자라 하면 ‘말을 많이 키우는 집’을 가리킨다. 농업 보다는 축산의 규모로써 경제력을 판가름하였다.

와산에서 부제렌 허민 물 많이 키우는 집을 가리켜. 가름안에 고씨 두 집이 허고, 옷동네 이집이, 양집 이추록 네 집 뿐이라. 나머진 비슷비슷했주. 소는 옛이민 농사 못헐거난 집집마다 허나 들씩 잇었고. 조, 산덕, 모물, 콩 갈아서 먹고 살아신디. 보리는 본카름이나 선홀 지경에만 되었고. 곡식이 모자라면 함덕이나 조천 강 사다 먹으명 살앗주. 비료 나왕 토질이 조아지면서 한 밭에서 유채 같고, 수박 같면서 돈 좀 만지기 시작했주. 그 해 농사지엄 밭 허나 사고 허면서 재산을 불렀주. 경허당 밀감묘목 분양 해주난 밀감밭으로 바뀌가고.¹⁰⁶⁾

위의 구술에 보면 와산리에서 부자라 일컫는 성씨는 고씨, 양씨, 이씨 등이었다. 이들의 후손들은 여전히 멩감제를 지속하고 있다.¹⁰⁷⁾

멩감제는 다른 무속의례에 비해 적은 비용이 소요되지만 유교식의례인 명절과 제사에 비교하면 많이 소요된다. 우선 의례를 주관할 심방을 청하는 데 비용이

106) 와산리 주민 양○○씨 면담(2009. 8. 25. 자택)

107) 고씨 두 집 가운데 한 집은 제주시로 이주하였지만 몇 년 전까지 멩감제를 했었고 현재는 절에 가서 칠성제로 대신하고 있다.

들고 유교식 의례보다 기원 대상이 많기에 재물을 마련하려면 더욱더 많이 든다. 과거에는 멩감제의 참여 범위가 일가방상과 이웃 주민들도 참여하였다. 참여하는 인원이 많은 만큼 멩감제의 준비는 수고와 비용이 갑절 소요되었다. 이러한 정황들로 살펴보면 멩감제는 경제력이 있는 집인 말을 많이 키우는 집에서 했었고 이들의 후손 역시 이러한 전통아래에서 지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제력이 멩감제와 연관있는 것은 멩감제를 새로 시작한 가구에서도 나타난다.

멩감제를 시작한 가구들의 멩감제 시작 시기는 1980년 초와 1990년 초이다. 시기가 다른 것은 가구주들의 연령이 차이가 나서 독립된 가정을 만든 시기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들 가구의 주요 소득 작물은 밀감이지만 축산을 병행하고 있으며, 이들의 농사규모는 큰 편이다.¹⁰⁸⁾

1970년대부터 유채와 수박의 이모작을 통한 토지생산력의 증대는 와산리 주민들의 토지소유 욕구를 높여갔다. 상업형 농업의 확대는 주민들로 하여금 토지 소유의 욕구 확대를 낳았으며, 토지 소유의 규모는 소득 수준과 정비례하게 되었다. 농업 생산력의 증대와 소득 규모의 증대는 생업의 번창을 위한 의례의 필요성을 낳는 요인이 되었다. 농업이 주를 이루는 사회에서 농업의 규모는 사회적 위치를 나타낸다. 멩감제는 과거 와산리에서 경제력이 있는 집에서 했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멩감제는 과거 사회적 위치가 높은 가정에서 하는 의례라 할 수 있다. 와산리에서 멩감제가 갖고 있는 상징성이 ‘부자들이 하는 의례’라고 한다면 환금작물 재배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긴 가정에는 더 나은 부의 축적과 사회적 위치를 위해서 멩감제를 새로이 시작할 수도 있다. 멩감제를 통해 해당사회 안에서 ‘사회적 위치가 있는 집’이라는 상징성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멩감제 의의

멩감제는 생업의 풍요를 기원하는 신년의례이다. 신년 의례인 문전철갈이를 포

108) 가구7은 재산을 자녀들에게 분배하여서 지금은 농지를 많이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과거에는 유채 생산량이 와산에서 1등도 몇 번 했었고 소도 많이 키웠었다.

함하고 있지만, 농업이나 수렵의 풍요를 비는 점에 중점이 있으며, 부수적으로 가정의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액막이도 함께 한다. 따라서 농신인 세경신과 수렵신인 산신을 청하여 기원하고 나서 가신들인 문신, 조왕, 칠성신에게 가정의 안녕을 기원하고 있다. 현재 와산리에서 정초에 행해지는 멩감제는 드르멩감과 문전첼갈이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초감제를 하여 청신을 한 후에는 개별 신들에 대한 각도비념으로 제차가 진행된다. 드르멩감에서는 멩감을 위시한 생업의 신을 청하고 문전첼갈이에서는 가신을 청한다. 가신은 문전을 비롯하여 집안 조상을 모시는 조령, 아이를 짐지하고 출산과 육아를 돕는 삼승할망, 부엌의 신인 조왕, 집안의 재물을 관장하는 칠성, 농기구의 신 갈매 등으로 장소에 따라 그 직능이 각기 다르다. 기능에 따라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인간 생활에 필요불가결한 존재가 되어 그 역할에 따라 세분화, 전문화되어 있는 것이다.¹⁰⁹⁾ 대다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집안의 무사안녕, 건강 및 장수 그리고 풍농 등을 기원하며 살고 있다. 이러한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하고자 행하던 신년제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1) 신년제의 기능

와산리의 멩감제는 정월에 한다는 의미에서 신년의례이기도 하다. 또한 정기적으로 한다는 의미에서 세시의례라 할 수 있다. 세시의례는 농경의 주기에 맞춰진 의례로 1년을 주기로 보고 죽음과 부활, 소멸과 회생이 반복된다는 순환론적인 시간관에 근거하고 있다.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재창조 과정을 거쳐 삶은 늘 재생되어 간다는 것이다. 세시의례가 밀접되어 있는 시기는 정월이다. 정월에 의례가 집중되어 있는 것은 농한기이기 때문이다. 새로이 생업을 이어가기 위한 휴식기의 의례는 복을 맞이하는 의례이다. 복은 액을 제거함으로써 오는 것이어서 제액초복이라 했다. 신년의례의 성격을 액막음에 있다고 해도 무방하다.

와산리에서는 신년의례로 멩감제를 하였다. 멩감제는 드르멩감에서 생업의 풍요를 기원하고 문전첼갈이에서는 가정의 1년 액을 막았다. 다른 지역에서 한 해의 액을 당곳이나 포제에서 기원하지만 와산리의 정월의 신년의례는 멩감제가

109) 서혜숙, 「가택신앙과 주거공간의 상관관계」, 『남도민속연구』제7집, 2001, 120쪽.

유일하다. 다른 지역에서는 정월에 당굿을 하여 마을공동체와 구성원들의 제액 초복을 기원한다. 와산리의 당굿은 음력 3월에 한다. 음력 3월은 농경세시로 보면 분주한 시기이고 가정의 각종 행사가 있어 금기사항을 준수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당굿 가까이에 일이 발생하면 미리 개별적으로 당을 찾고 당굿에는 불참한다. 그렇다면 당굿이 마을 구성원 개개인의 신년의례의 기능을 담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멩감제는 개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당굿의 보완기능을 하는 것이다. 시기적으로 늦은 당굿보다 멩감제를 통해 제액초복을 함으로써 보다 빨리 편안한 마음을 지니고서 새로운 한 해를 기약하는 것이다.

멩감제는 자연과 혈연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 결속을 다지는 사회적 기능도 수행해왔다. 멩감제는 신년제로 정월에 여러 가구가 동시에 하게 된다. 멩감제의 참여는 수놓음 하는 것처럼 가구마다 돌아가면서 의례에 참여하였다. 의례 참여자들의 범위가 넓어서 정월달 내내 와산리주민들이 만나게 된다. 제물에 쓰일 음식을 함께 만들고 먹으면서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었다.

<사진 4> 멩감제 음복



멩감제와 같은 신년의례는 경제구조와 종교관의 변화로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삶의 매듭마다 활기와 리듬을 주던 신년의례는 삶을 살아가는 지혜

이다. 선인들의 지혜는 고전에 담겨 있듯이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 의례안에 담겨 있다. 경제지상주의와 합리화를 추구하는 현대의 삶 또한 조상들의 의례를 통해 삶의 지혜를 찾아볼 필요도 있다.

2) 가족공동체 통합 증대

전통시대와 달리 현대에는 가족구성원들이 동시에 모이기는 쉽지 않다. 산업화의 영향으로 직업의 다양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직업에 따라 거주공간이 결정된다. 가족 간에 거주공간의 간격이 멀어질수록 그 유대관계 또한 멀어지기 마련이다. 특히나 자녀세대가 결혼하여 독립된 가정을 갖게 되면 이러한 현상은 더욱더 심해진다. 현대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의 교육이다. 자녀들에게 양질의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거주지의 위치를 결정하는 사회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자녀중심의 생활은 가족구성원간의 만남을 더욱더 어렵게 한다.

거주공간과 자녀들의 교육 상황이 각각 다른 현대인에게 있어 가족들의 만남은 집안 경조사, 기일제사, 명절 등이다. '할아버지·아버지·나'를 포함하는 세대 간의 만남은 명절이 유일하다. 4촌끼리의 만남 또한 명절이 유일하다. 명절은 1년에 2회이지만 남성을 중심으로 한 친족들의 화목을 도모하는 의례이다. 명절이 되면 집안에 성인이라 인정되는 남성들은 친족들의 의례에 참여해야 한다. 거주지가 먼 친족들의 의례에 참여하다 보면 직계 가족들 간의 유대관계를 가질 시간이 부족하다. 가족들이 오랜만에 한데 모이는 명절에도 할아버지는 아들들의 관심사, 손자들의 재롱을 느끼기에 모자라다. 더구나 결혼한 자녀가 많은 가정에서 가장인 할아버지가 자녀세대들의 일상을 살펴보기에는 더욱더 부족하다.

와산리의 멍감제는 가정의례로서 이런 유교식 의례의 단점을 보완한다. 멍감제는 본주들이 '조상을 잘 모셔서 복을 받는다'라는 관념을 갖고 있다. 멍감제를 참여하다 보면 가족 구성원들의 의례참여도가 높은 제차가 발견된다. 바로 가족구성원들의 상황을 신에게 아뢰는 '연유담음'과 한 해의 운수를 알아보는 '각산받음'이다.¹¹⁰⁾ 가장을 위시한 모든 가족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개개인의 관

심사는 노출되고 그것에 대해 가족구성원들이 관심을 갖게 된다. 의례에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가장은 열명지에 자녀이름을 넣어놓고 가장이 직접 자녀가정 구성원의 그해 운수를 챙긴다. 멩감제를 통해 가장은 먼 곳에 있어 자주 만나지 못하는 자녀들을 일일이 챙길 수 있다. 또한 삶이 바쁜 자녀세대도 서로의 일상을 살필 수 있고 함께 기원함으로써 유대관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새해가 되면 무엇보다도 멩감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어. 식게 멩질은 아들들 느껴쥬신디 멩감은 나가 허여. 그추록 일 넘겨야만 믿음도 펜안허고, 아기들도 잘 될거렌 생각헤지고, 그거 빌었다고 나쁜 일 안생기는 것은 아닌디. 마음은 펜안허난.¹¹¹⁾

멩감제는 신에게 복을 기원하는 의례이지만 이처럼 바쁜 일상가운데 자녀들의 일상을 염려하는 부모의 정성이 담겨 있는 의례이다. 가족을 살피려는 마음은 의례 가운데 나타난다. 의례에 참여하는 자녀들은 부모의 마음을 살필 수 있다. 멩감제는 남성 중심의 유교식 의례에 비해서 비용과 정성이 많이 소요되지만 세대를 넘는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의례이다.

<사진 5> 각산받음



110) '각산받음'은 각 제차마다 있는데 초감제의 '각산받음'에 더욱더 많은 관심을 보인다. 초감제의 '각산받음'은 산판으로 점을 치는데 다른 제차의 제비점 보다 상세하게 진행된다.

111) 와산리 주민 한○○씨(2009. 9. 26. 자택).

VI. 결 론

와산리의 멩감제는 제주도의 한 지역에 국한된 무속의례이지만 그것을 통하여 제주도 무속의 한 단면을 들여다 볼 수 있는 단서를 얻을 수 있다. 멩감제는 규모가 작은 의례이지만 그 속에는 무속이라는 종교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현상들이 복합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와산리의 멩감제에 대한 조사 및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와산리의 멩감제는 마을신앙 전통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그 매개는 심방의 존재이다. 와산리에는 본향당, 불도당, 산신당이라는 삼본향이 있었다. 특히 본향당은 배락장군, 배락스제를 신으로 모시고 있어서 제주도의 본향당신 체계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산간지역의 수렵과 목축을 관장했던 산신당도 별도로 존재하고 있었다. 하지만 시대의 변화와 생업의 변화에 따라 삼본향이 불도당으로 통합되어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다. 불도당 의례를 하면서 본향당신본풀이가 구연되고 있으며, 수렵문화를 상징하는 산신놀이가 불도당 의례에서도 행해지고 있다. 이는 수렵과 목축을 했던 와산리의 역사와 전통이 메인심방에 의해 현재에도 전승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와산리에서 멩감제를 하고 있는 가정들도 조상대에 목축과 수렵을 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이와 같은 내력은 의례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즉, 멩감제를 지속하고 전승되고 있는 배경에는 마을의 무속신앙 전통이 있으며, 생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의례로 멩감제가 존재해 온 것이라 하겠다.

둘째, 멩감본풀이의 기능과 성격을 의례와의 관련성 속에서 재검토하였다. 그 결과 멩감본풀이는 두 가지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그에 따라 멩감신의 성격과 역할이 달라지고 있는 것을 알았다. 멩감신의 역할은 액막이과 풍요이다. 특히 와산리 멩감제에서 멩감신은 풍요를 가져다 주는 조상신과 관련이 있다. 이는 불교에서 멩감을 빌려왔지만, 무속에서 조상신과 연관을 지으면서 재창조된 것이다. 즉, 수렵과 목축을 해 왔던 조상신들에 대한 신앙이 백년해골이라는 조상승배 전통과 관련을 맺으면서 멩감제라는 의례를 창조하고 전승시킨 것이라 하겠다.

다. 따라서 액땀이를 위한 의례에서 차사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멩감본풀이가 기
능하고 있으며, 멩감제와 같은 신년기원 의례에서는 풍요의 신으로 멩감신이 존
재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산신멩감이 있는 가정에서 멩감제를 하고 있는 현상은
멩감신이 조상신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셋째, 멩감제는 드르멩감과 문전제라는 두 가지 의례가 합쳐진 의례이다. 각각
의 의례에서 청하는 신들이 다르며, 기원하는 방식도 다르다. 특히 문전제에서는
혈연 조상이 아닌 무속신앙 전통에 따른 조상신들을 청하며 이들을 위한 의례를
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제주도만의 독특한 신앙 형태라 하겠으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고찰을 통하여 그 현상과 의의를 정리하였다. 향후 제주도내 다른 지역
에서의 사례 조사를 통하여 가정에서의 신년 기원 의례에 대한 연구를 위한 기
초 조사로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넷째, 와산리라는 마을에서 멩감제가 어떻게 지속 또는 중단되고 있는지를 면
접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정리하였다. 현대에 들어와서 무속신앙이 쇠퇴하고 있다
고 여겨지지만 와산리에서는 전승이 지속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다.
이는 집안의 전통으로 멩감제가 자리를 잡기 때문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신앙민
의 시각에서 멩감제의 위상을 구명하였다. 반면에 중단된 가구들에 대한 사례 조
사를 통하여 종교관의 변화, 세대 전승의 단절, 생업의 변화에 따른 요인들이 작
용하고 있는 것도 확인하였다.

이 글은 와산리의 멩감제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지만, 하나의 사례만을 대상으
로 하였기 때문에 마을 전체에서의 멩감제가 어떻게 존재하고 있으며 전승되고
있는지를 밝히는 데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 또한 제주도 전체를 대상으로 멩감제
라는 의례와 관련 신앙이 어떻게 존재하고 전승되고 있는지를 조사 연구하는 것
도 향후의 과제라고 하겠다. 멩감제는 다양한 신년 무속의례 중의 한 부분이다.
또한 심방과 단골간의 깊은 관련성 속에서 치러지는 의례이기도 하다. 따라서 심
방과 단골의 관련계도 연구 대상이다. 아울러 신앙민들의 종교 의식 및 신념 등
도 연구 대상이다. 이 글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다양한 현
장 조사와 사례 연구를 통하여 보완하기로 한다.

참 고 문 헌

< 자료 >

-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한국민속대관(3·4)』,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2.
- 국립문화재연구소, 『인간과 신령을 잇는 상징 巫具』(전라남도·전라북도·제주도), 민속원, 2008.
- _____, 『제주도 세시풍속』, 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 _____, 『한국민속조사보고서(제주도편)』, 문화공보부문화재관리국, 1974.
- _____, 『한국의 가정신앙』(전국), 국립문화재연구소, 2006~2008.
-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세시풍속사전 정월편』, 국립민속박물관, 2004.
- 국립민속박물관, 『덕수리 민속지』, 국립민속박물관, 2007.
- 김민규, 『조천읍지』, 도서출판 제주문화, 1991
- 남제주문화원, 『남제주의 문화유산』, 2006.
- 북제주군·제주대학교박물관, 『북제주군의 문화유적』Ⅱ, 북제주군·제주대학교박물관, 1998.
- 북제주군, 『북제주군』, 북제주군, 2002.
- 제주대 국문학과, 『국문학보』창간호~14집, 제주대 국문학과.
- 제주대 국어교육학과, 『백록어문』창간호~24집, 백록어문학회.
-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제주도부락지』Ⅰ~Ⅴ,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 제주도, 『제주의 민속』Ⅰ~Ⅴ, 제주도, 1998.
- 제주도·제주 4·3연구소, 『제주4·3유적』Ⅰ, 도서출판 각, 2003.
- 제주도교육청, 『제주의 전통문화』, 1996.
- 진성기, 『제주도 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2002.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편찬부, 1994.
-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 현용준·김영돈, 『한국구비문학대계 9-1(제주도 북제주군)』,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79.

< 단행본 >

- 강영환, 『집의 사회사』, 웅진출판, 1992.
- 강정식·강소전·송정희, 『동북 정병춘택 시왕맞이』, 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 2008.
- 고광민, 『제주도 생산기술과 민속』, 대원사, 2004.

- 김명자 외, 『한국의 가정신앙(상·하)』, 민속원, 2005.
- 김선풍 외, 『한국민속학의 새로운 인식과 과제』, 집문당, 1996.
- 김의숙·이창식, 『민속학이란 무엇인가』, (주)북스힐, 2004.
- 김창민, 『환금작물과 제주농민문화』, 집문당, 1995.
- 김태곤, 『한국민간신앙 연구』, 집문당, 1983.
- 김태곤, 『한국무속연구』, 집문당, 1995.
- 김택규, 『한국농경세시의 연구』,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민족문화연구총서 11>, 영남대학교출판부, 1991.
- 문무병, 『제주의 민속극』, 제주전통문화연구소, 2003.
- 문무병, 『제주도본향당 신앙과 본풀이』, 민속원, 2009.
- 박계홍, 『한국민속학개론』, 형설출판사, 1983.
- 비교민속학회, 『민속과 종교』, 비교민속학회, 2002.
- 실천민속학회 편, 『민속문화, 무엇이 어떻게 변하는가』, 집문당, 2001.
- 오창명, 『제주도 마을 이름 연구』,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4.
- 유동식, 『한국무교의 역사와 구조』,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7.
- 이기욱, 『제주 농촌경제의 변화』, 집문당, 2003.
- 이능화, 『조선무속고』, 이재곤 역, 동문선, 2002.
- 이두현·장주근·이광규, 『한국민속학개설』, 일조각, 2004.
- 이필영, 『마을신앙의 사회사』, 웅진출판사, 1994.
- 임재해, 『민속문화를 읽는 열쇠말』, 민속원, 2004.
- 장주근, 『한국신화의 민속학적 연구』, 집문당, 1995.
- _____, 『한국의 향토신앙』, 을유문화사, 1998.
- 조성윤 외, 『제주지역 민간신앙의 구조와 변용』, 백산서당, 2003.
- 조정호, 『무속 현지조사방법과 연구사례』, 민속원, 2002.
- 조흥윤, 『巫와 민족문화』, 민족문화사, 1993.
- 주강현, 『한국민속학연구방법론 비판』, 민속원, 1999.
- 진성기, 『제주무속학사전』, 제주민속문화연구소, 2004.
- _____, 『남국의 민속 : 제주도 세시풍속』, 제주민속연구소, 1969.
- 村山順智, 『釋尊·祈雨·安宅』, 조선총독부, 1938.
- 최인학·최래옥·임재해, 『한국민속연구사』, 지식산업사, 1994.
- 최인학 외, 『한국민속학 새로 읽기』, 민속원, 2002.
- 秋葉隆·赤松智城, 『조선 무속의 연구』, 심우성역, 동문선, 1991.
- 秋葉隆, 『조선 무속의 현지연구』, 최길성역, 계명대학교출판부, 1987.
- 표인주, 『남도민속문화론』, 민속원, 2002.
- 한국종교민속연구회, 『종교와 일생의례』, 민속원, 2006.
- 현용준, 『무속신화와 문헌신화』, 집문당, 1992.
- _____, 『제주도 무속과 그 주변』, 집문당, 2001.

- _____, 『제주도 무속연구』, 집문당, 1986.
- _____, 『제주도 신화의 수수께끼』, 집문당, 2005.
- 클리포드 기어즈, 『문화의 해석』, 문옥표역, 까치, 1998.
- E. Durkheim, 『종교생활의 원초적 형태』, 노치준·민혜숙역, 민영사, 1991.
- M. Eliade, 『성과 속』, 이은봉역, 한길사, 2003.

<논문>

- 강소전, 「제주도 잠수굿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 _____, 「<천지왕본풀이>의 의례적 기능과 신화적 의미」, 『탐라문화』32호,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2008.
- 강만익, 「목장 역사와 축산업 변화」, 『한경면 역사문화지』, 한국문화원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2007.
- 강정식, 「당굿의 세시의례적 성격」, 『한국무속학』14집, 한국무속학회, 2007.
- _____, 「제주도 당신본풀이의 전승과 변이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2.
- 고광민, 「行政圈과 信仰圈」, 『濟州道 研究』6輯, 濟州道研究會, 1989.
- 권태효, 「제주도 <맹감본풀이>의 형성에 미친 당신본풀이의 영향과 의미」, 『한국구전신화의 세계』, 지식산업사, 2005.
- 김명자, 「‘악사’의 동제와 가신신앙」, 『안동문화』8, 1987.
- _____, 「‘원두들’의 민간신앙과 세시풍속」, 『안동문화』7, 1984.
- _____, 「가정신앙의 역사」, 『한국민속사입문』, 지식산업사, 1996.
- _____, 「송천동의 가신신앙과 세시풍속」, 『안동문화』9, 1988.
- _____, 「안동지역의 용단지」, 『문화재』26, 문화재관리국, 1993.
- _____, 「업신고」, 『문화인류학논총』, 집문당, 1989.
- _____, 「풍기의 민속종교와 신앙생활」, 『민속연구』3, 안동대 민속학연구소, 1993.
- _____, 「가신신앙의 성격과 여성상」, 『여성문제연구』13, 효성여대 한국여성문제연구소, 1982.
- _____, 「업신의 성격과 다른 가택신과 친연성」, 『한국민속학보』 제7호, 한국사민속학회, 1996.
- _____, 「호남지역 칠룡신의 성격」, 『남도민속학의 진전』, 태학사, 1998.
- 김명자 외, 「경기지역 업신의 지속과 변화」, 『민속문화의 지속과 변화』, 집문당, 2001.
- 김영돈, 「제주도민의 통과의례(상,중,하)」, 『제주도』32,33,34, 제주도, 1996.
- 김정이, 「제주 설화의 생태학적 인식」,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김태곤, 「성주신앙속고」, 『후진사회문제연구논문집』제2집, 경희대, 1969.
- 김현선, 「맛이로 하는 우리 신화 연구」, 『경기어문학』제10집, 경기어문학회, 2005.
- _____, 「칠성본풀이의 본풀이적 의의와 신화적 의미연구」, 『고전문학연구』제28집, 2005.
- 나하영, 「家宅信仰을 통한 韓國傳統住居空間의 意味 考察」,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 문무병, 「濟州道 堂神仰 研究」, 제주대 박사학위논문, 1993.
- 문정옥, 「한국가신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1.

- 민병근, 「용인지역의 가신신앙 : 용인시 기흥읍을 중심으로」, 『人文社會科學研究』5, 용인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00.
- 변덕진, 「한국의 민간신앙에서의 성주신에 대하여」, 『연구논문집』, 효성여대, 1968.
- 서정화, 「영동 산간지역의 가신신앙 연구- 삼척 산간지역을 중심으로」, 관동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01.
- 서혜숙, 「가택신앙과 주거공간의 상관관계」, 『남도민속연구』제7집, 남도민속학회, 2001.
- 신영순, 「조왕신앙연구」,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 안미정, 「제주 잠수의 어로와 의례에 관한 문화인류학적 연구 :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문화전략을 중심으로」, 한양대 박사학위논문, 2007.
- 양성필, 「무속신화의 구조적 고찰을 통한 한국전통주거건축 공간조직의 이해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 유철인, 「일상생활과 도서성 : 제주문화에 대한 인지인류학적 접근」, 『제주도연구』1집, 제주도연구회, 1984.
- 이기욱, 「제주도 농민경제의 변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 이부영, 「제주도 무속의 몇 가지 특징과 분석심리학적 시고」, 『제주도연구』6집, 제주도연구회, 1989.
- 이용범, 「한국 무속 신관에 대한 연구-서울 지역 채수굿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 _____, 「무속에 대한 근대 한국사회의 부정적 시각에 대한 고찰」, 『한국무속학』 9집, 한국무속학회, 2005.
- 이필영, 「가을떡과 안택-충청지방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연구 1』 가을호, 이화여대한국문화원, 2001.
- _____, 「충남지역 가정신앙의 제 유형과 성격」, 『샤머니즘연구』Vol. 3. No.-[2000], 한국샤머니즘학회, 2000.
- 임근혜, 「성주신 연구- 안동수동마을신앙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 장영희, 「무속의 가신신앙에 나타난 신령관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5.
- 장주근, 「가신신앙」,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 전경수·한상복, 「제주도 농어촌의 사회 경제적 변화에 관한 조사 연구」, 『제주도연구』제13집, 제주학회, 1996.
- 정희중, 「제주도 농촌사회 상례문화의 특징과 변화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조성윤·박찬식, 「조선후기 제주지역의 지배체제와 주민의 신앙」, 『탐라문화』19호, 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 1998.
- 조성윤, 「산업사회의 무당」, 『전통과 현대』6호, 전통과 현대사, 1998.
- _____, 「정치와 종교」, 『사회와 역사』제53집, 한국사회사학회, 문학과 지성사, 1998.
- _____, 「19세기 제주도의 국가 의례」, 『탐라문화』16호, 탐라문화연구소, 1996.
- 최광식, 「삼신할머니의 기원과 성격」, 『여성문제연구』11, 효성여대 한국여성문제연구소, 1982.
- 최원오, 「차사본풀이 유형 무가의 구조와 의미」, 『한국민속학』29호, 한국민속학회, 1997.
- 최인학, 「비교민속학적 방법-조왕의 성격규명을 위하여」, 『한국민속학의 과제와 방법』, 정음사, 1986.
- 한진오, 「제주도 입춘굿의 연행원리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 허남춘, 「삼성신화의 신화학적 고찰」, 『탐라문화』 제14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4.
- 허남춘, 「淫祀로 정의된 基層信仰의 實態 研究」, 『인문과학』 31, 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5.
- 허남춘, 「제주 서사무가와 한국 신화의 관련성 고찰」, 『탐라문화』제21호,

-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0.
- 허남준, 「제주문화연구의 성과와 과제」, 『탐라문화』제31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7.
- 현승환, 「사만이본풀이 연구」, 『백록어문』제16집, 백록어문학회, 2000.
- _____, 「제주도 풍수설화의 이해」, 『탐라문화』제22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2.
- 현용준, 「제주도 민속문화의 보존과 개발방향」, 『제주도연구』2집, 제주도연구회, 1985.
- _____, 「제주도 신화와 의례형식에서 본 문화의 계통」, 『탐라문화』13호, 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 1993.
- _____, 「제주도 어촌마을에 관한 연구-1」, 『논문집』제2편, 제주대학교, 1970.
- _____, 「제주도 해촌생활의 조사연구(II)」, 『국문학보』3집,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70.
- _____, 「제주도민의 신앙체계와 무속」, 『제주도연구』6집, 제주도연구회, 1989.
- _____, 「제주연구의 현황과 전망 : 민속학적 측면」, 『탐라문화』3호, 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 1984.
- _____, 「巫俗·家庭信仰」, 『濟州道文化財 및 遺跡綜合調查報告書』, 濟州道, 1973.
- 현혜경, 「제주 4·3의례」,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 _____, 「제주농촌마을의 기제사의례 변화」,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